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0-25

경남교육 아이좋아

2020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습연구년 현장지원연구형 연구보고서

15권

15-1 2020. 코로나19와 함께 한 행복마을학교 운영 사례 연구

15-2 경남 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 학생자치 활동을 중심으로 -

15-3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사례연구
- 2020학년도 초등 행복학교 중간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

15-4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연구
-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중심으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20. 코로나19와 함께 한 행복마을학교 운영 사례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윤기숙 마산가포고등학교
공동연구자 배근해 안골포초등학교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2
3. 연구의 범위 ····· 2
4. 용어의 정의 ····· 3

Ⅱ. 이론적 배경

1.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학교에 대한 이해 ····· 9
2. 미래 사회와 미래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 11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절차 ····· 15
2. 연구 대상 및 방법 ····· 15

Ⅳ. 연구 결과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활동의 실태 및 성과와 한계 ····· 20
2.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의 실태 및 성과와 한계 ····· 29
3.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의 운영 실태 및 성과와 한계 ····· 36
4.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의 실태 및 성과와 한계 ····· 45

Ⅴ. 미래교육으로서의 가능성 및 행복마을학교 발전 방안

1. 미래교육으로서의 가능성과 시사점 ····· 51
2. 행복마을학교 발전 방안 ····· 52

[참고문헌] ····· **55**

- 표 목차 -

〈표 1〉 연구의 범위 ····· 3
〈표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복마을학교 운영 현황 ····· 7
〈표 3〉 연구 절차 및 방법 ····· 15
〈표 4〉 행복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 16
〈표 5〉 면담 조사 내용 ····· 19
〈표 6〉 도예교실 마을교사의 동물화석 모형 만들기 수업계획안 ····· 21
〈표 7〉 학교로 찾아오는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 24
〈표 8〉 온라인 수업 및 찾아가는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 26
〈표 9〉 마을교사 공개수업 운영 일정표 ····· 30
〈표 10〉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1차 연수 일정표 ····· 32
〈표 11〉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2차 연수 일정표 ····· 33
〈표 12〉 행복꾸러미 목록 ····· 37
〈표 13〉 구암마루아카데미 운영 계획 ····· 39
〈표 14〉 2020. 사공프로젝트 활동 주제 및 내용 ····· 48

<연구요약>

2020.코로나19와 함께 한 행복마을학교 운영 사례 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19로 방역이 최우선이 된 상황에서 행복마을학교는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모든 활동이 멈춰버리는 유래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통과 협력이 주요 동력이 되는 '공동체와 관계' 중심의 학교 밖 학교에서 '만남'이 불가능해지자 센터와 마을교사, 마을활동가, 지역민, 청소년 프로젝트 팀은 온라인 채팅이나 실시간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통하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행복마을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잃지 않고 학교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코로나19 위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오가며 마을교사 연수를 하고, 함께 20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연계하는 수업꾸러미를 개발 및 제작하였다. 그 수업꾸러미로 마을교사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ZOOM 등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배움 활동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이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배움터를 표방하는 행복마을학교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도하였던 다양한 활동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모델로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구암동 소재 행복마을학교에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진행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활동,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청소년 심화 및 공공프로젝트 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의 성과와 한계, 미래교육으로서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찾아본 사례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행복마을학교의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본 연구진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센터근무자 4명, 마을교육활동가 2명, 마을교사 9명, 지원교사 3명, 프로그램 참여 학생 6명, 길잡이교사 4명, 학교 현장 교사 5명, 지역민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학생들이 행복마을학교로 와서 마을교사와 대면하여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작업실을 활용하여 수업 만족도가 높았으나 2020년은 3월부터 6월까지 대면 수업이 중단되었다. 7월부터 약 두 달간 학교 프로젝트 연계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8월 중순부터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10월부터는 생태환경의 가치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고 만든 수업꾸러미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마을교사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과로는 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수업꾸러미를 연결하는 노력으로 학교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수립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점, 교육과정 전문가인 현장교사와 생활기술 전문가인 마을교사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생생한 융합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온라인 강의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 수업하며 기후 위기 속 친환경 자료 개발을 촉진하였다는 점, 획일화 된 시중의 공산품과 차별되는 수업꾸러미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한계점으로는 마을교사의 전공과 관련되는 수업꾸러미로 체험활동이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교과나 교사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주문제작이 아직은 어렵다는 점, 마을교사와 현장 교사 간 충분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 마을교사의 동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수업 운영 시 기술적인 지원이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은 2019년까지는 연간 2회의 연수와 마을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을교사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시간이 모두 달라서 서로 간의 교류나 수업 공유가 쉽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학생과 지역민이 오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3월~4월 마을교사 공개수업과 협의회, 4월~5월 2회의 마을교사 연수와 협의회, 5월~6월 수업꾸러미 제작 및 협의회, 9월~10월 수업꾸러미 준비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연수와 협의회가 이루어졌다. 주요 성과는 마을교사 공개수업으로 서로의 수업을 나누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수업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동영상 편집 및 온라인 수업 연수를 시기에 맞게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을교사의 디지털 매체 활용 역량 또한 길러졌다. 모든 의사결정 전에 마을교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였다. 한계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마을교사가 충분한 소통과 이해, 배움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교사가 상시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휴게 및 연구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필요시 원격연수 등 상시 학습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은 대면 활동의 중단 조치에 따라 마을주민과 공공기관 행복꾸러미나 응원 선물 전달, 비대면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활용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인원 및 시간을 분산하여 진행한 지역민 평생교육과 어린이일놀이터, 느티나무학교 운영 실태를 살펴 보았다. 성과는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와 마을교육활동가가 기획한 지역민 나눔 활동으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며 공동체적 돌봄을 실천하였다는 점, 참여자의 연령이나 활동 목적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 지역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했다가 지원교사나 마을교사가 되고 마을교육활동가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힘든 정보 소외층을 고려하여 충분한 홍보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고, 다양한 연령이나 세대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 등으로 더 많은 지역민의 참여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은 방역 최우선의 방침에 따라 6월까지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6월에 일선학교 등교 개학이 시작된 후부터 프로젝트 참여 학생을 모집하여 7월부터 대면활동이 시작되었다. 8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오가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의 성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볼 수 없는 자신의 관심사나 실생활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 대면과 비대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소계 시장 주변의 풍부한 경제 생태계와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활용하여 적절한 프로젝트 주제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SNS 소통의 한계로 학생과 길잡이 교사 모두 활동의 취지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구암·소계 지역의 학생 및 고학년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타지역에서 오거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참여하는 주제 활동이 피상적일 수 있기에 프로젝트 활동 경험이 각자의 삶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나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운영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가능성을 찾아보면, 행복마을학교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주문형 교육과정, 융복합이 가능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마을 교육과정 등의 미래형 교육과정이 구현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질 높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수업과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기술자인 마을교사, 직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이 갖춰진 작업장 등 행복마을학교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행복마을학교의 청소년 공공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는 주도성을 경험하며 팀 활동을 통해 범교과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으로 협력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협업 및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 교육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청소년 진로심화 교육과정인 꿈 프로젝트를 통해 교과서와 학교를 넘어서서 삶과 연계되는 직업 연계 역량 기반 평생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언제라도 스스로 선택하여 배우고 전문 자격을 습득하여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행복마을학교의 마을교사와 지원교사는 지식의 실생활 적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교사와 협업하는 학교 연계 수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프로젝트 길잡이 교사로도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학습 코치, 온라인 수업관리자, 프로젝트 조력자로 참여하며 미래 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경험하며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신기술이 선도할 미래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공동체, 협력과 협동, 소통, 마을과의 협치, 세대 통합, 민주 자치, 생태환경'의 철학과 가치를 행복마을학교의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를 통해 행복마을학교의 철학과 가치, 교육과정, 제공되는 학습경험, 교사, 작업 환경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실제적 삶에 기반을 둔 학습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교육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4. 제언

코로나19가 초래한 현실이 미래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더라도 행복마을학교의 미래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마을학교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경남 전역에 행복마을학교가 확장되고, 구암동에 위치한 경남 행복마을학교는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 그에 맞는 인적 자원과 활동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마을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을교육활동가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여러 세대와 계층의 배움과 필요에 능동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행복마을학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넷째,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 행복마을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독립적인 행복마을학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한다.

2020. 코로나19와 함께 한 행복마을학교 운영 사례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8년 4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직속기관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센터형 마을학교인 행복마을학교가 문을 열었다. 지자체나 지역민의 필요와 요구보다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뚜렷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빠른 시일에 마을학교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지역민 평생교육과 학교 연계 진로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자치배움터와 사공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돌봄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 지역 행복마을학교의 센터로서 주도적이면서도 선구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행복마을학교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반 학교의 마을교육과정,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청소년 자치배움터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속적 성장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던 2020년의 행복마을학교는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멈춰버리는 유래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통과 협력이 주요 동력이 되는 공동체와 관계 중심의 학교 밖 학교에서 '만남'이 불가능해지자 센터 교사들과 마을교사, 마을활동가, 지역민 동아리, 청소년 프로젝트팀은 온라인 채팅이나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는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전방위적 현장 적용면에서 우리 모두를 갑자기 미래의 어떤 날로 데려다 놓은 듯하였지만 행복마을학교만의 역할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행복마을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미래를 어떻게 대비

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오가며 마을교사들과 함께 학교와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연계하는 수업꾸러미 개발 및 제작, 마을교사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실시간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 ZOOM 등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배움 활동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시작하였다.

행복마을학교 현장 지원을 맡게 된 본 연구진에게 2020년의 특수한 사례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바이러스를 극복하기보다 함께하는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0년의 운영 실태와 성과 분석은 행복마을학교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배움터를 표방하는 행복마을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활동 사례를 관찰하여 2020년 10월까지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정리·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마을학교가 가진 미래교육으로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찾아본 후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한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마을학교가 미래교육 모델로서 보여주는 가능성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범위

경상남도에는 학교혁신과 직속 행복마을학교 외에 밀양 행복마을학교, 김해 행복

마을학교, 양산 행복마을학교, 장유 행복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구암동 소재 행복마을학교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때로는 대면 상황에서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청소년 심화 및 공공프로젝트 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의 성과와 한계,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1> 연구의 범위

연구 범위	
대상 기관	창원시 구암동 소재 행복마을학교
면담 대상	행복마을학교 센터, 마을교사, 지원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길잡이교사,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현장 교사, 지역민
현황 및 실태 분석 활동 및 프로그램	•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의 대면 및 비대면 활동 •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면 및 비대면 활동 • 청소년 심화 프로그램 및 공공프로젝트 활동

4. 용어의 정의

가. 코로나 19

1) 발생 및 대응 과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은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일컫는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발생 후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발병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중국에서 아시아, 유럽을 거쳐 미국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염력,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되지만 치료방법이나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공포까지 유발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단지 시점이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인 이른바 “질병 X”를 예상하게 한다(강철, 2020).

2020년 1월 8일 해외 신종감염병 발병 및 유행에 따라 관심 경보로 시작한 코로나19는 1월 20일 국내 유입으로 인한 주의 경보, 1월 27일 국내 제한적 전파로 인한 경계 경보가 내려졌다.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2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국가간 상호 교류 억제로 항공 관광업은 물론 무역 거래 감소,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전반적인 취업자 수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적 팬데믹 발생 시기가 조금씩 단축됨에 따라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스(2003)와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는 6년 주기로 발생했으나, 메르스 발생 후 4년 만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가 자리를 잡아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오병기, 2020), 과거 대면 중심의 사회 · 경제적 시스템이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이용환 외, 2020).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예측을 위한 키워드 분석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 자유의 갈등, 생물 감시에 대한 논의, 과학기술계의 역할 부각,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와 소통에 대한 시민의 요구,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등이 주요 논점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박성원,김유빈, 2020).

3) 교육 활동에 미친 영향

신종감염병은 교육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야기하게 하였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온라인 강좌와 원격 강의, 온·오프라인 혼합형 강의 등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제이슨 셍커, 2020). 지식정보와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인 장윤금(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은 대학 강의가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도 공유되고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대학이 강의만을 위한 캠퍼스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하며 협업하는 공동체의 비형식학습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MOOC나 코세라 포 칼리지 같은 전 세계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 클라우드 교육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정건화(2020)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참여할 시간과 공적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교육 2030'과 관련하여 교과과정에서의 통합성, 교실과 학교,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과 세상을 위한 전환과 연대의 배움터 조성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생태전환 교육이 지금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에서 김태정 인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관은 학교에 갈 수 없을 경우 가장 취약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공공적 돌봄, 공동체적 돌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복지와 결합하여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결합, 소규모의 참여형 문제해결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김태정,2020).

여러 전문가의 예측과 우려보다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충격은 훨씬 심각하고 컸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 및 대학교, 특수학교의 3월 등교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4월이 되어서야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다. 다수의 대학은 비대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나 초·중등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그로 인한 격차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등교 수업의 때를 고민하게 되었다.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5월말부터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 등교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2학기 등교가 다시 연기되었으며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9월말부터 10월 18일까지 2단계 유지 방침이 적용되었고 이후부터 1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등교를 하더라도 학교밀집도 3분의 1 내지 3분의 2 유지 원칙에 따라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격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으며, 대면하는 현장 체험활동이나 팀별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한된 인원 이내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에

따라 일부 활동이 재개되기도 하였다. 학생별 원격 수업 환경이나 상황의 차이, 원격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교사별 온라인 수업 운영의 격차, 학생의 건강과 체력 저하 우려 등 원격 수업 진행 과정상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한 국가 수준의 시험 운영 계획 및 일정 변경, 등교와 원격 수업을 오가는 상황에서의 학생 관리와 수업 및 평가 관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4)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미친 영향

2019년까지 잘 갖추어진 체험실과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대면 활동 위주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지던 행복마을학교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던 체험활동과 지역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등이 3월부터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로 인해 행복마을학교 센터와 마을교사들은 기존의 업무나 수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창의성과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끝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며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 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3월~4월부터 마을교사 공개수업과 연수, 협의회를 통해 역량 강화 활동에 집중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수업꾸러미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학생과 지역민을 만나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비대면 체험 활동과 협력 활동이 가능한 수업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마을교사의 의식과 역량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표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복마을학교 운영 현황

월별 대응 단계	학교 교육과정 연계 활동			마을교사 역량 강화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					청소년 심화 프로그램 및 공공프로젝트	
	찾아 오는 수업	수업 꾸러 미 제작	온라 인 · 찾아 가는 수업	공개 수업	연수	의견 공유, 협의 회	행복 꾸러 미, 반찬 나눔	어린 이일 놀이 터	느티 나무 학교	구암 마루 아카 데미	지역 민 평생 교육	꿈 프로 젝트	사공 프로 젝트
3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 수립			계획 및 실시		SNS 활용	계획 및 준비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실시	공동 체, 교육 과정	행복 꾸러 미 제작 · 시연	워킹 스루 · 현장 방문						
5월~6월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신청 공고	계획 및 교육 과정 분석			동영 상 제작, 온라 인 수업	수업 꾸러 미 제작 · 시연	워킹 스루 · 현장 방문	계획 수정 보완	계획 수정 보완	계획 수정 보완	계획 수정 보완	계획 수정 보완	계획 수정 보완
7월~8월 생활속 거리두기 유지	학교 연계 프로 젝트 실시	교육 과정 분석, 제작, 홍보				꾸러 미 활용 계획		활동 준비	활동 준비	대면 활동 시작	모집 및 활동 준비	대면 수업 시작	대면 활동 시작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획 수정	계획 수립			코로 나19 재유 행 대책							
9월~10 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 연계 수업 꾸러 미 제작	온라 인 매체 활용 연습		ZOOM 활용 수업	ZOOM 수업 시연 및 평가	계획 및 준비	비대 면 모색 및 준비	비대 면 모색 및 준비	ZOOM 활용 비대 면 강좌 운영	비대 면 모색 및 준비	비대면 모색 및 준비	비대면 활동 (ZOOM 또는 SNS 활용)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학교로 사전 배부	비대 면 ZOOM · 찾아 가는 수업				반찬 나눔, 공공 기관 응원 꾸러 미 나눔	인원 분산 1:1 대면 활동	인원 분산 1:1 대면 활동	대면 및 비대 면 ZOOM 병행	인원 분산 대면 운영	상황에 따라 ZOOM 활용 비대면 및 대면 병행	상황에 따라 ZOOM 활용 비대면 및 대면 병행

나. 수업꾸러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와 센터가 온라인 및 대면 협의회와 연수를 통해 제작한 체험활동 꾸러미를 지칭한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과 완성 방법을 담은 동영상 QR코드 인쇄물을 하나로 만든 꾸러미로서,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담아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주체의 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꾸러미는 지난 4월, 워킹 및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세월호 추모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과 지역민이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며 문화적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도되었다. 목공, 제빵, 공예, 새활용 등 행복마을학교에서 강좌를 진행하는 마을교사가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체험활동 꾸러미를 구안하고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4월과 5월 행복마을학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에 참여하였던 학생과 지역민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은 마을교사들은 체험활동 꾸러미 제작 경험을 살려 행복마을학교로 와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남 지역 학교 현장의 학생들과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업꾸러미를 기획하고 학년별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수업계획안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센터와 마을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분석과 미래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으며, 마을교사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수업과 수업꾸러미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장 • 단기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업꾸러미 제작과 학교 수업과의 연계 시도는 안전과 방역지침으로 인해 학교 밖 활동이 제한된 교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접속 매체를 활용하여 마을교사가 원격으로 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학교에 대한 이해

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은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서용선 등(2019)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규모와 주도하는 중심 주체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를 유형화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마을교육공동체의 규모는 행정구역상 '동·리'와 같은 작은 마을, '읍·면·구' 단위의 중간 마을, '시'나 '군' 단위의 큰 마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행복마을학교는 작은 마을, 중간 마을, 큰 마을 단위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의 주체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 주도형, 마을 주도형, 센터 주도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행복마을학교는 교육청 산하의 센터(기관) 주도형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라 정의하였다. 박경민(2016)은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가 만나서 형성되는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정병흠(2016)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와의 공통점은 있지만 마을교육공동체는 그 대상이 초· 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민·관·학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태정(2019)은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인 마을에서,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혹은 공동체적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리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여 주체에 따라 마을의 자조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초기 학교의 필요에 의해 혹은 학교를 중심에 놓고 마을과의 연계를 중심에 놓은 입장에서 학교와 마을의 상호작용과 상호 협력을 강조하거나 마을과 학교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

의 공동체로 보는 경향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하게 실험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없지만 다수의 논의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인 관계이며 주민의 참여가 강조된다. 또한 김태정(2019)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로 거론되는 대상이 민·관·학이지만 아동청소년을 목적의식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마을의 범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150명 이하의 사회적 관계망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 설정하기를 제안한다. 운영 원리로는 민·관·학의 거버넌스와 함께 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나. 마을학교

김종선 외(2015)는 마을학교의 개념을 주체, 공간, 목적, 활동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주체 측면에서 마을학교는 주민의 주체 형성을 돕는 마을 교육 시스템이며 주민은 교육의 주체이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주체이고, 공간 면에서는 공간(space) 개념을 넘어 주민 '생활의 장(field)'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플랫폼이다. 목적 면에서 마을학교는 평생학습을 매개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활동 측면에서 마을학교는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하고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창조한다. 이러한 마을학교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는 주민의 학습하기, 관계 맺기, 참여하기로 각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선순환을 이룬다고 정리하였다.

양병찬(2014)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함께 구상되어 실행되었던 마을학교라는 말은, 마을에 위치한 학교라는 전통적인 개념과 다르게 2000년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이나 '마을배움터(YMCA)' 등의 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에게 학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학습자원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학습센터 운동과도 연결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광섭(2017)은 칼럼에서 마을학교란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이 마을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정의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지속가능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고립과 단절된 개인과 단체들이 연결고리를 맺어 함께 성장하고 돌보는 협동적 삶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2. 미래 사회와 미래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미래사회의 주요 영향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 불평등, 기술 발달과 혁신, 사회의 다양성과 세계화,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다(김혜영 외, 2019).

유럽위원회 소속 합동 연구소에서는 '학습의 미래'를 통해 미래 사회는 학벌이나 자격증보다 역량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며, 교육은 교실 너머로 확장되어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관심 분야 간, 과목 간, 학교 간, 전문 기관과의 상호 네트워킹이 구현되는 등 교육 시스템이 확장될 것이라고 본다. 학습 공동체의 구성 기준은 연령이 아닌 지식, 역량, 흥미, 학습 유형으로 대체되고 관심과 흥미 중심으로 그룹화된 학습 공동체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며 전통적 교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통합 교과, 범교과가 확대되며 문제해결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김현섭 외, 2019).

미래 사회가 융복합 산업 기술로 인해 초고도 및 초연결 스마트 문명이 될 것을 전망하는 동시에 오래된 미래를 강조하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대안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존의 마을을 혁신하고자 하는 '전환 마을 운동'이다. 중심 거점 1Km반경 내에서 다양한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며 그 공간을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가 재생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이 높아지는 것이 전환 운동의 목표로, '전환'과 '자립'을 키워드로 하는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쪽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김현섭 외, 2019).

한편,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교육 2030'에서는 교과 과정을 넘어 교실로, 교실을 넘어 학교로,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삶과 행동의 전환을 실천하는 주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과 통합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비대면 형태가 확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비인간화와 실재 세계를 초월하려는 시도,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에 의한 인간 통제와 인간의 자아정체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체, 학습자 중심, 협력과 협동, 지역 마을과의 협치, 평등과 평화, 통합, 민주 자치'등의 가치를 담은 대안적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고 심화되는 개인화에 대응하여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를 통한 아날로그적 공동체 형성과 돌봄이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현섭 외,2019). 같은 책에서 장슬기는 다양한 미래 교육의 모습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네트워킹, 스마트 학습 공간, 무학년 학점제, 학습공동체, 직업 연계 역량 기반 평생교육, 학습 코치로서의 교사 역할, 교육자치·지역사회의 마을교육 생태계를 미래 교육의 일곱 가지 특징을 추출하였다.

미국의 교육과정 재설계 센터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영숙 등의 2030~2050 미래 예측 보고서에서는 소통, 창의성, 분석력, 협업 능력이 중요하며, 특히 적응력, 복원력과 기개,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사고능력이 강조된다고 한다. 한편 김선미(2018)는 소프트웨어 코딩 제작 능력, 디지털 미디어 비평 능력, 인터넷 정보 수집과 활용, 선택 능력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에게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미래 학교는 교육 이외 돌봄, 건강, 안전, 진로탐색 등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된 조직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직업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빨라지고 고용 안정이 없는 시대 속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될 것이므로, 학교 교육은 전생애 중 특정 시기라는 관점에서 재구조화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학습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시공의 제약 없이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학교는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며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환되어야 하며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과 학교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김현섭과 장슬기(2019)는 미래학교의 모델로 학습공원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제안하며 미래학교 성공의 핵심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학습공원을 책임지고 헌신할 책임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학습공원이란 벨기에의 'learning and redesign lab'에서 소개한 미래학교의 형태로, 전통적인 학교 공간 대신 지역사회와 통합되어 연령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에게 배우는 학교이다. 다수의 교육 선진국들의 교육흐름을 살펴보면 다양한 매력적 요소를 가진 학습공원과 같은 형태로 점점 발전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미래의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필요를 학교 안에서만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들을 네트워킹하여 학생들의 성장 지원에 협력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지역 사회의 여러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고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교육과정의 주체자가 되어 학생들이 맥락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배우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기 위해 학습코치, 온라인학습관리자, 교육소프트웨어개발자, 프로젝트 학습 조력자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김혜영 외, 2019). 과거 '내용 전달자'에서 미래 교사는 '역량 강화자,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안내자'로 역할 전환하여 학생이 선택한 지역 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에 대한 정보와 기량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자원, 변화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한다(마크 프렌스키, 2019). 특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육과정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혼자하기보다는 다른 교과나 전문가와 연계하는 협업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반성적 실천가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창조적인 수업을 구현해가는 교육과정 디자이너이자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김현섭 외, 2019).

미래 교육에서는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여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될 것이며(김경애 외 2018, 김혜영 외, 2020), 이를 위해 범교과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과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방법, 협력과 탐구에 기반을 둔 협동학습 교수학습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찬승 2016, 윤종혁 외2017, 김혜영 외 2020). 미래학교의 수업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수용과 생성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즉각적인 피드백과 게임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게임 기반의 학습을 위한 실제적 수업 운영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혜영 외, 2020). 유비쿼터스 환경, 다양한 화상 강의, 스마트 기기, 인공지능로봇, AR과 VR

등을 활용한 수업 방식이 등장하며, 기존의 대안적 교수학습과 미래상황에서 구현되는 독특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합한 새로운 교수법과 플립 러닝 등 온오프라인 연계학습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김현섭 외, 2019).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나 방법을 특정하여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길러야 하는 역량을 찾아내고, 학습자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섭과 장슬기(2019)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 교육 모델로서 학습공원을 제안하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의 미래 교육과정은 표준화 교육과정의 적정화와 개인 맞춤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가치와 창의융합 역량 중심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배워 활용하되 인간의 정체성과 연계된 인간 본성 교육과정, 세계화와 마을 지역 교육과정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교과서와 학교를 넘어서서 삶과 직업현장이 연계되는 인턴십 교육과정 구축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절차 및 방법

일정	연구 내용	연구방법
3~4월	문헌 연구 및 연구 계획 수립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컨설팅
5월	현장 사례 관찰 및 기록 질문지 개발	연구 위원 및 전문가 검토
6월	현장 사례 관찰 및 기록	모니터링, 사례 분석
6월~10월	현장 사례 관찰 및 기록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면담	설문 및 인터뷰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위원 협의
11월	보고서 작성	질적 분석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행복마을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구암동에 소재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직속 기관이다. 기관 주도형 마을교육공동체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지난 2년 간 운영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기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밀양, 양산, 장유, 하동 지역에 행복마을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 구암동 소재 행복마을학교는 경남 행복마을학교의 허브 역할과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행복마을학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구암살림을 조직하고 구암마루아카데미와 지역민 동아리인 구암두레 활동을 지원해 왔다. 학생들과 지역민이 원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자유롭게 개방하며, 전문가용 장비들을 갖춘 작업장과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표 4> 행복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학생 및 지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 운영내용	학교연계	지역민	꿈 프로젝트 (청소년 진로 심화)	사공 프로젝트 (청소년 공공프로젝트)
운영 요일	월~금	화, 목	토	토
운영 시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대상	초5~고3	지역민	초5~고3	초5~고3
프로그램내용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진로 체험	목공, 도예, 밴드, 커피, 제빵, 업사이클링 등 지역민 평생교육	청소년 주제별 심화 교육과정	공공프로젝트, 청소년자치 배움터

지역민 대상 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과정	어린이일놀이터	느티나무학교
운영 대상	마을 초1~초4	마을 60세 이상 어르신
운영 내용	일과 놀이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어린이 창의 놀이 한마당	건강과 자립을 목표로 놀이와 생활예술로 함께 어울리는 어르신들의 놀이 한마당

마을교육공동체	
구암살림	
구암·소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생학습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암마루	구암두레
구암·소계 마을 주민과 마을교사로 구성된 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지역민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체험실 및 시설
목공교실, 제빵교실, 요리교실, 바리스타교실, 아트푸드교실, 댄스교실, Maker교육교실, 도예교실, 업사이클링교실, 마을방송국, 카렌시아(모임 공간), 늘놀이터, 너나들이(옥상정원)

행복마을학교 센터에는 센터장과 장학사, 파견교사, 행정 담당 주무관 등 운영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 근무하며, 마을교사, 지원교사, 길잡이 교사, 마을교육활동가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꾸려지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프로그램의 강사이고 수강생이자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지만 경상남도교육청 혁신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인 행복마을학교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면대면 수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질 높은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교사의 수업을 학교의 교과 수업, 범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모둠활동은 물론 각종 체험 활동의 기회가 닫혀버린 학생들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를 가정하여 수업꾸러미를 제작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을 전면 중지하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오가며 마을교사 역량 강화와 지역민 프로그램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행복마을학교 센터와 마을교사가 수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며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며 수업꾸러미를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활동을 지속하거나 시간과 인원을 분산하여 접촉을 최소화하며 '관계의 지속'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행복마을학교의 8개월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구성원이 불안과 초조로 시작한 3월부터 기다림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기를 거듭하던 8개월을 지나 이제는 동영상 제작은 물론 ZOOM을 통한 비대면 체험 활동의 가능성과 개인 역량의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현실과 미래사회의 예측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마을교사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고, 60세 이상 할머니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민 프로그램, 청소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공부하고 체험하며 심도 있는 지식을 쌓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프로젝트 활동을 실천한 현장에서 마을교사와 지원교사, 길잡이교사, 지역주민, 학생들, 센터근무자, 일반학교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행복마을학교의 운영 사례가 미래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행복마을학교 발전 방안을 찾아보았다.

가. 문헌 연구

본 연구는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이론적 배경 및 현장 적용 사례, 미래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와 서적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자료 수집

1) 현장 사례 관찰 및 기록

행복마을학교에서 2020년에 시도한 코로나19 극복 사례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수업꾸러미와 온라인 수업 시도, 마을교사의 교육과정 이해 및 매체 활용 수업 시연과 협의회,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던 지역민 대상 활동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진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2) 관련 문서 및 기록물 분석

연구 범위로 설정한 활동들과 관련하여 2020년 3월부터 센터에서 생산된 각종 계획서와 문서 등의 기록물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설문 및 심층 면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시 온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였으며, 센터와 마을교사, 지역민과 학생, 학교 현장 교사와의 면담 기록과 녹음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마을학교 센터 근무자 4명, 마을교육활동가 2명, 마을교사 9명, 지원교사 3명, 활동에 참여한 지역민 14명,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 6명, 길잡이 교사 4명, 구암중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5〉 면담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대상	면담 조사 내용
학교 교육과정 연계 수업꾸러미 제작 및 온·오프라인 수업	센터근무자, 마을교사, 현장교사, 마을교육활동가	1. 학교 교육과정 분석과 수업꾸러미 제작의 성과와 문제점 2. 수업꾸러미로 학교를 찾아가거나 ZOOM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나 가능성, 보완되어야 하는 점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	마을교사, 지원교사, 센터근무자	1. 공개수업이 수업 개선에 미친 영향 2. 마을교사 연수 및 협의회의 효과와 한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구암마루 회원, 마을교육활동가, 지역민	1. 행복꾸러미 및 반찬 나눔의 성과와 한계 2. 지역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3. 늘놀이터 운영 방법의 변화에서 찾은 가능성과 한계 4.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구암마루아카데미 운영의 성과와 한계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참여 학생, 길잡이교사, 마을교사, 지원교사, 센터근무자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청소년 대상 꾼 프로젝트 운영의 성과와 한계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사공프로젝트 운영의 성과와 한계

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장 활동 참여와 관찰, 관련 문서 및 기록 열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및 심층 면담에서 추출한 자료를 연구의 주제 및 목적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필요시 재수집하거나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범주화하며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 특유의 연구자 주관성을 극복하고자 센터 근무자 및 마을교육활동가, 마을교사와 지원교사, 학생 및 지역민 등 각자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그룹에서 각각 최소 2명 이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연구 위원과의 정기적인 컨설팅과 연구협력관 면담 등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활동의 실태 및 성과와 한계

학교 교육과정 연계 활동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비대면 시기에 시도하였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한 수업꾸러미 제작, 7~8월에 행복마을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대면으로 진행된 학교 연계 진로활동 프로그램, 10월 이후 마을교사가 현장 학교로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운영한 수업이 있다. 각 활동의 실태를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과 교육과정 연계 수업꾸러미 제작 및 활용

2019년까지 행복마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행복마을학교로 와서 마을교사와 대면하여 장비가 갖춰진 작업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들고 소통하며 경험과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전면 중지된 상황에서 센터와 마을교사는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의미 있게 시도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고민하며 2020년 5월부터 수업꾸러미를 제작하게 되었다. 마을교사들의 수업 속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내포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초,중,고 교과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취기준과 연결하고, 그에 맞게 다양한 수업꾸러미가 만들어졌다.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계획안을 작성하 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도출되었다. 현재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처럼 일회적으로 몇 시간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도 있었지만, 범교과 학습 영역으로 안전과 건강, 인성(생명존중), 진로, 민주시민, 인권,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의 주제 학습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보기도 하였고, 현장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이나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 교과 간 주제통합 교육과정 등 실제로 현장 적용 가능한 다양한 수업계획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표 6〉 도예 교실 마을교사(조**)의 동물화석 모형 만들기 수업계획안

<table>
<tr><td rowspan="5">관련 교과</td><td>초4,6 미술</td><td>표현</td></tr>
<tr><td>초3~4 과학</td><td>고체지구-지구의 역사-화석의 생성, 과거 생물과 환경</td></tr>
<tr><td>고1 통합과학</td><td>변화와다양성-생물다양성과유지-화석, 대멸종</td></tr>
<tr><td>고2 융합과학</td><td>변화와다양성-생물다양성과유지-화석, 대멸종</td></tr>
<tr><td>고2 지구과학</td><td>변화와다양성-생물다양성과유지-화석, 대멸종</td></tr>
<tr><td rowspan="6">성취 기준</td><td colspan="2">[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td></tr>
<tr><td colspan="2">[6미02-06]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4과06-03]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관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10통과06-01]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광합성, 화석 연료 사용, 철기 시대를 가져 온 철의 제련 등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td></tr>
<tr><td colspan="2">[12지과 I 02-05] 지질 시대를 기(紀) 수준에서 구분하고, 화석 자료를 통해 지질 시대의 생물 환경과 기후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12융과03-03] 지질 시대에 따른 생물 화석의 변화를 통해 생물 종의 진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으며, 생물 화석이 포함된 지층과 암석의 특징을 바탕으로 과거 생물의 생활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12융과06-02] 지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와 화석 연료이고, 에너지를 빛, 열, 소리, 전기 등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td></tr>
<tr><td>수업 의 흐름</td><td colspan="2">1. 도입
- 알고 있는 화석에 대해 말해보기
- 살아있는 화석은 있을까?
2. 화석모형 만들기(미술)를 통해 화석에 대해 알아보기(과학, 지구과학1)
- 실제화석과 모형화석의 차이점 말해보기
-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기
- 화석의 생성 과정
-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과거 생물과 환경 추리해보기
3. 현재는 미래의 역사(국어)
- 내가 화석으로 남기고 싶은 물건을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기
- 왜 화석으로 남기고 싶은 지 이야기 해보기
 </td></tr>
<tr><td>수업 자 의도</td><td colspan="2">우리 지역에 있는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석 생성 과정 및 조건, 화석이 되는 동·식물의 특징까지 공부해보고 만든 화석을 교실 꾸미기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구과학이라는 교과 학습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로 교실에 전시함으로써 이후 계속 배운 내용을 되새겨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td></tr>
</table>

처음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수업꾸러미와 수업계획안, 완성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학교로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으나, 단순 노작에 그치기에는 수업꾸러미에 담긴 행복마을학교의 철학과 가치, 마을교사의 수업 의도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이후 마을교사가 학교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꾸러미를 활용하는 수업 형태, 수업꾸러미를 학교로 보내고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으로 마을교사가 원격지

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구안하기에 이르렀다.

면담 결과, 센터와 마을교사 및 지원교사의 협업으로 시작된 수업꾸러미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이어지며 비대면 상황에서의 체험 학습 가능성을 보여주며 면담자 다수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육과정 분석 과정에서 현장 교사와의 협업 기회의 부족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을 아쉬워하였고, 행복마을학교의 우수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 일반 교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의 질을 고민하며, 학생 수의 감소로 빈 교실이 늘어난 학교에 작업장이 만들어지거나 행복마을학교의 장비를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가서 체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꾸러미를 연결하는 작업은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와 연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기술가정, 도덕, 환경, 보건, 예술 체육교과에 국한되고 보통교과에서는 국어와 영어, 사회 정도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국어나 영어교과와 연결하면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읽기 자료나 통계 자료와 함께 수학, 과학, 사회와도 연계가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기후위기, 생명존중, 평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등의 가치를 담고 일관된 철학이 있었기에 방향성 조정에는 성공한 것 같다 -센터 근무자C

학교로 보낸다면 기존 수업자료보다는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 영상과 함께 조금 더 세련되게 세팅하면 질좋은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생활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과 수업에 특화시키면 좋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농어촌 등 원거리의 학생들이 행복마을학교에 오지 않아도 실습 장비를 싣고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될 계획이다. -- 센터근무자 B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업 꾸러미는 마을교사들이 학교 교육 과정 연계했다는 것도 의미있지만 기후 위기 대비 생태 교육, 창의적인 자기표현, 몰입을 통한 치유 등의 가치를 고민하며 만들었다. 학교에서의 평가도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방과 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평가가 아주 달랐다. -마을교육활동가 A

교육과정에서 나의 수업과 연결되는 성취기준을 찾아보았는데 너무 어려웠다. 동영상까지 같이 만들려니 더욱.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이 학교현장에서의 수업꾸러미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수업꾸러미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행복마을학교의 철학적 가치를 담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포장,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하는 부분이었다. 학생들이 행복마을학교에 올 수 없는 대신 수업꾸러미가 찾아갈 수 있어 행복마을학교의 저변이 확대되는 면이 강점이었지만 행복마을학교 작업장이 아닌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도 실현가능한 형태의 꾸러미를 만들어야 내기가 쉽지 않았다. 각 학교의 빈 교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비나 작업 도구를 갖춘 작업장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마을교사B,E

행복마을학교에서 제일 처음 준비하고 도전한 작업이었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함과 탄탄한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마을학교 자체에서 단단한 유대가 이루어져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고 일반 학교의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아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지원교사 B

면담 결과와 본 연구진의 참여 관찰 후에 분석한 이 활동의 성과는,

첫째, 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의 성취기준과 수업꾸러미를 연결한 노력은 교육청 사업으로 자리잡은 행복마을학교가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차별화되면서도 공교육의 장점을 살리는 행복마을학교형 미래 교육과정 수립의 기초가 되는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에서 교사는 실습형 학습 자료의 준비에 치중하기보다는 본연의 수업 의도와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교사로부터 생생한 기능을 직접 배우는 융합 수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강의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과 경험을 통한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현장에서 쉽게 구하기 힘들고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습 자료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넷째, 만들어진 수업 꾸러미들은 시중의 획일화된 공산품과는 차별화되었으며 학생들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게 하는 수업 도구가 되었다.

이 활동의 한계 및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먼저 파악하기 보다 마을교사 개인의 전공과 관련되는 꾸러미와 학교 교육과정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마을교사가 꾸러미와 교수 활동을 기획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재료를 꾸리거나 동영상을 편집하는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나 전담인력의 지원이 요구된다.

나. 행복마을학교로 찾아오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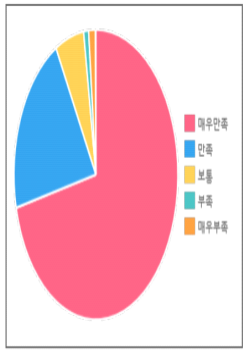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의 초등학교 106명의 학생과 2개의 중학교 407명, 창원예술학교 73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행복마을학교로 찾아오는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8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중지되었다. 그 중 1개 중학교와 3개 초등학교는 3~5일에 걸쳐 체험활동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중복 참여 학생 수를 포함하면 약 913명이 참여하였다. 체험 활동 후 행복마을학교 자체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근무자와 마을교사, 지원교사, 참여 학생들, 학교 교사 면담 결과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이루어진 대면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다. 현장교사의 경우

마을교사와의 프로젝트 협업이나 학교의 일과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행복마을학교와의 사전 소통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었고, 행복마을학교의 마을교육과정으로 일회성 수업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가능성과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7> 학교로 찾아오는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응답수
목공	96 10.5%
제빵	173 18.9%
커피, 음료	62 6.8%
요리	126 13.8%
K-POP 댄스	35 3.8%
PD 제빵	40 4.4%
생활용	105 11.5%
아트루드	84 9.2%
금속공예	76 8.3%
도예	116 12.7%



응답	응답수
매우만족	652 71.4%
만족	188 20.6%
보통	52 5.7%
부족	9 1%
매우부족	12 1.3%

<좋았던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사례>
·직접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만 재미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서 재미있어졌다.
·빵을 만드시는 분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선생님과 함께 촬영하고 편집하고 아나운서 체험까지 너무 재미있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같이 도와가면서 내가 만들어보고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와서 좋았다. 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이 체험을 계기로 내 미래의 직업의 다양성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사례>
·체험 기간이 이틀 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도착해서 기다리던 것이 많이 답답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체험하지 못해서 아쉽다.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다.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단순히 문화센터나 진로체험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에 행복마을학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근무자 A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많았다.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업별 참여 인원 제한이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들도 제한적인 것이 아쉽다. -센터근무자 D
현장교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현장 지도까지 실질적인 부분을 하고 있다. 마을교사는 세팅된 자리에서 자신의 수업만 하는 부분에서 주도성이 아쉽다. -구암중 교사 A

시장판매(지역사회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회나 경제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고, 기사를 작성하면 국어과와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두 번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결하면 학교와 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결하여 양질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암중 교사 B

학교의 일과 운영 시간(교시당 45분)과 행복마을학교 수업 시간(2시간 연강)이 일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야외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집단으로 실내 강당에서 사전교육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었지만 학교의 시간표상으로는 4시간 활동인데, 행복마을학교에서는 활동 전후의 2시간이 허비되고 2시간만 활동하게 되는 부분이 아쉬웠다. 마을교사가 맡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수 학생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안타까웠지만 수업 구성이 다른 체험처보다 교육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면이 좋았다. -구암중 교사 C

학교나 특정 교과 수업과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가 함께 한 달 이상의 장기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하려면 교과 내에서나 교과간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인솔하는 교사의 복무나 학생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여건상 운영이 힘들 것 같다. 특히 프로젝트 수업 설계와 관리 대부분에 현장 교사가 참여해야 하고, 마을교사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수업과 업무, 학생 관리만으로도 벅찬 현장 교사에게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센터나 학교 교사, 마을교사 간에 수많은 시간의 소통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구암중 교사 D

2019년까지 학교 연계로 잘 운영되던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되었다. 7월부터 8월까지 일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대면 수업을 할 때 행복마을학교의 시설과 마을교사의 역량이 최대치로 발휘된다는 것과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 학생 간의 협력활동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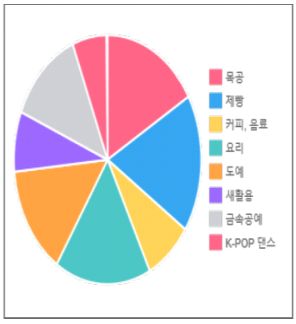
그러나 학교 연계 프로젝트라 하기에는 짧게 2일, 길다면 5일 동안 학교 주도의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행복마을학교에서의 체험 활동 이전과 이후의 어떤 교과 활동이나 성취기준과 연계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 2일이든 일주일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 활동이든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교와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와의 협업이 있었다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다. 온라인 수업 및 마을교사가 찾아가는 수업 운영

행복마을학교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시도된 활동이다. 8월 15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행복마을학교로 찾아오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상반기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꾸러미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와 마을교사는 ZOOM을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과 마을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표 8> 온라인 수업 및 찾아가는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응답수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201	65.5%
마을교사가 학교를 찾아가는 수업	106	34.5%



응답	응답수	
목공	51	16.6%
제빵	55	17.9%
커피, 음료	25	8.1%
요리	51	16.6%
도예	44	14.3%
새활용	24	7.8%
금속공예	39	12.7%
K-POP 댄스	18	5.9%

응답	응답수	
매우만족	162	52.8%
만족	102	33.2%
보통	30	9.8%
부족	6	2%
매우부족	7	2.3%

<좋았던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사례>

·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과 김을 연결하여 수업하니까 훨씬 좋았다.
·마을학교에 가서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생소한 활동을 해보았다. 공예와 함께 과학 지식을 얻었다.
·줌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줌으로라도 해서 좋았다.
·직접 체험해 보고 나만의 것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간격을 유지하면서 했지만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고 대화도 하면서 만들어서 즐거웠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주제 선정과 자세한 설명까지 너무 좋았다.
·상세하게 활동 과정을 설명하고 여유있게 활동 시간을 준 것이 좋았다.
·재료를 다 보내주고 평소에 못해보는 활동이지만 다 만들었을 때 쾌감이 좋았다.
·실생활에 필요하고 쓸모있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봐서 좋았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사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화면이 가끔 안 보이고 튕길 때가 있었다.
·직접 대면해서 하지 못하는 것과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모르는 것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선생님이 우리말을 잘 듣지 못하는게 아쉬웠다.
·친구들이 시끄러울 때 잘 들리지 않았다.
·체험 내용이 좀 단순한 것이 아쉽다.

10월 19일 행복마을학교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의 중학교, 20여 개의 초등학교가 신청해 둔 상태이며 총 3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참여한 307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교사와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행복마을학교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는 86%로 나타났다. 대면 활동보다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만족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매우 만족' 항목에서 행복마을학교로 와서 마을교사와 만나 소통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의 경우(71.4%)보다 낮은 52.8%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면담 결과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의미와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행복마을

학교의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 온라인 수업의 한계로 인한 아쉬움도 드러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임을 감안하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행복마을학교 구성원들의 심경 변화 과정과 한 발을 내딛어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성장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였다.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부딪힌 점은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했지만 행복마을학교의 수업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한 배움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함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소의 교육관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 매체를 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부대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실험적으로 무엇이든 시작해 보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근무자A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힘든 점은 없었지만 댄스과목은 신체표현활동수업이라 꾸러미 만들기가 조금 힘이 들었다. 신체로 표현하는 동작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재료비로 책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점이 아쉬웠다. -마을교사 C

찾아가는 수업으로 행복마을학교의 가치가 앞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소외된 학생들에게까지도 질 좋은 경험이 전해지길 바란다. 학교 현장의 시설 부족과 교실 수업의 한계가 있고, 찾아갈 경우 마을(지원)교사의 출장비 지원, 안전(보험)관련 지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현재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온라인 수업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 노트북, 웹캠 등의 장비가 지원되면서 음성이나 화질이 좋아졌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지원교사와의 역할 분담과 수업 진행이 안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교사와의 콤비가 지속되길 바라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유선이 아닌 와이파이 연결 상황이 불안정하고 노트북 사양이 낮아서 버퍼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학교 현장 상황도 너무 다양하다. 마이크나 카메라 사양이나 준비 정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성향과 태도가 천차만별이다. 수업 전에 담임선생님께 수업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려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마을교사B

처음에는 하나의 화면으로만 교실 장면을 보니 학생 개개인의 체험 과정이나 모습을 볼 수 없어 답답했다. 두 번째부터는 학생의 폰으로 줌 접속하여 책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개별적인 지도도 가능해졌고, 결석한 학생은 교사가 꾸러미를 집으로 보내주고 줌으로 접속하여 교실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줌을 활용하는 수업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마을교사 E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느낄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선물같은 수업이 되기를 바라며 줌 수업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직접 수업을 하면 너무 많은 현장의 변수가 있어 당황하기도 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의도와 조금 다른 수업 운영을 하면서 좀더 많은 연구와 현장 선생님의 코칭과 협력이 요청되었다. 처음보다 개선되어 가고 있고 지원교사와도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져 스스로 수업을 하고 난 후의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마을교사 F

줌 수업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체험활동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웠다.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보인다. -지원교사A

요리 수업의 경우 교실 내 안전의 문제로 직접 요리를 할 수 없기에 김재기를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직접 해본 적 없는 경험이라 의미가 있었고 환경이나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 상당히 교육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기름 바르는 솔을 솔잎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친환경적 환경에서 생산한 김과 참기름을 준비하는 등 수업꾸러미는 정성스럽고 잘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3시간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체험의 종류가 많은 편이고 생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조금 더 학생 수준에 맞고, 다른 경로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체험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전문적 수업이 1회 체험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쉽다.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전문가가 될 기회를 열어주려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구암중 교사 A

처음에 줌을 활용하거나 학교로 찾아가서 진행하는 수업은 의사소통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2시간 수업으로 알고 준비해 갔는데 학교에서의 교육 시간은 3시간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당황하기도 하였다. 옆 교실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학교 교사가 줌 접속에 서툴러서 시작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들었다. 처음의 시행착오를 거쳐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활동안내문을 만들어 수업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마을교사 J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수업꾸러미 활용 수업이 좋았다.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 때문인지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은 수업이라 아쉬운 면이 있었다. 수업꾸러미를 학교 교사가 자신의 교과나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거나 같은 활동이 매년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변화와 다양성이 요구된다. -구암중 교사 B

7월에는 학생들이 찾아가서 수업을 하고, 지금은 찾아오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구암중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찾아오시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진행 전반에 대한 전달과 소통 면에서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 학교가 처음 시행하는 학교라 꾸러미 재료 소분이나 의사 전달, 일과 운영, 교실에서 교사가 할 역할 부분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잘 소통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주는 유동적인 수업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홍보에 좀더 주력하시면 좋겠다. -구암중 교사 C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지만 ZOOM을 통한 수업 전개가 매끄러웠다. -구암중 교사 D

일부 마을교사가 ZOOM을 활용하는 비대면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쉽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마을교사가 화상 강의를 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화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마을교육활동가 B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과 만나고자 했던 시도 자체가 좋았고 마을교사들의 의욕과 성취감이 두드러졌던 활동이기도 하다. 이 활동의 성과는,

첫째, 마을교사들이 시대나 상황에 단순히 적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고, 실제 수업으로 구현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수업 회차가 거듭될수록 현장 교사와 사전에 소통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마을교사 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업 운영이 점점 안정되고 매끄러워졌다.

셋째, 교실 밖 전문가와 함께하는 양질의 체험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결석생도 접속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원거리나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마을교사가 기획한 수업꾸러미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가능성을 찾은 활동이었지만 비대면 활동의 한계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첫째, 온라인 수업 환경과 기자재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비대면 자체가 마을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힘든 환경이므로 접속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이나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업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대면 활동에 최적화된 체험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연수와 시연을 통해 대다수의 마을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 수업 운영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한 마을교사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2. 마을교사 역량 강화 활동의 실태 및 성과와 한계

2019년까지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는 2월과 8월에 각 2~3일 간 실시되었고, 독서 및 토론 활동 위주의 마을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민 프로그램, 늘놀이터 프로그램, 토요 심화 및 사공프로젝트 등 활동 시간과 분야가 각기 다른 마을교사가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경험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복마을학교 대면 수업이 전면 중지되었던 3월부터 마을교사 공개수업, 마을교사 연수와 협의회, 수업꾸러미 시연 및 평가회 등 함께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10월까지 지속하며 마을교사와 지원교사는 더 자주 만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라는 인식과 수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가. 마을교사 공개수업

행복마을학교 센터와 마을교사는 대면 활동이 멈춘 3월부터 바로 SNS를 통해 소통하며 상황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센터에서는 비대면의 상황으로 수업이 멈춘 상황에서 마을교사 공개수업과 수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인원을 최소화하여 실제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한 후 공 개수업 협의회를 통해 마을교사의 수업 설계 의도와 수업 후의 소감을 들었고, 참관자들은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점 위주의 피드백을 하였다.

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본 연구진이 일반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시선으로 더하거나 빼면 좋을 수업 요소를 나누기도 하였지만, 행복마을학교가 강조하는 생태환경과 공동체적 가치와 결합하여 각 마을교사의 수업 철학과 의도를 경청하는 과정에서는 참관자들이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마을교사 상호간의 수업을 참관하며 각자의 수업을 돌아보거나 정보를 나누는 교류와 배움의 공유가 있었다. 이러한 공개수업을 통해 마을교사의 전문성이 검증되고 참여한 모두에게 상호 존중과 배움이 일어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표 9> 마을교사 공개수업 운영 일정표

순	날짜	수업 강좌	수업자	순	날짜	수업 강좌	수업자
1	2020.3.12. (목)	커피	배00, 최00	7	2020.3.20. (금)	목공	김00, 박00
2	2020.3.13. (금)	금속공예	정00, 강00	8	2020.3.23. (월)	제빵	정00, 김00
3	2020.3.16. (월)	댄스	이00, 백00	9	2020.3.24. (화)	PD체험	이00, 허00
4	2020.3.17. (화)	아트푸드	김00, 정00	10	2020.3.25. (수)	도예	홍00, 남00
5	2020.3.18. (수)	새활용	하00, 이00	11	2020.4.29. (수)	어린이일놀이터	하00,박00,천00
6	2020.3.19. (목)	요리	박00, 윤00	12	2020.4.29. (수)	느티나무학교	강00,임00,차00

코로나19를 막연하고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때 센터와 자유학교, 창원예술학교에 근무하는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심리적 부담이 컸다. 내 나름대로는 여러 경로로 교실 수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업 후 협의회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께 격려와 지지를 받은 부분이 더 많았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직접 지도해 본 경험으로 대해주는 아이디어가 수업을 설계하고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을교사 E

마을교사가 수업하는 공간에 학생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다. 공개수업을 하고 수업 후 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의도와 교육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실제 삶의 기술과 환경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에서는 이분들이 더 전문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센터근무자 C

나. 마을교사 연수 및 협의회 운영 실태 분석

3월부터 온라인 채팅으로 상호 협의하며 마을교사 서로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복꾸러미 제작 경험을 공유한 상태에서 2020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마을교사 1차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0. 행복마을학교 운영 계획 공유 및 미래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구암과 소계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수업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동체 활동과 교육과정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둔 채 소통하지만 함께 배우는 시간을 보내며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나눈 마을교사들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고도 진지하였다. 이틀간의 연수를 통해 마을교사들은 아이들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찾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행복마을학교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월에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로 행복마을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1차 행복꾸러미 나눔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행복마을학교형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표 10〉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1차 연수 일정표

일자	차시	시간	내용	담당 및 강사
4.28	등록	9:20~9:30	등록	연구년교사
	1	9:30~10:10	마음열기- 이름표 만들기	센터 파견교사
		10:10~10:20	개강식 및 연수 안내	센터 장학사
	2	10:10~11:00	나는 마을교사다	센터 파견교사
	3	11:10~12:10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교혁신과 장학사
	점심 식사			
	4	13:00~14:00	2020. 행복마을학교 운영 계획	센터장
	5~6	14:10~16:10	인간의 존엄성과 4차산업혁명 그리고 조직혁신(최동석, 온라인 강의 활용)	센터 교사 진행
	7	16:20~17:00	배움 나누기	센터 교사
4.29	1~3	9:30~11:30	미래교육과정을 만든다	센터 장학사
		11:30~12:10	교육행정의 이해, 청렴 교육	센터 주무관
	점심 식사			
	4	13:00~14:00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	센터장, 파견교사
	5	14:10~16:10	공개수업	어린이일놀이터,느티나무
	6	16:10~17:00	수업나누기	센터 교사
	7	17:00~17:40	안전교육(소방시설 안내 및 사용법 교육)	창원예술학교 주무관
	8	17:40~18:40	전체 반성 및 마무리	센터 교사

마을교사의 요청과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수업과 동영상 제작 방법 위주로 설계된 2차 마을교사 연수는 2020년 5월 19일부터 5월 20일, 5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다. 행복마을학교에서 추진하는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ICT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역량과 교과 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기르는 한편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도록 계획되었다. 동영상 제작 강의의 경우 복잡한 ICT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연수 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온라인 수업 도구 활용에 중점을 둔 연수 운영이 대체로 유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8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된 후 10월까지 대면 활동이 중지된 상

황에서 행복마을학교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찾아오는 형태는 전면 중단하고 수업꾸러미를 가지고 마을교사가 교실을 찾아가는 수업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마을교사가 원격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0월 19일 첫 원격수업 실시를 앞두고 행복마을학교에서는 10월 6일 ZOOM 활용 수업 연수, 10월 15일 ZOOM 활용 수업 시연 및 협의회를 통해 온라인 수업 역량을 기르고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하여 보완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11>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2차 연수 일정표

일자	차시	시간	내용	강사
5.19	1~2	9:00~11:20	영상 활용 수업 기획	외부 강사 1
	3	11:00~12:00	스토리보드 구성(수업지도안)	
	4	12:00~13:00	사진 영상 촬영의 이해	
	5~8	13:00~18:00	스마트폰 활용 영상 촬영 및 편집	외부 강사 1
5.20	1~4	9:00~13:00	효과적인 PPT 활용 및 제작	외부 강사 2
	5~6	13:00~15:00	ZOOM 활용법	외부 강사 3
	7~8	16:00~18:00	TEAMS 활용법	
5.28	1~4	9:00~12:00	밴드 LIVE 활용법	외부강사 4
	5~7	13:00~17:00	결과물(동영상, 지도안) 발표 및 공유	
	8	17:00~18:00	반성 및 성찰	센터 장학사

면담 결과 센터근무자와 마을교사 및 지원교사가 느낀 어려움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소통' 문제였고, 코로나19의 심각 정도에 따라 촉박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기에 구성원 모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데서 오는 피로감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수업꾸러미를 활용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나왔던 시간 동안 도전하고 성장해 왔음을 깨달으며 코로나19가 위기이면서도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기회임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마을교사의 수업 지원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좋았으나 시간적 여유와 SNS의 한계, 갑작스러운 협의회 일정으로 충분한 합의와 소통을 거치지 못하여 소통 과정에서 때로 오해가 발생했다. 우리 마을교사를 위해 센터에서도 힘들게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나 마을교사는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로 아이

다어를 끌어내고 수업꾸러미를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것이 힘들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 되어 치열한 과정을 거쳤고 우리도 센터도 모두 피로도가 컸으리라 본다. -마을교사 A

'협의회에서 필요성 인식을 공유'한 후 '마을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바로 실행'하는 과정이 좋았다. 각각의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 지금까지 왔다.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대처하다 보니 미리 계획하고 공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리라 이해하면서 굳이 아쉬움을 말하자면 조금은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구성원들이 변화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기만 하면 그것은 위기가 된다.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을학교의 가치와 철학,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수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행복마을학교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수업꾸러미를 가져와서 의도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협의회나 시연회, 평가협의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발전이 있었다. -마을교사 B

수업꾸러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동영상을 만들고 ZOOM 기능을 익히는 연수가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겁이 덜컥 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앱을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고 직접 편집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역량 강화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타지역 행복교육지구 견학이나 수업 체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마을교사 E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상황 변수들로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센터나 마을교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나 지역민에게 어떻게든 다가가려는 센터의 기획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며 좋았다고 평가한다. 줌 수업을 통한 온라인 수업은 개인적인 변화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대면은 더욱 세심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럴 때 현장 선생님의 코칭이 필요하다. 마을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을 잘 모른다. 교육과정을 분석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융합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바람이 있다 -마을교사 F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 스케줄이 고려되지 않는 연수나 협의회 일정, 센터와 마을교사, 지원교사 간 입장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소통이 조금 아쉬웠다. 수업꾸러미와 마을교사가 참여하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애써주시는 센터의 열의는 고마웠고 센터와 마을교사 모두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수업꾸러미를 만들고 줌 수업도 안정적으로 가능해진 지금이 왔다. -지원교사 A

연수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했다. 3월 공개수업 후에 교사협의회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공동 협의회, 수업꾸러미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고 질문하며 서로 피드백하던 시연회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지원교사에게도 연수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서 좋았고 지속적인 참여로 개인적으로도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원교사 B

4~5월 마을교사 연수에서 처음으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의 4차산업혁명 그리고 조직혁신이라는 장장 100여분 길이의 유튜브 강의를 준비했을 때 대면이 아니어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를 몸소 체험한 기회였다. 준비할 당시에는 내용도 어

렵고 길이도 짧지 않은데 대상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마을교사들이어서 모두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나 어려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동영상 강의를 텍스트 삼아 그 개념에 대해 모둠에서 자기가 이해한 바를 나누면서 서로 듣고 수정하고 전체 공유단계에서 또 듣고 수정하면서 개념을 다듬고 확장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서로가 공동체임을 느끼고 배웠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독서 토론도 해보고 싶다고 할 만큼 반응이 좋았다. 역시 배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이고 즐거움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센터 근무자C

본 연구진은 어느 해보다 빈번하고 밀도 있게 운영된 마을교사의 역량 강화 활동이 매우 의미 있게 보았다. 관찰과 면담을 바탕으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상황에서도 공개수업과 수업 협의회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일반 초·중등 교사도 함께 수업을 참관하여 협의회를 통해 피드백을 함으로써 수업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교사 간, 마을교사와 현장 교사 간에 서로 배움이 일어나 함께 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둘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마을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소통과 협업을 통한 활동이 가능하였다.

셋째, 마을교사의 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비대면 수업 매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ZOOM, TEAMS, 밴드 LIVE를 활용하는 연수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을교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년보다 많은 시간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모두가 동의하고 만족하는 대안은 찾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보완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 본다면,

첫째, 마을교사가 협의회나 연수 등 한정된 시간에만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및 지원교사의 연구 및 휴식 공간 또는 상시 소통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이 있다면 서로 간의 협업과 수업 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긴 시간을 들여 꾸준히 익혀야 하는 기술이나 실습이 요구되는 연수들은 일회성 연수를 지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수법이나 매체 활용 방법,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 학습자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마을교사 성장 교육과정이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되고, 필요시에 원격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 학습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3.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동의 운영 실태 및 성과와 한계

행복마을학교는 기관 주도형의 마을교육공동체에 속하지만 지역민들이 마을주도형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지역민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구암살림이라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직하여 학습공동체인 구암마루와 지역민 동아리인 구암두레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교사뿐만 아니라 자치배움터 학생들과 구암살림, 구암두레 회원들이 참여하여 2019년에는 5월 어린이날 행사와 10월의 마을잔치를 통하여 지역민과 직접 만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0년 대면 접촉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꾸러미를 배부하고 참여 인원을 축소하거나 분산하여 마을의 어린이와 어르신을 만나고 지역민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구암마루 아카데미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가. 행복꾸러미와 반찬 나눔 활동

행복마을학교 청소년자치위원회 학생 20여 명이 3월부터 ZOOM 화상회의로 세월호 6주기 추모 행사를 기획하였다. 드라이브 스루 혹은 워킹 스루 형태로 기념품을 배부할 때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민과 어린이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선택한 꾸러미와 마스크를 선물로 배부하자는데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에 직접 체험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 꾸러미를 마을교사와 지원교사가 제작해 보기로 하고 시제품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는 저 멀리, 문화는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험 꾸러미가 제작되어 마스크와 함께 배부되었고, 한편에서는 구암두레(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요리 동아리에서 반찬을 만들어 구암과 소계 지역 독거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나누고(2020.4.23.), 커피 동아리와 제빵 동아리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빵과 커피를 만들어 마산의료원에 전달하기도 하였다(2020.4.24.). 체험활동 꾸러미는 명칭을 행복꾸러미로 정하고 한 가족당 하나의 꾸러미를 선물하며, 제작 동영상을 QR코드로 연결하여 상세 과정을 보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완성하여 사진을 올리고 소감을 나누며 마을교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SNS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다.

〈표 12〉 행복꾸러미 목록

1차 행복꾸러미		2차 행복꾸러미	
강좌	꾸러미명	강좌	꾸러미명
요리	한솥밥 만들기	요리	째째 푸딩 만들기
제빵	밥솥 카스테라 만들기	제빵	밥솥촉촉 초코카스테라 만들기
업사이클링	실팔찌 만들기	아트푸드	빼빼로 만들기
늘놀이터	어린이날 편백 기념 식수	도예	도자기 비즈 액자 만들기
	화관 꾸미기		발포 세라믹 화분 만들기
업사이클링	캔 업사이클링 다육화분 만들기	지원교사	피규어 비누 만들기
커피	쿠앤크 프라프치노 만들기	업사이클링	해피베어 애착인형 만들기
도예	산가지 놀이하기	늘놀이터	어린이날 편백 기념 식수
금속공예	가야장신구 황동금팔찌 만들기		화관 꾸미기
목공	네모 인형이랑 학교 갈래요	업사이클링	캔 업사이클링 다육화분 만들기
댄스	리본 댄스, 가면 만들기	커피	쿠앤크 프라프치노 만들기
아트푸드	천연세탁세제 만들기	도예	산가지 놀이하기
		금속공예	클레이 브로치 만들기
		목공	선반 소품 만들기
		댄스	리본 댄스

1차 나눔의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며 마을교사와 센터에서는 꾸러미와 동영상 공유의 가능성에 힘입어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2차 나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6세~13세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가정의 달 행복꾸러미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행사는 1차 나눔과 신청 및 배부 방법을 달리하였다. 5월 3일부터 8일까지 신청 기간을 별도로 두고 6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시간에 맞추어 행복마을학교 배부처로 온 어린이나 가족에게 꾸러미를 배부하였다. 사전 신청할 때에 수령 희망 일자와 시간을 기입하여 수령하는 인원이 적절하게 분산되었으며, 마을교사가 제작한 꾸러미 15개 품목별 100개씩 제작하여 약 800명의 어린이에게 순조롭게 배부되었다. 1차 꾸러미 나눔 행사와 달리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신청하고 잊거나 개인 사정으로 수령을 하지 않고 중복 신청된 경우가 있어 준비한 물품이 다수 남기도 하였다. 어떤 품목은 일찌감치 매진되었는데, 특정 꾸러미는 많이 남기도 하여 수요가 적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평가회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10월에는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주도한 정 나눔 행복 나눔 행사가 있었다. 2019년 가을에는 마을주민을 초청하는 마을잔치를 열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차단되었기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구암동과 소계동 주민센터 및 통장협의회의 협조를 구하여 독거 주민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반찬나눔을 실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의료원, 지구대, 소방대, 주민센터 등의 공공 기관을 방문하여 구암두레 동아리에서 준비한 응원과 지지의 꾸러미를 나누었다.

아이고, 저 집 형편 어려운 건 어찌 알고 이리 왔을까. 좋은 일 합니다 -반찬나눔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

혼자 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많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는 형편도 좋지 않은 가정이 많다. 통장인 내가 봐도 형편이 딱한데 어중간하게 지원도 못 받는 사람을 많이 추천했다. 이런 걸 한 번만 하지말고 행복마을이 할 수 있으면 반찬이나 쌀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꾸준히 도와줬으면 좋겠다. -반찬나눔에 동행한 소계동 통장

구암 소계 지역 취약 계층 독거 노인께 반찬 나눔을 할 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사람이 그리워 반갑게 두 손을 꼭 잡으며 여기를 어찌 알고 왔느냐며 맞이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 -마을교육활동가 B

이 활동은 코로나19로 대면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행복마을학교가 지역민과 마을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꾸러미와 반찬 나눔으로 전환하여 지역 어린이와 마을주민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는 성과를 남겼다. 각자도생과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인 구암두레와 마을교육활동가가 주도하여 공동체적 돌봄을 실천한 사례는 주목할 만한다. 또한 구암동과 소계동 마을 사람들 중에 행복마을학교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민을 직접 만나 행복마을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교육적 의도가 반영된 꾸러미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마을교사가 학교 연계 및 지역민 수업이나 프로젝트 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업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민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교육하며 돌봄 기능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구암두레와 마을교육활동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가 있다. 꾸준한 홍보와 지역민 대상의 활동 속에서 마을교육활동가를 발굴하고 참여 동기를 북돋우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행복마을학교나 행복꾸러미에 대한 홍보가 제한적이어서 마을주민들 다수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복마을학교만의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되거나, 정보기기 활용이 힘든 지역민이나 소외된 노년층을 배려하는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나. 구암마루(마을교육공동체)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2019년까지 학습공동체로서 정기적인 만남으로 정례화 되어가던 구암마루아카데미도 코로나19로 6월까지 대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9년 구암마루 아카데미 참여자들이 2020년의 개강을 꾸준히 요청함에 따라 7월부터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 있는 구암·소계 등 지역 주민과 마을교사, 지원교사, 행복마을학교 관계자의 수강 신청을 받아 8월 4일 구암마루아카데미 첫 대면 특강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을 희망하였으며, 9월부터는 71세의 마을교육활동가가 직접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 활용 방법을 연구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표 13> 2020년 구암마루아카데미 운영 계획

일자	주제	강사
8월 4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대한민국 새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김누리(중앙대 교수)
9월 23일	우리마을 장인에게 종이공예를 배우자	설00(종이공예 작가)
10월 7일	아구할매에게 듣는 가을노래 이야기	김00 외 2명(교통방송)
10월 21일	구암마을에 오케스트라 뜨는 날	강00(오케스트라 단장)
10월 28일	우리도 패션모델-메이크업, 패션, 워킹 배우기	이00
11월 18일	우리가 만든 우리마을 교과서로 배우자	정00(경남대 교수) 이00(한들산들대표)
11월 25일	마을가수에게 트로트와 댄스를 배워 신나게 놀자	이00(마을 가수), 동0(노래코칭), 이00(마을교사)
12월 9일	구암마루 수료식 -난타, 공연, 마을노래자랑	사회자 장00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 60대 이상의 노년층까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상황이나 공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힘들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면 수업이 불가하여 비대면으로 ZOOM어플을 깔고 센터 선생님께 귀동냥과 독학으로 줌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구암마루 4회차 강의를 모두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장이 있었고 뿌듯하였다. 꾸준히 20명 정도의 마을주민이 대면 수업에 오거나 줌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무한 신뢰와 긍정으로 분위기가 좋다. 대면 수업에 오지 못하는 아기 엄마와 70세 이상의 노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줌으로 접속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공동체 속에서 자기 소신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마을교육활동가 B(71세)

현재는 마을주민의 즐거움인 흥미 위주의 일회성 체험이나 강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쉽다. 마을교육활동가의 역량을 키우는 아카데미라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나 인문학적 소양, 행복마을학교의 철학이나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인데 프로그램들이 한 회로 그치는 것도 아쉽다. 지금 하고 있는 패션이나 메이크업, 클래식 음악, 미래 교육 등 어떤 것이라도 최소 2~3차시 정도를 진행하고 참여해야 뭔가를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을교사 F

작년에 친구따라 왔다가 이것저것 배웠는데 재미있어서 올해도 왔다. 많이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해서 좋다. 교수 강연이나 음악은 좀 어려웠는데 메이크업은 재미있었다. 줌으로 닥종이 인형 만드는 것도 집에서 해봤는데 신기하더라. 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래 나와서 사람들 얼굴도 보고 하는 것이 더 좋다.-마을주민 주00

집사람은 트로트 같은 거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클래식 음악 설명해 주던 것이 좋았다. 맨 첫 시간에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미래교육도 괜찮았다. 집사람이 가자고 하는 데는 잘 따라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집 가까이에 있어서 좋다-마을주민 서00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운영된 구암마루아카데미의 성과는 첫째,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19년 지역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70대의 마을주민이 마을교육활동가가 되어 구암마루아카데미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였는데, 계획 단계에서 구암살림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였기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면 수업을 꺼리던 마을교사의 온라인 수업 참여 동기를 북돋웠다는 점이다. 대면이 불가능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닥종이 인형을 만드는 수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83세의 수강생도 온라인을 통해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마을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수강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비대면 운영의 성과와 함께 교육과정이나 참여 세대나 연령층의 한계는 앞으로 극복해 가야할 과제라고 본다. 구성원의 흥미와 관심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인문학적 소양, 독서와 토론, 생태 환경,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문해력, 주민 자치와 민주시민 교육 등 보다 다양한 주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마을학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40~50대 이상 지역민의 필요나 요구를 채우면서도 20~30대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 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행복마을학교 늘놀이터 프로그램은 천주산, 시민체육공원, 구암초·중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지역의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순한 보육의 돌봄이 아니라 일상이 놀이가 되고 예술이 되고 배움이 되는 활동으로 자연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놀이터를 지향한다. 7월부터 희망하는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을 모집하여 8월부터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까지 지연되다가 10월 13일부터 30분당 1명씩 시간과 인원을 분산하여 개별 맞춤 수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구암초등학교 1학년 7명, 2학년 6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등 총 17명을 대상으로 월 ~ 금요일(15:30~18:30)에 어린이일놀이터를 운영하고, 구암•소계지역 65세 이상 1명, 70세 이상 13명, 80세 이상 7명 등 어르신 21명을 대상으로 월, 화, 금요일(9:30~12:30) 오전에 느티나무학교를 운영하였다.

아이들과 바로 옆에 있는 시장보기로 물건을 고르는 법, 채소가게나 생선가게에서 계절을 접목하며 통합적 생존기술을 익히고, 꽃밭가꾸기, 일놀이, 먹놀이,예술놀이를 통해 균형있게 성장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기획했다. 먹놀이에 쓰는 재료도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하고 재료가 버려지는 것 없이 활용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적정기술을 익혀 기후위기 시대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하려는 의도가 놀이 속에 배어들게 하려고 노력한다.-마을교사 D

학교나 지역의 돌봄센터처럼 꼭 해야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몇 달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웠다. 아이들과의 만남과 놀이는 비대면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한 아이를 30분씩 만나서 충분히 깊이 함께 놀이하는 것으로 대면수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치 않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나 할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의 활동 공유를 통해 가정에서 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

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일놀이터의 어린이와 느티나무학교의 어르신이 함께 놀이하고 먹을 것을 만들고 서로 돌보는 것을 꿈꿔왔는데 올해 그 일부를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다. 매우 만족스럽고 이것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더 재미있게 시도해 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마을교사 E

아이를 어린이일놀이터에 보내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데서 이 활동의 힘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최선을 다해 노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부러울 정도로 보기 좋았습니다.-어린이일놀이터 학부모 박00

평생학습 활성화가 일어나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노인은 돌봄 및 배려의 대상자에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선배시민으로서 관계망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깨닫고 진짜 학교 밖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코로나19로 이제야 시작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린이일놀이터나 지역민동아리와 공공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다.-마을교사 G

늘놀이터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마사지를 하면서 환대받는 느낌을 드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1층 현관 입구에서 마치 검색대를 통과하듯이 불친절하게 맞이하는 다른 기관 선생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다. 늘놀이터를 어린이일놀이터와 공유하는데 어린이와 노인의 신체 특성과 사용 습관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서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입구에서부터 행복마을학교다웠으면 좋겠고, 어린이와 노인이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마을교사 H

지역민 대상 느티나무학교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담당하는 마을교사가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다. 마을교육에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고'라는 막연한 모토에서 느티나무학교는 돌봄 이상이었다. 지자체에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하면 좋겠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활동가가 더 양성되면 좋겠다. -센터 근무자A

어린이일놀이터와 느티나무학교 운영의 성과는 첫째,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면 안되는 어린 학생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참여해 본 어린이와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기에 전면 중지를 하기보다 다수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었다는 점이다. 둘째, 어린이일놀이터의 경우 한 어린이가 30분 활동을 할 때 함께 온 부모나 형제, 조부모가 같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우러지고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확장되는 의외의 성과가 있었다.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활동이고 환대와 존중을 실천하는 마을교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첫째,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비대면 활동에 제약이 크다. 수업꾸러미나 간식은 보낼 수 있지만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각 가정의 상황과 지원 정도는 어린이나 어르신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이상은 함께 어우러짐이고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통합인데 어린이 프로그램과 노년층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돌보는 경험이 제공되지 못한다. 시간적으로도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기에 오후 활동을 하고 어른들은 오전 활동에 참여하므로 실제 시간적으로 활동을 공유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셋째, 세대간 통합은 힘든데 늘놀이터 공간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데서 어려움이 보인다. 어린이와 어른의 신체적·정서적 특징에 맞는 교육 환경이나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활동 공간이 마련되거나 빌트인 구조 등 사용자 중심의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라. 지역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9년까지 행복마을학교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마을교육활동가를 발굴하며 지역민을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3월부터 전면 중단되었다가 7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연되었다가 10월 13일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지연이 되면서 지역민의 수강 포기가 많았고, 체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수업의 경우 온라인 수업은 수강생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수업꾸러미로는 지속적인 배움이 힘들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 적은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도예, 목공, 새활용, 댄스 등 4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총 40명의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다. 목공과 새활용, 댄스 강좌는 상호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5명 이하로 인원을 분산하여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기회가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매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다. 강좌의 질과 저렴한 교육비도 좋다. -강좌 수강 지역민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조립도면, 나무 재단도면을 그려서 재료를 준비하고 가공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 원하는 작업을 하기에 만족도도 아주 높고 자신이 만든 가구가 바로 생활에 사용되고,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보람있어 한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취미생활에 머물러 있는데 목공기술을 더 익혀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 참여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마을교사B

회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줌 수업은 학생들을 한 화면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것과 교사에게 집중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댄스수업은 영상이나 음악의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차가 생기고 좌우가 반전이 되는 것이 단점이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차안에서 폰을 접속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접속하여 가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마을교사C

이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고급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활용한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며 5인 미만의 소수강좌로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지역민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이 지원교사가 되거나 마을교육활동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을 가진 마을교사가 되거나 주변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행복마을학교를 중심으로 배움과 삶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이나 수요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한계도 있었다.

첫째, 실제 기술과 기능을 익힐 목적으로 신청했던 수강생들과 온라인 수업 경험이 없는 마을교사는 강좌 수강과 운영을 포기하였다. 고급 장비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과 집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꾸러미를 완성하는 것은 배움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원수 조정뿐만 아니라 대면 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지식이나 이론은 원격으로 진행하고 실제 실습은 행복마을학교 체험실에서 직접 매우는 대면과 비대면 블렌딩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수강생의 사전수요 조사에 의한 강좌 개설이라기보다는 마을교사의 전공과 관련되는 강좌를 열어놓은 후 신청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령의 필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 개설과 그에 맞는 마을교사나 전문가 매칭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매주 2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지만, 계절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원데이 클래스 운영이나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소집단과 청년 동아리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강좌를 다양하게 기획하여 다수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본다.

4.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의 실태 및 성과와 한계

가. 꿈 프로젝트 운영

꿈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인 1전문기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말 활동 프로그램이다. 재능과 적성에 따라 한 분야를 마을교사와 함께 장기적으로 작업하며 전문가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로, 바리스타반 8명, 청소년 밴드 7명, 그룹 댄스 8명, 새활용 8명, 생활도예 7명, 목공 8명, 아트푸드 8명, 생활코딩 8명이 참여하고 있다.

꿈 프로젝트나 사공프로젝트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전하고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는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센터 근무자 D

아이들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구를 디자인해서 직접 만든다. 가구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튼튼하게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비대면 상황에서도 적절한 재료와 공구만 공급된다면 온라인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 수강대상이 초등학생과 중등 저학년이 대부분이라 가구나 건축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학교나 지역에서 목공 동아리 활동을 하는 관심 많은 학생들이나 특성화고의 건축과 같은 전공과 직업적인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 -마을교사B

매주 토요일마다 연계성 수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안무의 완성도가 있으며 기본적인 동작부터 세부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동작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작 교정이 바로 이루어진다. 댄스 발표회를 기획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수업시간 부족이 가장 아쉽다.- 마을교사 C

손으로 직접 만들기를 좋아하고 공예나 디자인을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라 참여하는 태도가 좋고 성실해서 수업할 때 같이 많이 웃는다. 같은 활동을 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뿌듯해 하는 모습, 완전히 집중해서 몰입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 ZOOM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 걱정이 너무 컸는데 카메라 앞에서도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하는 것은 동일하였고 화면으로 각자가 만드는 과정이 보여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아쉬운 것은 바로 옆에 있을 때처럼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했던 점과 작업실에 있는 도구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공정과 전처리를 해서 재료를 보내주는데서 아쉬움이 크다. 작품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영상으로 보여만 주는 것은 장기적 교육과 체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대면수업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마을교사 D

학교연계나 단기 체험 경험 후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신청자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토요심화프로그램은 향후 고교학점제 진로 선택 교과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 행복마을학교에 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과 시간에 와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와 동일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꿈 프

로젝트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처럼 학점 이수는 안 되지만 자격증 취득이나 1년이라는 장기프로젝트로 자기의 관심 분야의 마을교사와 함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격증 학원과 달리 기능 훈련에 철학과 교과 지식까지 보완하면 전문기술교육이 될 수 있다.-센터 근무자C

배움을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심화 프로그램으로서 꾼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는 첫째, 학교 연계 진로체험으로 참여했다가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목표에 따라 전문가인 마을교사에게 장기적으로 전문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계기로 지원교사나 마을교사 되거나 직업인 또는 진학을 하는 등 다양한 진로로드맵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면 활동의 한계로 그만두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한 마을교사의 온라인 클래스 운영의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마을교사의 수업 지원이 행복마을학교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지역이 어디라도 가능해질 수 있기에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적용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단순히 기능의 숙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되고 다양한 또래가 협력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는데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넷째, 일회성 체험활동의 한계를 넘어 장기적인 목표와 충분한 배움의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마을교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인근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인근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제빵과 목공 수업의 교육과정이 정비되고 있다.

다섯째, 지금 배우는 기술이 학생들의 미래나 실생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역량과 연결될 수 있다. 목공교실에서 자신만의 가구를 디자인하여 직접 만들어보고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코딩을 배우고 고급 3D 프린터로 자신이 구상한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마을교사에게서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래와 함께하고 실패도 해 보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고와 관계 역량도 기르게 된다.

학생 참여도나 운영의 취지에 맞춰 한계점을 찾아본다면

첫째, 학교 연계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으로 학생이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수는 정보를 알고 있던 학부모나 주변 지인의 권유와 도움을 받아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지역의 학생들과 교사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나 인근 지역의 학생

들로 제한하는 등 학생 모집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실제 작업장의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 온라인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마을교사나 학생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온라인과 대면 활동을 병행한 올해의 성공 및 실패 사례가 코로나19 같은 질병이나 거리적 접근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데 반영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주말에 운영되는 장점을 살려 마을교사의 전공에 맞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학생들의 수요나 필요에 맞는 외부의 현장전문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운영의 취지에 잘 부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나. 사공 프로젝트(청소년 공공프로젝트) 운영

사공프로젝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변의 삶의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학교, 마을, 또래, 환경'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공공 프로젝트 활동이다. 현재 18개 팀, 90여 명의 학생들이 19명의 길잡이교사들과 함께 활동 중이다. 같은 팀 안에서도 각자 주제가 다른 경우가 많고 1인 1주제로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2019년에는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이 모두 모여 각자의 관심 영역에서 시작해서 조사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관심 분야로 세상을 이롭게 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결정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학생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할 수 없었다. 10여 명으로 그룹화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고 각자의 관심사를 도출한 후 관심사에 따라 다시 모여 활동 주제를 정하였다.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활동 후에 결과물을 만들고 보고서(A4 1~2매)와 발표 원고를 쓰고 성장·나눔 발표에 가족, 멘토 그리고 주요 기관의 담당자들을 초대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금지 조치로 7월에 프로젝트 팀이 꾸려져 대면활동을 시작하였으나 8월 중순 이후 잠정 중단 상태였다가 9월부터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사공프로젝트 팀은 다음과 같다.

<표14> 2020. 사공 프로젝트 활동 주제 및 내용

영역/주제	인원	내용	예상 결과물
반려동물	4	길고양이를 멋지게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보자!	(고양이 입장에서) 집사 사용 설명서
벽화	5	성호동주민센터 연락 후 벽화 작업 위치 섭외, 답사부터 벽화 기획회의부터 밑그림부터 완성 후 홍보까지 전 과정 경험하기	뉴스-기사,아나운서/마을/환경
역사	5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3.15와 부마 민주항쟁) 알리기	구암·소계 역사유적 보고서 3D프린터(사용법 강의)
새활용	4	쓸모를 잃은 물건에 가치 담아보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몰입하는 경험하기!	중고물품 수거, 분류, 보관, 진열 및 판매 네팔학교에 필요한 물품 조사(영어)
종이접기	4	종이접기로 함께 작은 세상을 만들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배운다.	매점사업계획서 종이접기
개별LTI	4	- 간호사나 동장, 법원공무원등 자기 관심분야 직업인과 만나 인터뷰하고 조사 연구 - 야구 글러브를 기부받아 돈이 없어서 야구 글러브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조사연구서
환경신문	5	소계시장이 친환경 전통시장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신문 기사로 작성해보기	신문(기사/웹툰) → 정책 제안
단편영화	6	스토리 개발, 시나리오 쓰기, 장소헌팅, 촬영 및 편집 등 제작 전 과정 경험	영상(기록 및 홍보)
소계시장 이야기	4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소계 시장 홍보 책자에 실어 많은 사람이 친근감을 가지고 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	소계시장 달인, 맛집의 숨겨진 이야기 발굴 구술사 프로젝트
벼룩시장 기획 및 운영	7	중고물품 모으기 위한 홍보, 모은 후 분류 및 보관, 판매를 위한 홍보, 판매수익금 활용 등	지혜의 바다 방문객들을 위한 맛집 지도
페이퍼 나노	4	페이퍼 나노로 만드는 소인국 세상을 만들어 세계 여행을 직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유명 건축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계시장 달인, 맛집의 숨겨진 이야기 발굴 구술사 프로젝트
고양이를 위한 공간	5	고양이를 위한 은신처, 수직 공간, 흥미로운 장난감 등이 있는 고양이를 위한 공간 만들기	마을에 필요한 가구 조사 및 만들기
전통시장	5	학교 공간 혁신에 필요한 소품을 조사하고 디자인부터 실제 제작 후 설치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기!	벼룩시장 진열 방법 연구 및 상자 만들기
캐릭터디자인	6	캐릭터 디자인 후 여러 가지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 전략 수립 등 디자인부터 홍보 및 판매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다.	캐릭터 디자인 후 상품 개발 행복마을학교 홍보물품 개발
제빵	7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레시피를 찾고 개발하여 빵과 과자를 만들어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기부활동	골목 빵집 살리기(제안서) - 골목 빵집 문제점 조사·연구(인터뷰) -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인기 메뉴 선정 - 재고 걱정 없는 빵집 메뉴 개발
댄스	7	다양한 장르의 댄스 안무 창작 및 찾아가는 공연이나 마을 축제, 경로당 등 많은 사람이 즐겁게 소통하는 댄스 공연 기획	주제별 안무 및 공연
밴드	9	하고 싶은 악기도, 장르도 다양한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곡을 소개하고 혼자 연주할 수 있고, 취향이 겹치는 곡을 단체곡 (3곡)으로 따로 합주한다.	공연
요리	9	인터넷 검색, 설문조사 등을 통해 메뉴 조사 후 메뉴 개발하기	소계시장 길거리음식 맛집 조사 및 정보 정리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에서 자발성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라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좋은 의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소외되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을 보았다.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이해, 자유롭게 스스로 하는 활동에 어떤 결과물이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담당자나 길잡이 교사의 수고도 줄이고 참여 학생들의 교육효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센터 근무자 D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나노페이퍼 프로젝트 길잡이 교사를 맡았는데 스스로도 매우 생소한 분야였지만 센터에서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을 잘 안내해 주셔서 스스로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다. 대면 프로젝트 활동으로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비대면으로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기도 했는데 소통 그 자체와 협력적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학교의 비대면 수업처럼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아쉬웠다. 활동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길잡이교사 A

프로젝트 수업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맥락을 알게 되었고, 삶 속에서나 또다른 교육의 자리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야기가 있는 시장이 주제이다.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인 만큼 질문지 만들고 인터뷰를 했던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시장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지만 아이들도 우리들의 프로젝트가 시장 상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을 할 때도 아이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요구 때문에 참여해서인지 태도나 자세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진행이나 이야기의 밀도가 높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 교감이 필요한 활동 초기와 팀방 및 인터뷰 활동은 대면이나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외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협의회 자리에서 동료 길잡이 교사와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프로젝트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은 좋았다. 오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소통하고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터뷰를 해보니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의 삶을 찾아보고 타인의 삶에 공감하면서 스스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 같다. 학교에서 각자의 관심사로 프로젝트를 경험하기 힘든데 이런 활동 경험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길잡이교사 B

스스로 찾는 배움을 중시하는 사공프로젝트의 교육적 가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코로나19나 성과발표회 등 현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고 힘든 부분이 있다. 회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길잡이교사 C

우리 지역 역사를 공부하는 프로젝트팀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힘들었지만 창동에 가서 팀원들과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던 것이 기억에 남고 활동을 계속하면서 흥미도 더 생기고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길잡이선생님이나 팀원들과 서로 물어보고 답도 잘해준다. 행복마을학교는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협동을 더 잘하게 되었다. -초6 박OO

중학생때 우연한 계기로 해보고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그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많이 늘었다. 우리 팀은 직접 빵과 과자를 만들어봐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 장소와 여러 기구를 활용하지 못하여 답답한 점이 많았지만 집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대체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었다. 각 팀이 오는 날과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인원수를 줄여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면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도 전체적인 운영 형식은 틀에 맞춘 느낌이 들어 조금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지식을 이해하고 기술을 배우는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2 조OO 고2 이OO

고양이들을 위한 생활공간 만들기 프로젝트팀의 길잡이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길고양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길고양이 집을 지어서 공원에 두는 활동을 구상했다가 실행 과정을 의논하다가 집고양이 놀이터 캣타워 건축으로 주제를 수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고양이의 행동습성, 기성품 캣타워의 문제점과 좋은점을 배우고 이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 재료 정하기, 건축설계하기, 목재 가공하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하고 있다. 작은 구성요소 하나하나까지 팀에서 의논하고, 참고자료를 찾아가며 결정하다보니 참여 의지가 높다. 모양만 예쁜 캣타워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등 고양이를 중심에 둔 건축을 공부하는데 내년에는 처음의 주제였던 길고양이의 복지에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길잡이 교사로 참여하는 마을교사 B

프로젝트를 빵을 만들거나 요리 실습 정도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로 시작하지만 프로젝트 주제, 목적, 개요 및 일정을 포함한 계획서를 쓰고 매회 활동일지를 쓰고 길잡이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찰하면서 기획 능력과 자기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브롤스타즈'를 주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속에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읽고 요약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듣고 말하기를 교실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프로젝트 학습이다. 사실 프로젝트 학습에서 동기유발은 단순 재미가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서 시작은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모두 소논문 쓰기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센터근무자C

행복마을학교가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자유로운 탐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된 사공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대면으로 계속되었다. 이 활동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청소년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로 학교에서 해볼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 문제해결, 협동 역량을 기르는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등 미래사회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둘째, 행복마을학교의 다른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달리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지속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참여 인원이 10명 이내이므로 자료를 찾거나 질문지 구성, 토의·토론 활동 등의 협력 활동은 충분히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절하여 대면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과 팀별 길잡이교사가 있고, 코로나19라는 위기와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00여 명의 학생만으로도 충분한 프로젝트 활동 기반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로 옆 소계 시장의 경제생태계와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성 등 학생들이 관심사에 맞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한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주제가 선정 되었다.

2020년 질적 성장을 도모했던 사공프로젝트였지만 코로나19의 변수로 대면 상황에서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이 확장되고 수렴되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기에 한계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학생들과 길잡이교사의 사전 교육과 충분한 협의의 과정

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과 온라인 소통의 한계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좋은 활동이지만 구암·소계 지역의 학생들의 참여가 적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소계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민을 만나는 프로젝트 주제가 직접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형식적인 배움에 그칠 우려가 있다.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각자의 삶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나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면 활동 시 자유롭게 토의하고 탐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별 모임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 행복마을학교에는 크고 작은 1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각종 장비와 도구가 갖춰져 있는 12개의 전공 체험실도 팀별 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이 프로젝트 주제와 맞지 않을 경우 안전하고도 창의적으로 협력적 팀 활동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Ⅴ. 미래교육으로서의 가능성 및 행복마을학교 발전 방안

1. 미래교육으로서의 가능성과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복마을학교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접촉을 멀리하며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병행하며 운영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마을학교가 미래교육 모델로서 보여주는 가능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마을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속에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주문형 교육과정, 학습자주도형 교육과정, 융복합이 가능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마을 교육과정 등의 미래형 교육과정이 구현되고 있다.

둘째, 미래 교육은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 시스템이 학교 밖은 물론 가상현실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복마을학교는 초등학교의 실과 수업,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진로선택 활동,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실 너머에서 실생활 기술 전문가인 마을교사와 기능을 익히기에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질 높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행복마을학교의 청소년 공공프로젝트인 사공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교육의 주요 학습과정으로 요구되는 관심과 흥미 중심의 그룹화된 학습공동체, 범교과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협력과 탐구에 기반을 둔 협동학습 전략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넷째, 행복마을학교의 청소년 진로심화 교육과정인 꿈 프로젝트는 직업 연계 역량 기반 평생교육, 교과서와 학교를 넘어서서 삶과 직업이 연계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개개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배움을 만들고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행복마을학교의 교육과정 속에는 비대면과 실재 세계를 초월하는 신기술로 미래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로 거론되는 비인간화와 인간의 자아정체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가 담겨 있다. 특히 '공동체, 학습자 중심, 협력과 협동, 소통, 지역 마을과의 협치, 세대 통합, 민주 자치, 생태환경'등 미래교육에서 요구되는 가치는 행복마을학교의 철학 및 가치와 일치하고 있다.

여섯째,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는 현장 교사와 협업하며 학교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운영하고 프로젝트 길잡이 교사로 참여함으로써, 지식으로 배운 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전문가로서 진로 설계를 촉진하고, 협력과 소통으로 서로 배우고 앎과 삶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와주는 학습코치이자 온라인학습관리자, 프로젝트 학습 조력자의 역할을 경험하며 미래교육을 견인할 교사의 역량을 체득하고 있다.

2. 행복마을학교 발전 방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미래형 배움터로서의 선구적 활동으로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남 행복마을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마을학교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경남 전역에 행복마을학교가 확장되고, 구암동에 위치한 경남 행복마을학교는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그에 맞는 인적 자원과 활동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장차 경남 지역 행복마을학교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경남 행복마을학교는 구암·소계동, 창원시, 경남 전역을 포괄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도 기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센터 근무자로는 부족하다. 감당해야 하는 지역이나 규모별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무진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이나 세대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개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과 토론이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미래 학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학습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시공의 제약이 없는 맞춤형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개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장비와 우수한 체험 설비가 갖추어진 작업장도 있어야 하지만 마을교사의 연구와 소통,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이나 지역민 동아리 활동, 독서나 공부, 운동 모임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시공의 한계를 넘어 여러 세대와 계층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 수업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스튜디오 룸을 기획할 수도 있다. 또한 5G 시대의 본격화와 가상현실이 구현되는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을 마을교사와 지역민이 상시적으로 학습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실이 행복마을학교에 선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의 대안으로서의 기대와 역할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마을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을교육활동가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센터 주도형 마을교육공동체의 단점으로 마을이나 지역주민의 의존성과 가시적이고 성과 위주의 전시 행정이 언급된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여 마을주민 다수로 구성된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주체가 되어 모두가 당면한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하며 지역을 살만한 생활 터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동기와 방법을 배울 수 없다면 행복마을학교는 마을과 지역에서 제대로 된 마을교육문화 공간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 마을교사와 지원교사, 지역민이 활동에 단순히 참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을

에서 한 사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행복마을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재의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사 내부에서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현재의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여러 세대와 계층의 배움과 필요에 능동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행복마을학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행복마을학교는 모든 세대와 계층을 통합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의 사랑방, 복지센터, 문화센터, 진로센터, 평생학습센터 역할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다. 중·장기 프로젝트로 깊이 있는 배움이 지원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화무쌍한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맞춤형 강좌도 수요자의 요구가 있다면 개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청년층 대상의 창업 경험이나 기회 제공, 중장년층 가장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화 되어야 진정한 평생학습터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

넷째,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 행복마을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독립적인 행복마을학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강생 관리와 공지사항 안내부터 행복마을학교 간의 정보 공유, 온라인 클래스가 운영될 수 있는 독립적 플랫폼 구축은 경남의 행복마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발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택(2017). 마을을 품은 학교공동체. 민들레.
- 강철(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철학 (143). 87-109.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2018). 행복을 위한 혁신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테크빌교육.
- 김경애 외(2018).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광섭(2017.5.21.). 마을학교 워크숍 실시.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1199.
- 김선미(2018).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1(1), 45-65.
- 김용련(2019). 마을교육 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도서출판 살림터.
- 김종선,이희수(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1(2). 73-107.
- 김주애(2018).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가능성 검토: 반월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정(2019).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살림터.
- 김태정(2020.5.16.). 코로나 이후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자. http://naver.me/xDYcYhU4.
- 김현섭,장슬기(2019). 미래형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수업디자인연구소.
- 김혜영 외(2019). 학교교육과정, 학교를 담다: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학교 교육과정. 1-114.
- 마크 프렌스키, 허성심 옮김(2019).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 한문화.
- 박경민(2016).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노원구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성원, 김유빈(2020).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 동향과 전망. 109. 35-67.
- 박영숙, 제롬 글렌(2017).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교보문고.
- 박윤애 외(2016).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박희진 외(2019). 미래교육 미래학교. 미디어숲.
- 서용선 외(2019).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탄생, 뿌리 그리고 나침반. 살림터.
- 양병찬(2014).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한국평생교육 2(1). 1-25.
- 윤종혁 외(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환, 박충훈, 김진덕(2020).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이슈&진단(418). 1-25.
- 이찬승(2016). 2030년 미래사회와 학교교육의 변화. 서울교육특별기획 224. 가을호.
- 장윤금(2020.6.14.). 클라우드 캠퍼스로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여성신문. http://naver.me/GvFd8GPs.
- 정건화(2020).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미래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지금서울교육 봄호. 6-7.
- 정병흠(2016).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문화역량 강화 방안-전통문화유산교육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30(4). 161-180.
- 제이슨 솅커(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디어숲.
- 조난심(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교육비평(39). 330-347.
- 조윤정(2017a). 미래학교 체제 연구: 학습자 주도성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조윤정(2017b). 학습생태계 확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의 개념과 실천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추창훈(2020). 로컬이 미래다. 에듀니티.

경남 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학생자치 활동을 중심으로-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수정 수남중학교

공동연구자 안현정 대중초등학교

김진희 신기초등학교

이민영 신주중학교

장은화 세종중학교

김규리 밀성초등학교

장희재 죽림초등학교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와 제한점 ····· 2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4. 연구 방법 ····· 4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사례 ····· 7
2. 선행연구 분석 ····· 11

Ⅲ. 연구 결과

1. 김해 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 12
   나. 심층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 15
2. 양산 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 20
   나. 심층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 21
3. 밀양 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 26
   나. 심층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 28
4. 고성 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 31
   나. 심층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 33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 36
2. 제언 ····· 37

[참고문헌] ····· **39**

[부록] ····· 40

- 표 목차 -

〈표 Ⅰ-1〉 연구절차에 따른 연구방법 ····· 4
〈표 Ⅰ-2〉 월별 연구계획 ····· 4
〈표 Ⅱ-1〉 2020년 고래 운영 프로그램 ····· 8
〈표 Ⅱ-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꿈이룸) 과정 ····· 9
〈표 Ⅱ-3〉 청소년 주도 연구(더혜윰) 과정 ····· 9
〈표 Ⅱ-4〉 방과 후 배움터(둥지)과정 ····· 9
〈표 Ⅱ-5〉 마을-학교 연계 배움 과정 ····· 9
〈표 Ⅲ-1〉 연도별 김해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 13
〈표 Ⅲ-2〉 연도별 양산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 20
〈표 Ⅲ-3〉 연도별 밀양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 27
〈표 Ⅲ-4〉 연도별 고성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 32

<연구요약>

경남 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학생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경제, 나아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학생 누구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미래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행복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창의적 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이 자연스레 길러질 수 있다.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원하는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생자치 활동이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구 마을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을 면밀히 살펴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경남 각 지역별 행복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 활동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수업관찰, 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학생자치 활동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남 행복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개 행복교육지구(김해, 양산, 밀양, 고성)를 선정하여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서 및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자치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 선진 사례 자료 수집 및 선진 지역 탐방(경기도 몽실 학교, 전북 완주 청소년 자치센터 '고래')을 통하여 경남 행복지구 학생중심 마을에 적용 가능한 특·장점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각 지구(김해, 밀양, 양산, 고성)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프로그램 중 학생자치에 의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활동들을 수업 관찰한 후 심층 분석(수업 관찰 기록지, 면담지, 설문지 등 활용)하여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김해행복교육지구 학생 자치활동 심층 사례분석

김해행복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학생자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복마을 학교 자치배움터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배움터 프로그램 중 가장 지속적이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봉사단 '사천사(사랑으로 천명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면담을 통하여 활동을 심층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사천사 활동을 통하여 미래역량의 하위 요소인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이 고르게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허용적 환경,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교사, 마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답변했다. 학생자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한 퍼실리테이션 연수 및 교육 컨텐츠 제공, 마을교사의 인력풀 확대, 차량 및 간식비 지원, 홍보 확대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답변하였다.

나. 양산행복교육지구 학생 자치활동 심층 사례분석

양산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청소년 자치배움터는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었다. 자치배움터를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선발·운영하여 홍보와 모집, 기획까지 학생들이 직접 의논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배움터 내 방송기자단, 밴드부, 청소년 자립카페, 우주여행 등으로 운영집단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구여행으로 우주여행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마을학교의 모든 활동이 잠정 중지되었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정착된 7~8월 이후부터 자치배움터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등학생 대상의 지구여행은 운영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소년 자치배움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업 관찰, 면담, 설문을 통하여 활동을 심층 분석하였다.

면담 및 설문 결과 학생들은 주변의 권유로 인해 자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학생이 과반수였고, 과거에 참여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자치배움터의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는 경우는 접근하기가 쉬우나 그 밖의 학생들은 자치배움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래 집단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기획하고 알리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치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전원이 자치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학생중심마을학교의 환경이 자치활동을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다수가 답변하였다.

또한, 자치활동에서 만난 학생들은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다가도 같은 주제와 목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 친해졌고 주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자치활동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인식 변화와 기능향상은 물론 미래 핵심역량 및 책임감과 자존감, 노력하는 방법 등의 긍정적 요인이 향상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 밀양행복교육지구 학생 자치활동 심층 사례분석

밀양행복교육지구에서는 2020년 올해 행복 마을학교가 구축 중에 있어 자치배움터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학생 주도적 자치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형 학교 밖 꿈마중 학교 활동 중 밀양 행복기자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면담을 통하여 활동을 심층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밀양 행복기자단 활동을 통하여 미래역량의 하위 요소인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이 고르게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허용적 환경,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교사, 마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답변했다. 애로점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 부족한 점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활동을 수행할 때 힘들다고 답했으며 멘토교사는 자료수집 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어려움을 애로점으로 답했다. 개선점으로는 동아리 활동 초반에 동아리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과 마을 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학생자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건으로 안정된 동아리 장소의 확보, 행복교육지구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홍보, 마을교사의 연수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답했다.

라. 고성행복교육지구 학생 자치활동 심층 사례분석

고성행복교육지구는 201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인 고성청소년센터가 올해 개관하였다. 따라서 2019년에 운영된 꿈펼침 동아리 활동 중 가장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된 Make 드론 동아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면담을 통하여 활동을 심층 분석하였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미래역량의 하위 요소인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이 고르게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으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예산 사용 절차의 복잡함 개선 등을 답변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남행복교육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김해, 양산, 밀양, 고성)을 살펴보고 그 중 학생자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심층 분석하

여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마을학교의 자치활동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래 집단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기획하고 알리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마을학교 운영 초기에는 동아리 자치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구축하여 학생자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운영 초기의 행복지구를 위해 자치배움터의 운영이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지구의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급별 연계성이 부족하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등과 중등의 자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마을교사의 숫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교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마을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숙련된 마을교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20학년도 각 지구별 학생자치 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의 여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된 곳과 오프라인으로 활동한 곳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운영 가능한 자치배움터 운영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생 자치활동 운영에 있어 마을교사와 학생 모두 다양한 애로 사항들이 있었다. 마을교사와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들을 수 있는 창구의 마련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 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학생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경제, 나아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학생 누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미래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그 중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역량 검사지에서 미래핵심역량을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미래핵심역량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체로서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종합적 능력”(임현정 외, 2011:85-86)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요소로 구성 된다: 1) 창의역량(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력), 2) 자기주도역량(성취동기, 자기관리능력, 자기 확신), 3) 사회역량(의사소통능력, 협동심, 사회적 책무성).

이러한 미래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의 성과를 확산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창의적 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이 자연스레 길러질 수 있다. 특히,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운영이 학생자치에 의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핵심역량 중 자기주도역량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학생중심 마을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을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에 의해 계획되어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학생자치 배움터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학생자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해지역의 학생 자치배움터, 양산의 청소년 자치배움터, 밀양의 꿈마중학교, 고성의 꿈펼침 동아리에서 학생 주도의 마을학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구 마을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을 면밀히 살펴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경남 각 지역별 행복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 활동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수업관찰, 면담 및 설문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학생자치 활동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와 제한점

가.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학생중심 마을학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지역별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현황은 어떠하며 각 지역별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학생중심 마을 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학생자치 운영의 현실적인 제약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학생중심 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수업 관찰, 면담, 설문 등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활동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 활동의 운영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 학생 자치활동이 이루어진 지구의 경우 수업 관찰을 진행하였으나 학생중심 마을학교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학생 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지구의 경우에는 2019년 이전의 대표적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한 마을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을 실시하여 심층 사례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각 지구별 심층 사례연구를 위한 도구가 동일하지 않은데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1) 본 연구는 경남 9개 행복지구 중 4개 행복교육지구 (4년 차 김해, 3년 차 양산과 밀양, 2년 차 고성)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한다.
2) 연구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나. 연구 내용

1) 경남 4개 행복교육지구(김해, 양산, 밀양, 고성) 운영 계획서 및 각 지구별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계획서 분석

2) 각 지구(김해, 밀양, 양산, 고성) 학생중심 마을 학교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학생 자치에 해당 되는 활동들을 추출

- 김해행복지구 – 김해/장유 행복마을학교 자치배움터 (청소년 마을 기자단, 청소년 봉사단, 청소년 문화기획단, 청소년 토론촉진단)

- 양산행복지구 – 양산 청소년 자치배움터(청소년 자치 위원회, 방송 기자단, 밴드부, 청소년 자립카페, 우.주.여.행: 우리가 직접 만들고, 주인공 되는, 여기는 양산, 행복마을학교)

- 밀양행복지구 – 꿈마중학교(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동아리)

- 고성행복지구 – 다양한 꿈펼침 자율 동아리 운영(Make 드론, 청소년 아지트 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 CEO: 고성고 창업동아리)

3) 각 지구(김해, 밀양, 양산, 고성)의 학생 자치활동들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을 수업 관찰한 후 심층 분석(수업관찰 기록지, 면담지, 설문지 등 활용)하여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4. 연구 방법

가. 연구 방법 개요

〈표 Ⅰ-1〉 연구절차에 따른 연구방법

행복교육지구별 학생 중심 마을학교 운영 현황 분석	▫ 경남 4개 행복교육지구(고성, 김해, 밀양, 양산) 운영 계획서 검토 ▫ 경남 4개 행복교육지구(고성, 김해, 밀양, 양산)의 학생중심 마을 학교 운영 계획서 분석을 통해 각 지구별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학생자치 활동 파악
선행연구·문헌 및 우수 사례 탐색	▫ 청소년 자치 배움터 또는 학생자치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 선진 사례 자료 수집 및 선진 지역 탐방(경기도 몽실 학교, 전북 완주 청소년 자치센터 '고래') ▫ 연계 가능성에 따른 특징 및 장점 추출
행복교육지구별 학생자치 활동 수업 관찰	▫ 경남 4개 행복교육지구(고성, 김해, 밀양, 양산)의 대표적인 학생자치 활동의 수업 관찰을 통해 각 지구별 학생자치 활동의 특징 및 장점 추출(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오프라인 자치활동이 이루어진 지구만 수업관찰 실시)
면담 및 설문	▫ 각 행복교육지구의 대표적인 학생자치 프로그램 참가 주체 및 관련자들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실시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 교사, 담당자, 각종 협의체 구성원 등 - 목적: 학생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청소년 자치활동 학생들과의 만남 및 토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 분석 및 실현 가능성 모색
피드백	▫ 행복지구별 협의회, 정책토론회 참석 ▫ 지역 전문가 및 교육 전문가 자문
일반화	▫ 수집한 자료의 실증적·해석적 연구를 통해 학생중심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나. 연구 진행 계획

〈표 Ⅰ-2〉 월별 연구계획

내용	202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운영 현황 분석							
수업 관찰							
선행자료 탐색							
면담 및 설문							
피드백							
일반화							
보고서 작성							

다. 심층 사례연구

1) 연구 대상

김해	양산	밀양	고성
김해 청소년 봉사단 (사천사)	양산 학생중심 마을학교 자치배움터	밀양 행복기자단	꿈 펼침 동아리 'Make 드론'

2) 사례 선정 이유

김해	양산	밀양	고성
학생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선정,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학생 중심 마을 학교 내 활성화된 자치 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되어 동아리 구성, 계획 및 운영

3) 자료수집

김해	양산	밀양	고성
· 사천사 봉사단 계획서(2017~2019) · 각종 프로젝트 기획 회의자료, 교사회의 자료(2017~2019) · 마을 교사 3명, 참여 학생 3명의 면담자료(2020)	· 청소년 자치 배움터 계획서 및 학생 커뮤니티자료(2018~2020), · 자치 배움터 담당 교사 4명, 학생 21명 면담 및 설문 자료(2020)	· 2019. 학교 밖 꿈 마중 학교 계획서, 활동 일지, 협의록, 프로젝트 산출물 · 멘토 3명, 참여 학생 5명 면담자료(2020)	· 2019. 동아리 활동 내용 보고서, 활동자료 · 멘토 1명, 참여 학생 1명 면담자료(2020)

4) 면담 질문 내용

가) 미래핵심역량에 관한 질문

· 창의적 역량에 관한 질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자기주도 역량에 관한 질문: 우리가 스스로 기획한 이벤트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사회적 역량에 관한 질문: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 중 기억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함께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고 배웠나요?

나)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질문

·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애로점 및 개선점에 관한 질문

· 애로점에 관한 질문: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선점에 관한 질문: 앞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 지속적 운영 요건에 관한 질문

· 마을교사의 지속적 참여 의지에 관한 질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단 마을교사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십니까? 만약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희망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질문: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가장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사례

본 연구팀은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를 방문하여 완주군 청소년들의 자치배움터 실태를 조사하고 『몽실학교 이야기』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몽실학교』(경기도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2020.3.31.)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몽실학교의 경우 경기도 소재의 5개의 몽실학교 중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의정부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

1) 미션(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마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청소년들이 협력과 공감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청소년들이 지식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2) 비전(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 안전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안 문화 공간
-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을 키우는 학교 밖 학교
-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배움이 있는 마을 도서관
- 청소년과 마을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허브

3) 운영 원칙

-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센터의 모델을 제시한다.
- 안전하고 자유로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 운영 전반에 대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한다.
-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한다.

4) 프로그램 운영(2020년 운영 계획)

총 165명이 참여할 수 있는 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주군 관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표 Ⅱ-1〉 2020년 고래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내용
일/상·상/담(談)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일(직업)과 상상(미래)에 대한 인식 전환	학습지도, 생활상담, 진로상담, 성교육 등
고래 아카데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사람책, 공정여행, 인문학, 마을탐방 등
무모한 공작단	지역과 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 증진, 의식주와 관련한 실질적인 창작 능력 함양	직조(의), 요리(식), 목공(주)
미지수 프로젝트	미디어를 통해 인간,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영화제작, 상영, 신문잡지 제작 등
요리COOK 조리COOK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 식생활 개선을 통한 균형 잡힌 성장 촉진	요리체험, 레시피 개발, 텃밭활동, 음식 나눔 등
삼삼오오 동아리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협동정신 및 시민의식 함양	문화기획, 체험, 여행, 공익활동 등
동네방네 해피투게더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방식의 소통확대, 집단/세대 간 이해 증진	문화강좌, 학부모교육, 문화장터, 영화제, 가족캠프, 국제교류, 전시/공연, 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등

나. 몽실학교(의정부)

1) 몽실 학교의 운영 체계

- 정의: 청소년 스스로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배움터
- 슬로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 비전: 스스로 서서 서로를 돕는 청소년

2) 운영 원리: 평등성, 민주성, 탁월성, 공공성, 자발성

3) 핵심 가치: 공동체, 책임감, 도전, 배려, 나눔

〈표 Ⅱ-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꿈이룸) 과정

영역	내용
마을 프로젝트	마을을 알고 바꾸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지향 학생주도 프로젝트
메이커 프로젝트	몽실학교 메이커 공간을 활용한 제작, 창업 프로젝트
영상·미디어 프로젝트	'미디어 경청'전문 인력과 연계한 영상미디어 진로 프로젝트
견우 프로젝트	겨울방학 동안 운영되는 단기 프로젝트
몽실 공동체 프로젝트	청소년 자치회, 마을교사회, 공동체 프로젝트 및 행사
청소년 자치회 운영	분임별 팀장 협의, 교육과정 기획·운영

〈표 Ⅱ-3〉 청소년 주도 연구(더혜윰)과정

영역	내용
주제 탐구 과정	앎과 삶을 연계해 사고하고 배우는 주제 중심 연구 과정
교과 심화 과정	교과와 연계한 깊이 있는 탐구 및 연구 과정
정책 연구 과정(정책마켓)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과정

〈표 Ⅱ-4〉 방과 후 배움터(둥지)과정

영역	내용
상상 프로젝트	협력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생 전문 프로젝트
상상 놀이터	놀이와 학습을 연계한 상상 놀이과정(방과 후 마을학교 돌봄프로그램)
다솜바리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배움터 프로그램

〈표 Ⅱ-5〉 마을-학교 연계 배움과정

영역	내용
마을-학교 연계 진로 체험학습	몽실학교 시설과 마을 인적자원을 연계한 진로 체험학습
대학생과 펼쳐가는 '몽실 꿈나래'	대학생과 진로를 함께 공감, 설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마을학습공동체(두리혜윰)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대상 오픈 강좌
마을-학교 공유 공간 운영	청소년, 교사, 지역주민을 위한 몽실학교 시설 개방

두 곳의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고래'는 미션, 비전,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몽실학교' 역시 정의, 슬로건, 비전, 운영 원리, 핵심 가치 등을 제시하여 각 교육공동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몽실학교'의 경우 서술 주체가 학생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고래'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어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의견 교류, 모니터링,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몽실학교의 경우 청소년이 전체 자치회의 대표를 맡으며 인적 구성도 청소년 구성이 훨씬 높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고래'는 고산의 쌀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버려진 공간이었던 100평대의 양곡 창고를 개조하여 개소하게 되었고 하교 후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전 고산청소년센터 김주영 센터장 인터뷰, 오마이뉴스 2018.6.28.) '몽실학교'는 약 1100여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대규모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공간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도 몽실학교 시설을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9월 약 1년 동안의 활용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이용 학생 수는 191명이다.(경기도 교육청 2017) 또한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초중고교 체험학습으로 연간 22개교 2,345 명의 학생들이 '몽실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홍제남 2019, 96)

넷째,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정서적 물리적 지원을 하며 교사가 학생들의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한다. '몽실학교'에서는 학년 초 학생주도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4주간)'미니 프로젝트 학교' 운영을 통해 처음 몽실학교에 온 청소년에게는 자발성 함양과 협업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고래'에서는 처음 온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신입학생들의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과 관심도를 알아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자율성과 주도성을 중시하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방향을 잡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먼저 학생 주도적 통합적 활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김재덕(2020)에 의하면 경기 꿈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으며 반복적인 토론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경기꿈의학교'의 자기주도형 미술통합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기획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학생들의 자발성 및 참여도의 차이에 따라 개인별 성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 단계와 학생들의 토론 과정에서 교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홍제남(2019)은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학습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주변의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성장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들 자신의 삶의 공간이 학습과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과 연계된 학습의 실현을 이루는데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렇다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성훈, 김사훈(2017)에 따르면 공교육의 혁신만으로는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우며 이러한 한계 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효과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경험이 어떻게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김해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김해행복교육지구에서는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 도전할 수 있는 배움터인 학생중심 마을학교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초등 3학년 학생부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근간을 만들고 자유학기제 및 학교 내 학생자치 동아리와 연계하여 중·고등학생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치의 근간에는 민주적 시민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의 장이 존재하여야 했기에 김해행복교육지구에서는 2018년부터 교사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김해토론촉진단을 조직하여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기틀을 다지는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학생이 직접 토론의 주체가 되는 장유 청소년 토론촉진단을 운영하며 학생중심 프로젝트 개발, 마을학교 아이들의 상호이해 촉진, 갈등 해결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고 있다.

김해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는 김해행복 마을학교와 장유학생중심 마을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김해행복마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 뿐 아니라 김해 구도심 지역 학생들의 거점 지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유학생중심 마을학교의 경우 계획된 신도시로써 학생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어 마을학교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김해 행복마을학교는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나비 날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학교 급별로 나비프로젝트, 날다프로젝트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비프로젝트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이며, 날다프로젝트는 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을 모두 품고 있다.

장유 행복마을 학교는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기린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초등 프로젝트, 중등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운영 대상은 김해 행복마을학교와 동일하다.

목적: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로서 상상하고 질문하며 스스로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과 연결된 교육 실현

- 대상: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방법
  -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
  - 초등 프로젝트와 청소년 프로젝트를 분리하여 운영
  - 초등은 주중 프로젝트, 청소년은 주말 진행 프로젝트로 나누어 운영
  - 홍보를 통해 마을학교 청소년 모집 및 워크숍 실시
  - 마을교사(교사, 지역민) 협의 및 워크숍 실시
  -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개성있게 운영
  - 김해행복마을학교 및 프로젝트별 다양한 지정 활동 장소에서 운영
- 특징
  - 분기별 수업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된 프로그램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학생 중심 기획 운영으로 분기별 유동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블렌디드 러닝 프로젝트를 신속히 적용 운영
  - 학교와 연계된 김해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연계 운영안내 책자 배부
  - 온라인 수업을 위한 마을교사 연수를 통해 마을교사 참여 확대
  - 온라인 프로젝트운영을 통하여 행복지구 마을학교 참여 학생 수가 대폭 증가

<표 Ⅲ-1> 연도별 김해 학생중심 마을 학교 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의	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지역민, 지역단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학생 중심의 방과 후 마을학교			
유형	주중형, 주말형, 방학형		온라인	
대상	관내 초3~6학년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내 초4~6학년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내 초4~6학년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내 초5~6학년 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내용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	음악, 공예, 마을기자단, 목공, 봉사, 문화	제과, 음료, 공예, 3D 프린트, 드론, 놀이,	• 코로나 긴급 사태 대응책 마련,

	(예: 뮤지컬, 신문, 방송, 발명, 환경 등)	기획단, 버스킹	음악, 보드게임, 다문화 이해, 하브루타	협의회 실시 • 마을 교사 온라인 교육 연수 • 학습 꾸러미 학교별 배부 • 온라인 프로젝트 1기~4기 • 지역민 연수실시 (마스크 만들기, 마스크 봉사 지원 등)
지원	강사, 물품, 장소 지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간	연중 지속 운영			
결과	• 왁자지껄 청소년 토론회 이후 프로그램 기획, 실시 계획 확립 • 주제별 프로젝트 진행 • 마을기자단, 봉사단, 문화기획단, 프로젝트 운영단 활동 • 청소년 교장 발탁	• 지속적 운영으로 인해 운영 안정화 • 참여 학생 수 증가 • 프로그램의 양과 질 개선 • 점차적으로 학생중심 마을학교 인지도 확대 • 학생자치 운영 능력 확대 • 프로그램 기획 토론회 실시	• 학생 자치성 확대 -청소년토론촉진단, 마을기자단 등 활성화 • 실질적 진로교육 실현 • 마을의 공동체성 실현을 위한 봉사단 운영 • 참여 학생 수 및 마을 교사 증가 • 마을 교사 워크숍 심화 과정 진행 • 학생이 원하는 마을교육 프로그램 기획, 토론회 실시	• 블렌디드 프로젝트 운영방식 적용 • 행복교육지구 참여 대상자의 폭 확대 • 학습 꾸러미 및 학교 내 교육과정연계방법 안내, 책자 제공을 통한 학교 온라인 수업 및 학교 밖 수업 활동 적극 지원 • 마을교사 온라인 수업 연수실시 • 행복마을학교 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 심층 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미래 핵심역량 함양

사천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이 함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주요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 봉사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많아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많은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되었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 겪으니 저희들은 '어떤 시설에서는 봉사하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탄생한 저희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돌봄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1)

- 〈창의〉 봉사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회의가 필요하였고 1~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가져 새로운 활동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한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노인정이나 보육시설 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 아이들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보육시설에 봉사를 가는 것 대신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2)

- 〈주도〉 첫 번째로는 경찰서와 소방서에 방문하여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관, 소방관분들께 응원 메세지와 간단한 간식들을 포장해서 드렸습니다. 응원 메세지는 봉사단 멤버들의 편지들도 있었지만 축제를 통해서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의 정성이 담긴 메시지들도 많이 포함했었습니다. 또한 군인 장교분들께 음료에 간단한 응원의 말을 적고 손편지와 영상편지를 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은 주말에도 일을 나가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차례 진행했었으며, 돌봄교실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같이 계획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에서 지원되지 않는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배지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했었습니다. 배지는 축제나 마을학교

행사에서 팔았으며, 축제에서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응원 편지를 적는 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약 185만원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축제 부스 운영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스를 운영했으며, 활동 중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임산부를 이해하는 체험, 다문화 아동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게임, 실 팔찌 만들기, 인형 만들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서 응원 메세지를 받고 배지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축제 스태프, 장애인 시설 청소, 농촌 봉사 활동, 유기견 봉사, 바자회 (기부), 요양 시설 봉사 등이 있었습니다. (학생1)

- 〈사회〉 혼자였다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봉사단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일상생활에서 주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봉사단을 하기 전에는 계획된 봉사활동에만 참여했었는데, 봉사단 참여 후 봉사의 정의와 개념을 알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들도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 함께 봉사를 진행하며 우리가 했던 작은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3)

- 〈사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봉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봉사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서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니 더 많은 경험이 되고 덕분에 제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꼭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1)

- 〈사회〉 봉사활동 자체를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끼리는 서로 의견을 맞추며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활동에 대한 길을 제시했다면 선생들은 묵묵히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에 재미있고 알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2)

2)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허용적 환경,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교사, 마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 답변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을 기획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으며 해당 아이디어를 낸 학생을 중심으로 팀을 이뤄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결성된 팀마다 교사가 들어가,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활동으로 옮길 수 있게 지도한 방식을 취하였기에 여러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을학교의 지원이 있었기에 규모가 큰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희귀병 환우 기부금 마련 뱃지를 제작할 당시, 뱃지를 우선적으로 마을학교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뱃지 제작 이후 마을학교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주셔서 봉사단 학생들이 자유롭게 뱃지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봉사단 학생 소속 학교 외에, 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마을교사1)

-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교육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마을학교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을교사2)

3) 애로점 및 개선점

애로점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답했고 마을교사들은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입장차이, 봉사 장소 섭외의 어려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 등을 애로 사항으로 답했다. 그리고 청소년 봉사단의 개선점으로는 봉사활동 시간의 유연성 확보, 홍보 확대,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가 확실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접 실시 등을 답변했다.

- 봉사활동 중에는 힘든 일이 없었지만,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입시생으로 매주

봉사에 참여한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 봉사활동이어서 극복할 수 있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3)

- 봉사활동을 학업과 운동을 병행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시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대회 준비를 주말에도 해야 해서 오전에 마을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학교 시험 기간도 자주 겹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학생2)

- 시험 기간 봉사활동을 할 때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다다르고 일정이 촉박한데 시험 기간도 2~3주 차이나서 활동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할 곳을 섭외할 때 봉사활동 할 곳은 많으나 서로 원하는 곳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소, 대상, 연령, 시간 등 모두를 맞춰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마을교사3)

- 활동을 기획할 때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 중·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적극적인 몇몇 학생 외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흐름에 맞춰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활동 이후에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마을교사1)

- 아이들의 참여가 저조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커다란 운동회를 준비했었는데 참여 인원이 15~16명밖에 되지 않아 제한된 상황에서 운동회를 할 수 밖에 없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미리 홍보하여 진행하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교사2)

- 봉사단 활동에 있어 시간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부터 봉사를 진행하게 되어 고등학교 3학년 때 토요자습으로 인해 봉사단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학생3)
- 첫 번째,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행복마을학교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신청 전에 질의응답이나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열심히 할 친구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활동할 의지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학생2)

- 멤버들을 모집할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동 도중에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봉사점수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 같이 활동해야 하는 봉사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학생1)

4) 지속적 운영을 위한 요건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들에 비해 마을교사들은 직장과 병행하기에는 매주 주말에 시간을 내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그리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는 차량 지원, 간식비 지원,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한 퍼실리테이션 연수 및 교육 컨텐츠 제공 등을 답변했다.

- 참여를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하고 활동했던 것들을 앞으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에 상응하기 위한 교사들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 신분일 때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교사1)
- 가끔 차가 지원되면 좋을 듯합니다. 단체로 움직이고, 또 가끔 크고 많은 물품들도 있습니다. 물품들과 단체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사4)
-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간식비를 좀 지급 해 줬으면 합니다. 수업이 10시부터 1시까지였는데 밥을 안 먹고 수업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배고파한 적이 많았습니다. (마을교사2)
- 봉사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교사1)

2. 양산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양산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자치 배움터'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 목적: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방법: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
- 특징
  - 두 가지 형태로 자치활동을 지원 (단위 동아리 중심의 자율 동아리 활동과 마을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 활동)
  - 청소년 자치 배움터는 현재 다섯 가지 영역(청소년 자치 위원회, 방송기자단, 밴드부, 청소년자립카페, 우주여행)으로 운영됨.

<표 Ⅲ-2> 연도별 양산학생중심 마을 학교 운영

	2018년	2019년	2020년
정의	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지역민, 지역단체가 협력하여 학생중심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치 배움터 운영		
유형	주말형, 방학형		
대상	중·고등학생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초5~6학년, 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내용	• 청소년 원탁 토론회: 다양한 학생 프로젝트 기획 및 면접 • 청소년 동아리: stArt 우리 마을 디자인하기, 음악, 사진, 마을방송, 글쓰기 • 청소년 자치 배움터: 학생주도 행복프로젝트	• 청소년 자치 배움터 활성화:우주여행 (우리가 직접 만들고 주인공이 되는 여기는 양산행복마을학교) • 청소년 마을축제 기획 • 청소년 문화행사 기획 • 타 지역 자치배움터와 네트워크활동 및 선진지 기행	• 청소년 자치 위원회: 우주여행 프로젝트 기획, 역량강화 캠프, 다모임 운영, 마을학교 꾸미기 등 • 방송 기자단: 마을학교 홍보 • 밴드부: 마을학교 홍보 행사 공연 • 청소년 자립카페: 마을학교 카페 운영 및 모금 행사 운영

		• 토론 역량 강화 연수 • 분과별 배움 활동 (가죽공예, 제과제빵)	• 우주여행: 학생주도 프로젝트운영 • 청소년 자치캠프 운영: 8월 중 방학 기간 활용 • 지구여행: 우주여행 예비과정으로 평화, 토론, 놀이, 생태, 목공, 동요, 공작 메이커 교육 실시 (코로나로 잠정 중단)
지원	강사, 물품, 장소 지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간	9월~12월 수시 운영	3월~12월	3월~12월
결과	• 청소년 원탁토론 참여 학생은 많았으나 지속적 참여 학생 수는 적음 •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동기부여가 필요함.	• 학생자치 역량 강화 연수실시 • 참여 학생 수 증가 (40여명) •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2학기 활동이 1학기와 연계되지 못함	• 자치 배움터 재정비 • 지역 및 학생 네트워크 강화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영 잠정 중단, 7월 이후 재개

나. 심층 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미래 핵심역량 함양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및 마을 교사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이 함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험, 변화, 기대 등을 미래 핵심역량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치활동에서 만난 학생들은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다가도 같은 주제와 목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 친해졌고, 주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치활동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인식 변화와 기능향상은 물론 미래 핵심역량 및 책임감과 자존감, 노력하는 방법 등의 긍정적 요인이 향상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 〈창의〉 지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제를 정하려 했을 때 떠오르지 않아서 막막했습

니다. 하지만 길잡이 선생님의 편안한 코칭 활동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서먹한 관계 속에서 길잡이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이 '우리 동네에 책방이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다. 학원 건물에 공공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싫었다. 대중교통 경로나 배차시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기관들의 다양한 시설이 어린이가 아니라 너무 어른 중심이다.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등 이었는데 이를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역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프로젝트를 협의 끝에 정해 '동네 책방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우주여행 학생1)

- 〈창의〉 자치캠프를 통해 배운 동영상 제작 수업을 이용해 마을 학교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치캠프 속 우리의 하루를 찍어 마을 영상을 찍었는데 다 함께하니 빠른 시간 안에 기획 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도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방송기자단 학생)

- 〈주도〉 방학 때 자립카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가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사소하지만 테이블 배치, 메뉴판 제작, 홍보, 판매 그리고 수익금을 통한 성금 기탁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한 일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니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여행 학생2)
- 〈주도〉 여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낮아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주여행 학생3)

- 〈주도〉 혼자 만들거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함께 시도해보고 난 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주여행 학생4)

- 〈사회〉 여섯 명의 친구들과 밴드합주를 하는데, 사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베이스를 맡았는데 초보여서 악보를 보는 것도 어렵고, 익히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저 때문에 합주 연습이 늦어지기도 하고 틀린 적도 많아서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연습을 먼저 통과하면 저랑 같이 맞춰서 연습도 도와주고, 악보 보는 것도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

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같이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에 저 혼자 하는 연주라면 이렇게 빨리 실력도 늘지 않았을 것이고, 베이스 혼자서는 별로 듣기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밴드부 학생)

- 〈사회〉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프로젝트 중심으로 만난 5명의 친구들이 길잡이 선생님의 친절한 안내로 함께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시간으로 정해졌던 활동을 1시간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만난 친구들과 벌써 헤어지나 싶어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에 만날 친구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우주여행 학생5)

- 〈사회〉 내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주여행 학생6)

- 〈사회〉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여행 학생7)

- 〈사회〉 조금 더 밝아지면서 발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여행 학생8)

2)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

자치배움터 참여 계기 면담을 통해 앞으로 자치배움터의 활동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변의 권유로 인해 자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학생이 과반수였고, 과거에 참여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자치배움터의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는 경우는 접근하기가 쉬우나 그 밖의 학생들은 자치배움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래 집단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기획하고 알리는 시도가 필요하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자치배움터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여 마을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교사1)

- 청소년 자치배움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행복교육지원센터로부터 수업을 의뢰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교사2)

- 엄마가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오빠가 자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추천해 주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1)

-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활동하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이번에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2)

- 포스터를 포고 자치배움터를 알게 되었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처음 홍보포스터를 봤을 때 이름이 우주여행이라 과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줄 알고 관심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프로그램이 재밌어 보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3)

- 방학 때 청소년자립카페 활동을 했었는데, 재미있었고 자치배움터에 흥미가 생겨서 2학기에 새로운 자치배움터 활동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4)

3) 애로점 및 개선점

애로점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실력 향상을 하기엔 다소 부족한 참여 시간과 교통의 제약을 꼽았고 마을교사들은 학생들 간의 수준차 및 운영 시간의 제약 등을 답변했다. 그리고 개선점으로는 자치활동 시간의 고정과 홍보 부족 등을 지적했다.

- 자치활동을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밴드부의 경우 연습 환경(수준별 난이도, 연습실 오픈 시간 등)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학생들을 오랜 시간 집중시키기가 다소 힘들었습니다. (마을교사)

- 한 번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해서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또 빈도가 부족하여 프로젝트 해결 흐름이 끊길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1)

- 집에서 자치 배움터까지 오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오가기가 힘듭니다. (학생2)

- 홍보가 부족해 이 활동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학생1)

- 밴드부 연습 환경(수준별 학습, 연습실 오픈 시간)을 융통성있게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학생2)

4) 지속적 운영을 위한 요건

자치배움터 활동의 당사자들이 자치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을 통해 자치배움터 활동의 유의미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본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사와 학생 전원이 자치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학생중심마을학교의 환경이 자치활동을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다수가 답변하였다. 자치활동을 통해 주변에 대한 관심,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역량, 사회역량 등의 미래역량이 길러진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 학생들이 직접 주변과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잠재력과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마을교사1)

- 양산은 문화 활동 지원은 많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권장하고 싶을 정도로 시설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에, 센터 차원에서의 자치활동 지원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사2)

- 근처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도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즐겁습니다. (학생1)

- 지금같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다른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이나 방학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자치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부지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2)

-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꼈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협동심도 생기고 리더십이나 책임감도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데 기자단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3)

- 우리 지역을 둘러보면서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내가 사는 곳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 주변의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학생4)

3. 밀양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밀양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인 밀양행복교육지구를 '밀양이 학교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 밀양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밀양 교육의 혁신을 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 마을학교는 꿈마중학교, 꿈마실학교 그리고 밀양행복마을학교 운영이 핵심이다. 밀양행복마을학교는 2020년 올해 구축을 하고 있고, 2018년 행복교육지구 시작과 함께 꿈마중학교와 꿈마실학교가 운영 중이다. 꿈마중학교는 학교 밖 꿈마중학교와 학교 내 꿈마중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꿈마실학교는 지역 위탁형 마을학교와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연구과제인 학생 중심 마을학교를 밀양교육지구에서는 꿈마중학교로 부르며 행복교육지구의 시작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 꿈마중학교란 한 바가지 물로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자신의 꿈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학생중심 마을학교를 의미한다.

- 목적: 지역 내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갈 수 있는 진로 탐색·설계의 기회 마련
- 대상: 관내 초·중·고 재학생
- 방법
  - 밀양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
  -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서 심사 및 컨퍼런스 과정을 거쳐 선정
  - 마을교사(교사, 지역민)를 배치하여 운영 지원
  - 주중형, 주말형, 방학형 등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 별도 운영 공간 확보(지자체 협력) / 밀양행복마을학교
- 특징
  - 밀양행복지구에서 학생 주도적 자치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자유형 학교 밖 꿈마중학교이며, 이는 학생 스스로 계획과 준비를 해서 운영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스스로 운영 및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이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행복교육지구에서는 물품 및 장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마을교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Ⅲ-3> 연도별 밀양학생중심 마을 학교 운영

	2018년	2019년	2020년
정의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취미, 여가, 봉사, 조사탐구 등을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스스로 펼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아리 활동
유형	체험, 조사탐구, 공연 실기	자유형, 선택형	학교 내, 학교 밖
대상	중· 고등학생 재학생 5인 이상	관내 초5~6학년,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내 초5~6학년 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내용	• 생활기술,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래밍, 생태, 과학, 조사탐구, 프로젝트 등	• 자유형: 봉사, 체험, 조사탐구, 공연 실기 등 팀별 스스로 기획 운영 • 선택형: 초등 – 드론, 공예, 보드게임, 독서토론회, 영화 인문학 중고등– 봉사단, 기자단, 문화기획단, 골목재생, 3D 프린팅(코딩)	• 문화예술, 인문학 독서 토론, 진로직업, 발명, 밀양사랑 인성교육, 소프트웨어교육, 환경생태 등
지원	강사, 물품, 장소 지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간	9월~12월 수시 운영 (10회 10시간 이상)	5월~11월 수시 운영 (10회 20시간 이상)	5월~12월 수시 운영 (10회 20시간 이상)
결과	• 마을 인적 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참여 대상 인원수에 큰 차이가 있음	•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꿈마중학교 운영 • 초등학생 참여 시작 • 참여 학생 수 증가(141명) – 초등학생은 선택형만 참여 • 학교 밖 꿈마중학교 내 17개 동아리 운영	• (구)청학서점을 기반으로 자치마을학교 공간 리모델링 • 지역밀착형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 운영 • 주제별 마을학교 운영 (미래 상상교실, 꼼지락 상상교실, 맛있는 상상교실, 해맑은 자치교실 등)

나. 심층 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미래 핵심역량 함양

밀양 행복기자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 기자단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의견을 통합해 가는 과정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멘토 선생님의 조언과 코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1)

- 〈창의〉 기사를 쓰면서 기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쓰는 방향의 가닥을 잡기 어려웠을 때 멘토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덕에 최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더니 영향성과 시의성을 가진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2)

- 〈주도〉 그림과 힘 있는 글로 이루어진 '만평' 프로젝트입니다. 주제는 그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들로 선정하였는데 약간의 반어법적 요소를 가미하여 만평을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수집 과정 중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저희의 사고도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3)

- 〈사회〉 '캔틸레버' 기사는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기사였습니다. 문화·예술 방면 기사도 써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자료수집은 쉬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직접 관련 건축물을 답사하고 자신만의 이해 방식을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를 간결하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기사화 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나'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라면 가능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4)

2)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

학생자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허용적 환경,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교사, 마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 답변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명의 멘토 선생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멘토 선생님께서는 기사단 활동이 처음인 저희들이 효과적인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다양한 과제를 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제 수행을 통해 기사 작성을 벗어나 앞으로 다양한 글을 쓰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1)
- 멘토 선생님의 조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후반에 이루어진 '청소년 생수'와 '나눔 마당'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동아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2)

3) 애로점 및 개선점

애로점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 부족한 점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활동을 수행할 때 힘들다고 답했으며, 멘토교사(마을교사)는 자료수집 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어려움을 애로점으로 답했다.

개선점으로는 동아리 활동 초반에 동아리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과 마을 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동아리 활동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매주 토, 일요일 중 2시간씩 동아리 시간을 정해놓고 활동하였지만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자주 동아리 시간이 바뀌었으며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여 2시간 정도 활용하기로 한 동아리실을 비워 주어야 할 때가 있어 활동 중에 장소를 옮기거나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실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생1)

- 기사라는 전문적인 글을 써 본적이 없어서 동아리 활동 초반에 무엇을 해야 될 지 몰라서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멘토 선생님께서 저희의 고민이나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도움을 주셔서 이후 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도움

이 될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여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생2)

- 자료 수집을 위한 답사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주도하는 역할이 아닌 지원하는 역할인 저희 교사들이 학생들의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전에 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또한 답사 시 교육청에서 답사지나 인터뷰자에게 공문상으로 협조 요청을 미리 해 주셨으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답사 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한 점이 교사로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멘토교사1)

- 성공적으로 운영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밀양 행복기자단 학생들은 많은 기사와 만평 등 결과물을 산출했습니다. 기사는 결국 신문에 실려야지만 기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쓴 글이라도 그 가치를 높이 사고 다양한 곳에 실리는 경험은 앞으로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지구에서 지역 신문, 관련 기관의 정기적 간행물, 기관 홈페이지 내 정보 마당 등에 저희 학생들의 기사를 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활동들도 동아리 활동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녹아들고 파급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행복교육지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멘토교사2)

4) 지속적 운영을 위한 요건

학생들과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의 요건으로 안정된 동아리 장소의 확보, 행복교육지구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홍보, 연수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답했다.

- 동아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이 보장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마을 교사로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분위기의 동아리 분위기상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마을 교사로서 자긍심이 줄어들게 되어 이후의 활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 교사도 저마다 본업을 가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멘토교사1)

- 저는 지역의 마을 교사로 활동하면서 자라나는 지역 학생들에게 저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마을 교사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숨겨진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진다면 활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마을 교사들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퇴직한 교원 및 전문직 자원들이 재능 기부 및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마을 교사가 지닌 시간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교사2)

- 물품 지원비 말고도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실제적 경비(식비,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지원 폭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사 및 체험 등 야외로 나가는 동아리 활동 운영에는 필요한 경비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경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차량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 이동 시 마을 교사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학생의 안전과 마을 교사의 책임 문제도 야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연수 및 교육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 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마을 교사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멘토교사3)

4. 고성행복교육지구

가.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현황

학생들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자기주도적인 문화의 뿌리가 안착되기 위해 고성행복교육지구에서는 꿈펼침 동아리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자발적 동기와 목적이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을 만들어 내며 동아리활동의 지속적 운영이 행복교육지구운영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꿈펼침 동아리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목적: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재학생
- 방법
  -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
  -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서 심사 및 컨퍼런스 과정을 거쳐 선정
  - 마을교사(교사, 지역민)를 배치하여 운영 지원
- 특징
  - 2019년까지는 마을학교 및 동아리 멘토교사(마을교사 및 각 학교교사)위주로 꿈펼침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20년 청소년센터 온을 개관하면서 보다 다양한 학생 중심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고성행복교육지구의 꿈펼침 동아리는 학생들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이어가며 마을과 지역사회에 환류로 이어지기도 함. (창업동아리에서 특산물 판매 및 수익금 기탁)
  - 연말에 약 1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성과 나눔을 위한 장을 운영하여 동아리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기회로 활용.

<표 Ⅲ-4> 연도별 고성학생중심 마을 학교 운영

	2019년	2020년
정의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 동아리를 신청하여 조직 운영하며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유형	주중형, 주말형, 방학형	
대상	초·중·고 재학생	
내용	• 단위학교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자치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하는 꿈펼침 동아리 운영 • 고성항공고등학교- 특수용접기능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지역주민 농기계 수리 등 대민 봉사활동 실시 • 창업동아리-고성 특산물 개발 판매 후 장학금 및 불우이웃 돕기 사업실시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가 많아 정상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지원	강사 장소 및 예산지원	
시간	5월 이후 수시 운영	3월~12월
결과	• 다양한 동아리의 성과발표회 및 부스를 통해 동아리 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함 • 동아리 활동 결과가 마을과 지역사회까지 환원될 수 있게 됨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성과발표회 및 동아리 활동 공유의 장(부스 운영) 운영 예정 (11.21.) • 고성청소년센터 온 개관 (2020.9.19.)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도모함

나. 심층 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미래 핵심역량 함양

Make 드론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이 함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주요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의〉 혼자 어떤 재료로 만들지 생각한 뒤 물건을 사고, 그 재료를 활용해 드론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제작 과정에 실수가 있어 비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고성에 있는 드론 센터의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그분께 하루 특별 수업을 받고 드론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배운 뒤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학생)

- 〈주도〉 저는 주로 동아리 활동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산을 쓰고, 장소를 섭외하고 안전을 위해 지켜보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계획 단계에서 활동 내용도 스스로 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멘토교사)

- 〈주도〉 멘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아리의 활동 방향을 직접 정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하면서 처음 하는 일들이라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정해 나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학생)

- 〈사회〉 학생들의 구성이 다양했지만 대표 학생이 동아리를 잘 이끌고 서로 배려를 하며 활동을 해서인지 특별한 갈등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한 명의 학생이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동아리에 추가로 가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원 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다양한 의견을 내며 토의를 하더니 이미 많은 탐구 활동을 통해 원리, 방법 등을 익혔는데 추가로 인원이 충원되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충원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멘토교사)

- 〈사회〉 저희 드론 동아리의 목표는 드론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글라이드를 설계해서 날리는 활동을 할 때 제 글라이드가 잘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서 힘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 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을 함께 찾아 주고 알려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드론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모두 협력해서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학생)

2) 애로점 및 개선점

- 학생이 이끌어 가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려면 대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여러 절차를 걸쳐 구입을 해야 하니 번거롭고 정작 필요할 때 즉시 사지 못하여 불편했습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야 해서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드론의 특성상 실내에서 연습을 해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모래가 부품 사이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주변에 실내 공간을 빌리는 것이 힘들어서 동광초 도서관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학교가 여는 날 만 활동을 할 수 있어 그 점이 힘들었습니다. (학생)

- 학교 동아리가 아닌데도 예산이 내가 속한 학교로 배부가 되었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본교 교장 선생님의 결재가 매번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멘토교사)

- 이 꿈펼침 동아리 활동은 학교 내부의 동아리가 아니라 고성군, 마을 차원의 동아리이기에 지역의 도서관이나 다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은 문의를 하였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하는 수 없이 학생들은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토요 방과 후 학교가 있는 동안만 학교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역 차원에서 공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토요일 오전에 한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교사)

- 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물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품의-결재-구입의 절차가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물품 구입 및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하여 예산을 학교로 배부하기보다 학생이나 멘토 교사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교사)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을 기르는데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남행복교육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 (김해, 양산, 밀양, 고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자치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다양한 활동 중 학생자치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경남행복교육지구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현황을 학생자치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마을학교의 자치활동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마을학교 운영 초기에는 동아리 자치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구축하여 학생자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급별 연계성이 부족하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마을교사의 숫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2020학년도 각 지구별 학생자치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의 여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된 곳과 오프라인으로 활동한 곳이 공존하였다.

여섯째, 학생 자치활동 운영에 있어 마을교사와 학생 모두 다양한 애로 사항들이 있었다.

2. 제언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의 사례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며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남 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래 집단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기획하고 알리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운영 초기의 행복지구를 위해 자치배움터의 운영이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지구의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산행복교육지구의 자치배움터는 지속적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구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과 중등의 자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치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도 자치 경험이 필요하다. 양산행복지구의 초등 자치프로젝트인 지구여행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마을교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마을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숙련된 마을교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면담 분석 결과 마을교사들의 연수나 교육컨텐츠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마을교사를 교육하는 것은 학생중심 마을학교의 질적 향상에 절대적 요건이다. 하지만 교육받은 교사가 사교육으로 옮겨가지 않고 마을학교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상황에서도 운영 가능한 자치배움터 운영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올해처럼 오프라인 자치배움터의 운영이 잠정 보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치배움터의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자치배움터의 운영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구에서는 이를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마을교사와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들을 수 있는 창구의 마련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공통적으로 자치활동 시간의 제약 문제, 간식비와 차량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 문제를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다. 정기적으로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빠르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2020). 몽실학교.
-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남교육
- 경남도교육청 교육정책 연구보고서(2018). 행복마을 학교 안착을 위한 한국내외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 김성훈, 김사훈(2017).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의 교육경험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7권 8호, 677~685쪽, 전체 9쪽.
- 김용련(2017). 마을교육공동체 전국 교원 연수 자료.
- 김재덕(2020). 경기꿈의학교의 자기주도적 통합교육 사례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 김정현(2019).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주영(오마이뉴스. 2018. 6.28.)
- 김태정(2019).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서출판 살림터.
- 꿈이룸출판 팀(2018). 몽실학교 이야기. 에듀니티.
- 박지환(2018). 지역사회의 혁신학교 만들기와 과정중심교육에 대한 성찰.
- 백종필(2018). 함께하는 보물섬, 성장하는 마을. 마을학교 가는 길.
- 완주군청소년센터'고래'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wanjucfc
- 의정부 몽실학교 홈페이지 https://tong.goe.go.kr/tong/ds/0101.do?m=0101&um=01
- 이상철외(2018). 학교마을공동체 개념 정립과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과제 탐색.
- 조영국(2018). 배움의 날개짓 '나비 날다'. 마을학교 가는 길.
- 홍제남(2019).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배움터의 학습과 실천에 대한 의미 분석.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홍지오(2017). 마을교육공동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실천방안 탐색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부 록

1. 학생 면담지

※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 ○○○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 ○○○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획한 이벤트나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3. ○○○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 중 기억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함께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고 배웠나요?

5. ○○○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활동을 하면서 나의 변화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문장, 키워드, 이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7.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힘들었던 경험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9. 앞으로 ○○○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만약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희망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 마을교사 면담지

※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 ○○○ 마을교사로 활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 ○○○에서 학생들 스스로 기획한 이벤트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고, 이 활동이 아이들의 성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3. ○○○활동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 마을교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 마을교사로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 운영에 가장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7.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 마을교사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십니까? 만약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희망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사례연구

-2020학년도 초등 행복학교 중간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장병학 구봉초등학교

공동연구자 오미정 신명초등학교

신용호 송진초등학교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와 제한점 ····· 2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학교의 이해 ····· 2
2.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 4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 4
2. 연구 방법 ····· 5
3. 연구 절차 ····· 8

Ⅳ. 연구 결과

1.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분석 ····· 8
   가.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공통점 분석 ····· 25
   나.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운영 연차별 분석 ····· 30
   다.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운영 규모별 분석 ····· 36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43
2. 행복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제언 ····· 45

[참고문헌] ····· 48

- 표 목차 -

〈표 1〉 연구 대상학교 ····· 5
〈표 2〉 행복학교 평가표 ····· 7
〈표 3〉 연구 순서 ····· 8
〈표 4-1〉 2.1 민주적 학교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9
〈표 4-2〉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10
〈표 4-3〉 2.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12
〈표 4-4〉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14
〈표 4-5〉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16
〈표 4-6〉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17
〈표 4-7〉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19
〈표 4-8〉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20
〈표 4-9〉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21
〈표 4-10〉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23
〈표 4-11〉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 24
〈표 5-1〉 2.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영역 공통점 ····· 26
〈표 5-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 공통점 ····· 27
〈표 5-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영역 ····· 28
〈표 5-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영역 ····· 29
〈표 6-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영역 연차별 분석 ····· 30
〈표 6-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연차별 분석 ····· 32
〈표 6-3〉 4.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연차별 분석 ····· 33
〈표 6-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연차별 분석 ····· 35
〈표 7-1〉 2.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교 규모별 분석 ····· 37
〈표 7-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 39
〈표 7-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학교 규모별 분석 ····· 41

- 그림 목차 -

[그림 1] 2020. 경상남도 행복학교 현황 ····· 3

<연구요약>

행복학교의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사례연구
-2020학년도 초등 행복학교 중간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은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환경이 사회 각 분야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교육현장 역시 '온라인 개학'이라는 역사 이래 처음 겪는 상황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낯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모습이라고 꿈꿔왔던 온라인수업, 원격수업. 현실에서는 준비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능숙한 활용기술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특히 교사는 개인 역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는 개인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큰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미래교육은 지금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미래 교육의 방향을 행복학교라는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정책 '행복학교 1.0' 4년을 보내고 새롭게 '행복학교 2.0'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배움과 협력으로 성찰·소통·공감을 이끌어내어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 학교를 표방하고 있는 경남형 혁신학교가 '행복학교'다. 도내 모든 학교를 행복학교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행복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즉, 행복학교 일반화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로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교육현장의 다양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분석하여 행

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행복학교를 시작하려는 학교에 도움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행복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복학교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함으로써 행복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 대상 학교별 2019학년도 학교 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여 핵심 주제별 강점, 약점, 개선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학교 전체 16개 학교의 평가영역별 공통점과 연차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여 행복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3.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행복학교 평가표

16개 행복학교의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평가표를 다르게 해석하여 제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3영역과 4영역에서 학습 더딤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라든지 2영역과 5영역에서 제시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평가 내용이 중복되어 기술한 예가 그것이다. 이는 행복학교 평가 영역과 지표 경계가 모호하고 위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경계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 행복학교 자체평가 16개 학교 분석 결론

첫째,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학교들은 교직원 다모임, 교사 다모임, 학생 다모임, 학부모 다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철학 공유가 되지 않고 회의 운영 방법이 미숙하여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공교육을 위해 학생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구와 도전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적정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발달과정이 반영된 학년 연계 학교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환경이 반영된 학교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하다. 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학교교육과정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자원 발굴과 행·재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셋째, 수업 연구와 나눔을 통해 교사 성장을 돕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성장을 중심에 둔 학생 평가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습 더딤 학생들이 발견되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업무지원팀 운영은 교사 연구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업무지원팀 운영 취지를 공유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지원팀 운영여부, 업무 분장 영역(교육과정 업무와 행·재정 업무 구분) 갈등, 업무량 균형 분배, 업무 간소화, 업무지원팀 내 소통 부재, 업무지원팀 유지 문제 제기 등이 그것이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 계획, 운영, 평가에 학부모의 참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학부모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학부모회, 학부모 동아리, 각종 연수, 교육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 학부모회 운영진 내 갈등, 학부모회 운영진과 비참여 학부모 사이 갈등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행복학교 철학 공유 부재로 학교와 학부모의 학력관 차이가 발생하고 가정과 연계된 학생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 행복학교 운영 연차별 분석 결론

첫째, 2년차 운영 학교에서 운영 특징은 행복학교 4대 추진과제(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4대 평가 영역이다.)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간 철학 이해 정도가 다르고 학교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행복학교 철학 공유가 행복학교 운영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움중심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예도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여러 형태의 모임에서 논의된 교육활동이 학급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학생 성장을 긴 안목에서 보는 학년간 연계된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에서 미흡한 모습이 발견된다. 학부모의 행복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이 교육활동 학부모 참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6년차 운영 학교에서는 행복학교 철학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사이의 행복학교 철학과 이해 깊이의 차이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변화가 학교교육과정 변화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년차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수업 연구와 나눔 문화, 학생 성장과 배움을 돕기 위한 평가 체제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학력관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립하는 과정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4) 행복학교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결론

행복학교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결론의 큰 특징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업무지원팀 운영 영역에서 나타난다. 먼저 민주적인 회의문화영역에서 소규모 학교는 적은 수로 인해 구성원 전체 의견 소통과 구성원 간의 연대가 강하다. 반면,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는 다수의 인원으로 인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른 참여 기회의 노출 빈도가 구성원이 적을수록 높다. 이는 구성원의 민주시민 의식 변화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규모와 중규모 학교에서는 업무 과중과 업무지원팀 유지에 한계를 보인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업무지원팀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교무실, 행정실, 담임교사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나. 행복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제언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청(교육

지원청), 지자체로 구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1) 학교의 역할

첫째, 교육공동체 내부의 지속적인 행복학교 철학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업무지원팀, 일반교사, 행정실 등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업무 적정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 실천, 평가뿐만 아니라 연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소통과 공감, 배려의 공동체 연대 형성을 위한 놀이연수 등 다양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효율적인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회의 촉진자 육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홈페이지, 밴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에 대한 교사들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차원에서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유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해마다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학력관과 부모 역할 교육 등 학부모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녀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교육청(교육지원청) 역할

첫째, 행복학교 전입 교사 대상 연수, '다양한 회의 방법', '회의 촉진자 육성', '행복학교 철학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 단위의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 및 철학 공유를 위해 행복학교네트워크와 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학부모회 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대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업무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역 자원(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체계적인 정리,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복학교 평가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별로 평가 영역과 지표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학교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영역과 지표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행복학교 평가표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3) 지자체의 역할

학생이 성장하여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 학생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지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행복학교 내부의 시선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연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복학교와 시작하려는 학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행복학교의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사례연구
-2020학년도 초등 행복학교 중간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은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환경이 사회 각 분야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교육 현장 역시 '온라인 개학'이라는 역사 이래 처음 겪는 상황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낯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모습이라고 꿈꿔왔던 온라인수업, 원격수업. 현실에서는 준비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능숙한 활용기술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특히 교사는 개인 역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는 개인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큰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미래교육은 지금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 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미래 교육의 방향을 행복학교라는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정책 '행복학교 1.0' 4년을 보내고 새롭게 '행복학교 2.0'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배움과 협력으로 성찰·소통·공감을 이끌어내어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 학교를 표방하고 있는 경남형 혁신학교가 바로 '행복학교'다. 도내 모든 학교를 행복학교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행복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즉, 행복학교 일반화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로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교육 현장의 다양함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분석하여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행복학교를 시작하려는 학교에 도움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문제와 제한점

가.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행복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평가사례를 통해 행복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학교 교육공동체 중에서 교직원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경상남도 전체 행복학교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연구 대상 학교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타당도에 제한이 있다. 넷째, 사례 분석 간 비교군이 형성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모든 학교평가 영역에 대한 자료가 제시 되지 않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학교의 이해

2015년부터 실시된 경남형 혁신학교로 '교육공동체가 배움·협력으로 성찰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행복학교는 교육의 근본과 학교가 갖추어야 할 참모습을 추구한다. 학생은 희망을 꿈꾸며 미래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고, 올바른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곳이다. 교사

는 교육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키우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는 교육 주체로 성장하고 참여하여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간다.

행복학교의 실천 모습은 학교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맥락을 녹여내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 기본 철학과 함께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또한, 각 운영 학교에서는 행복학교 철학을 기본으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학교 기본 철학과 추진 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 기본 철학을 민주성, 미래성, 공공성, 지역성으로 제시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20)

2020년 경상남도 행복학교 현황은 행복나눔학교 7곳. 행복학교 77곳, 행복맞이학교 61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2020. 경상남도 행복학교 현황

2.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학교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평가의 절차 및 공개)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2014년부터 기존 교육청 주도의 평가방식에서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성장중심 학교평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성찰 중심 학교평가, 학교교육활동과 함께하는 학교평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는 관련 법령에 제시된 '학교평가'의 방식중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학교구성원이 평가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학교자체평가'의 개념에 학교 구성원의 주도성을 추가하고 강조한 것으로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교육활동 개선을 통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남형 학교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0-2, 7).

경남의 모든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학교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추진 계획을 세운 후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학교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공시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행복학교 2015년(5개교) 2019년(11개교) 지정 초등학교다. 연구대상 학교들은 각각 행복학교 2년차와 6년차에 해당하는 학교로 2019년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중간평가 대상학교로 상시 컨설팅 및 지도 방문이

용이하고 행복학교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표 1> 연구 대상학교

지역	학교명	학급수	행복학교 운영 년차
창원	B1초	4학급	2년차
창원	H1초	54학급	
진주	C1초	16학급	
진주	C2초	37학급	
통영	I1초	12학급	
밀양	S1초	6학급	
밀양	S2초	6학급	
고성	H2초	7학급	
남해	I2초	6학급	
하동	H3초	24학급	
합천	Y1초	7학급	
창원	Y2초	11학급	6년차
진주	S3초	7학급	
사천	S4초	6학급	
양산	P1초	29학급	
고성	D1초	6학급	

2. 연구방법

학교별 학교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평가 계획, 실행, 결과 공유 및 피드백의 전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평가가 그 학교의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활동을 어떻게 반성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학교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학교구성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목적과 맞는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란 연구대상에 대해 관찰, 인터뷰 등을 통해 진술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실험이 이론에 대한 검증과 발전 근거가 되는 것처럼 사회과학의 관찰이 이론과 검증의 발전재료이며, 사례연구는 그 재료 중 하나이다. 단기간 또는 한 두 번 방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연구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1자료

를 모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신뢰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다. 현실로 관찰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자연적·수동적 관찰이 중요하다(임도빈, 2009).

로버트 스테이크(R.E.Stake)에 따르면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구성주의와 "지식과 그 해석의 가치는 독특성과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상대주의가 사례연구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한다.

사례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예술분야나 사회복지학, 젠더학, (특수)교육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경영학 중 경영전략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경영전략 분야의 특성 때문이다. 방법론 연구자들은 사례연구를 질적연구 방법론들과 혼용하거나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질적인 접근이 아니어도 혼합연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례연구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사례를 두드러지게 배경 속에서 "왜(why)",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특정활동이나 실천, 프로그램의 사후에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확실한 변인 통제가 없는 경우 사례연구는 더욱 중요해진다.

사례연구의 종류는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의 수, 연구난이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가 1개면 단일사례연구(single-case study)이고 두 개 이상이면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study)라 한다. 그리고 특정한 사례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본질적 사례연구(essential case study)가 있다. 또, 본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더 큰 대상을 연구하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도 있다. 연구난이도에 따라서 단순히 사례에 대한 서술만 하는 서술적사례연구와 서술에 더해 이론적 해석까지 붙이는 해석적 사례연구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술과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도 내리는 평가적 사례연구도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개입 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비개입 데이터란 "연구대상 현장의 일상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획득하는 연구자료"를 이르는 말이다. 비개입 데이터 종류는 사진, 내부문서, 외적 통신문, 사적 교신 등이다. 비개입 데이터는 인간 활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집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atch, 2008). 연구대상 학교의 학교평가 계획서와 보고서, 설문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행복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는 201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행복학교 영역으로 자체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행복학교에서는 평가영역을 운영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사용하는 평가표는 〈표2〉와 같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제2015-3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24092,2015.11.05.)

〈표 2〉 행복학교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요소
1. 학교혁신 여건	1.1 인적 여건	1.1.1 학생 및 교원 기본 현황[정량] 1.1.2 교육 및 행정 지원 직원 현황[정량]
	1.2 물적 여건	1.2.1 학교회계 예결산 현황[정량] 1.2.2 교육 활동 지원시설 현황[정량]
	1.3 지역 여건	1.3.1 학교 소재지 지리적 여건[정성] 1.3.2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여건[정성]
2.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2.1.1 개인의 인권, 개성, 소수의견·입장 존중 2.1.2 민주적 의사결정 및 학내 활동 참여의 자발성 2.1.3 관리자의 교육 리더십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2.2.1 교육중심 업무분장 및 운영 2.2.2 교원의 업무 경감
	2.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3.1 학생자치활동 참여 수준 및 참여 기회의 개방성 2.3.2 학교운영에 학생 의견 수용 및 반영
3. 배움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3.1.1 학교 특성(색)을 반영한 교육과정계획 3.1.2 상황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계획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3.2.1 배움 중심의 교수방법 개선 3.2.2 배움 중심의 수업 만들기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3.3.1 학생 성장 지표에 의거한 평가 3.3.2 학생 성장 평가의 결과 활용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4.1.1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노력 4.1.2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육 개선 실적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4.2.1 교수-학습중심의 교사조직 운영을 통한 실천적 노력 4.2.2 수업개방과 성찰적 실천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5.1.1 안전하고 배려있는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 5.1.2 소통과 존중의 공동체 문화 조성
	5.2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운영	5.2.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 강화 5.2.2 학부모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5.3.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운영 5.3.2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 운영

위 평가지표를 토대로 연구 대상 학교별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여 핵심 주제별 강점, 약점, 개선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절차

가. 행복학교의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자료 수집

1) 대상 : 초등 2년차 행복학교(10교), 초등 6년차 행복학교(6교)

2) 시기 : 2020년 5월 ~ 10월

<표 3> 연구 순서

순	시기	추진 내용	비고
1	4~10월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	10월	자료 분석 및 연구자료 정리	
3	11월	연구자료 발표	

3) 연구 자료

2019학년도 학교평가 계획서(사전준비, 계획 수립), 실행, 결과,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결과 자료

나. 행복학교의 학교주도적 학교평가에 대한 분석

1)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에 대한 사례간 및 사례내 분석

2)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Ⅳ. 연구 결과

1.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분석

2019학년도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를 강점, 약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표 4-1〉 2.1 민주적 학교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행복학교 철학 공유, 관리자 리더십, 학부모 신뢰/만족	행복학교 철학 공유 확산, 학교교육과정 변화 인식, 학부모 참여	행복학교운영 방법, 학부모/교사 인식개선 철학 공유
C2초	행복학교 경험 교사 다수, 신설학교 혁신 수월	행복학교 철학 공유	교육공동체 협의회, 행복학교 철학 연수
I1초	소통/협의 바탕 업무 처리	저경력 교사 주체성 부족	교직 경력별 의견수렴 시스템
S2초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관리자의 리더십, 정기 협의회 운영	회의규칙 제정 , 교육공동체 비전 제정	
I2초	구성원 의견수렴 노력	구성원의 협의 참여	회의규칙, 회의방식 다양화, 협의시간 확보
S1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학부모회 자발적 운영 부족	공동체 협의규칙 제정과 운영
H2초	민주적 회의문화 조성, 새로움에 도전하는 학교	교육행정직의 행복학교 이해도	교직원대상 행복학교 연수
H3초	행복학교 철학 공유, 공동체와 지역사회 기반 학교운영	학부모 다모임 자발성 부족, 모임 장소 부재	학부모회 운영, 소수 의견 수렴 방법
B1초	교직원 다모임 정례화, 관리자민주적리더십	다양한 의견 수렴방법, 의사표현 의지	의견수렴 방법 마련, 교육공동체 참여방법
H1초	민주적 의사결정 의지, 책임감/협력적 참여	협의문화 부정적 인식과 피로감, 자발성	회의진행자 양성,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Y1초	민주적인 회의문화, 소통하는 학교문화	의사결정 과정 시간과 노력이 큼	전체 교직원 소통 기회 확대
Y2초	다양한 다모임과 의사결정 효율화, 행복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학생회 선거공약이 전교생 적용임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학생 다모임 운영형태 정비, 교사 토의토론 연수, 학생회 선거공약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발표
S3초	다모임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자발성 고양	교직원 다모임 정기운영, 교직원 변화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연수, 업무간소화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S4초	민주적인 관리자, 소통하는 회의 문화, 교육활동 반성으로 학생성장/발달 향상의지	다양한 의견 취합 필요(표현하지 않는 소수)	참여기반 민주적 회의 방법
P1초	다모임운영 정착, 행복학교 철학 공유, 구성원간 원활한 의견수렴	의사결정에 관리자 의견이 강조	교사에게 관리자 권한위임
D1초	함께 만드는 학교 비전과 실천, 학교교육과정 평가 반영, 학부모 소통 방법 다양화	맞벌이 가정 증가로 교육활동 관심 저조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는 다양한 소통창구

<표 4-2>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교육과정중심 학교운영, 구성원간 협업/분업	업무연계(중복예산), 교육과정외 업무 과중	업무처리 과정 이해, 업무간 소화
C2초	교육과정중심 학교운영	담임교사 업무경감	학년별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업무분장회의(교무행정)
I1초	교무지원팀 효율적 운영	원활한 업무처리	저경력교사 업무능력 향상
S2초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업무지원팀 운영, 1학년 교사 업무 미배정	업무지원팀 부담	
I2초	업무지원팀 운영, 교육과정 중심 운영	소규모 학교 업무 경감 한계. 업무지원팀 유지	업무분장 회의, 교육과정 집중 워크숍
S1초	업무지원팀 운영, 담임교사 수업활동 집중	업무 담당교사 행정업무 간 소화	교육과정 중심 업무분장체제 지속 방안
H2초	업무지원팀 운영, 협조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 자율성	합의되지 않은 전시성 행사 운영, 위임전결규정 수정	학교교육과정 활용 및 연계성 강화, 교무행정원 업무적정화 필요
H3초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에 부합된 교육활동 계획/운영, 교무행정원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을 위한 체계적 조직화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계획 연말 수립, 교육과정중심 학교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B1초	업무지원팀 운영	교육과정 연구 의지 부족	철학 공유 및 전문적학습 공동체 활성화
H1초	업무전담팀 운영, 교사, 학부모, 학생 수업 만족도 높음	업무지원팀 업무 부담, 교육과정운영팀 수업부담, 교육공동체 사이 소통 부족	업무전담팀 구성 재고
Y1초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문화, 교무행정원의 교육 활동 지원	교무행정원의 업무 증가	학년말 차년도 업무연간계획 수립으로 업무경감
Y2초	공동체 의사결정으로 창의적 교육과정편성 · 운영, 교무행정원과 유기적 관계 및 업무 협조, 여러 형태의 다모임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철학과 학부모 요구 충돌, 교직원 소통하는 문화 지속 방안, 업무전담팀 내 소통 시간 과 고른 업무 분장	구성원 변화에도 연계된 논의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기록,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복학교 업무담당자 순환, 업무 분장 회의
S3초	교무행정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전담팀 운영,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교무행정원 결원시 공백, 업무분장 이해 부족	교무행정 업무 적정화, 업무경감 토론과 합의, 위임전결 규정,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세부기준
S4초	교육활동 연대 문화 정착,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개선 열의	소규모 학교 업무전담팀 구성 한계	행사 축소, 교육과정 단순화, 공감 문화로 행정업무 부담 축소
P1초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교무행정원 지원의 업무경감. 학년교육과정 중심 업무배정	부장교사 권한위임 부족, 행정전담팀과 행정실 업무경계가 모호	부장교사 권한위임, 문서 생산 줄이기,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체계 만들기, 업무지원팀과 행정실 업무 정선
D1초	학생과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협업, 교직원 다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교육활동 정리	교육행정원의 인사이동으로 협력체계 변화 가능성	행정실과 업무 조정,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조직화, 교무행정원의 인사이동 체계화

〈표 4-3〉 2.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2.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학생자치 교사 이해도 높음	학생주도 자치회 운영능력, 학생전용공간	교사대상 학생자치연수, 학생자치 공간마련
C2초	학생대표역량, 시간 확보, 교사 지지	방과후 학생활동 시간 부족, 다모임 참여도, 과밀인원	학생대표 다모임 시간 확보, 회의 연습, 규모 조정과 장소 마련
I1초	학생 주도 학생자치 운영(동아리 등)	수용 범위 초과한 학생 요구사항	다모임 규칙 정립 및 사후 반성
S2초	자치활동 (자치회, 자율동아리), 학교운영에 동참하는 학생회	학생자치회 참여 대상 확대 필요	
I2초	다모임 정기운영, 담당 교사와 연계, 학생회 주도 놀이활동 추진	회의참여/진행 미숙, 회의주제 흥미도	학생 주도 다모임 운영, 자치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S1초	학생들 민주시민 의식 함양	자치활동 예산 활용방안 부족	학생 주도 다모임 운영 필요
H2초	무학년제 다모임으로 친밀감 소속감 높음, 학생자치회와 동아리활동 연계, 학교교육활동에 학생 주도적으로 참여	스포츠 활동에 집중	전교생 다모임 횟수 확대, 학생주도 다모임 운영 방안 마련, 다모임 결과 교육과정 반영
H3초	학생자치회 주축 행사 운영, 학생 의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학생자치활동 담당 전문팀 필요, 자율과 책임을 병행 지도하는 문제	책임과 자율이 균형 잡힌 자치활동 계획/구성, 학생자율동아리/교사운영동아리 이중운영
B1초	다모임 정례화	자치프로그램 다양화, 학생주도성	자치활동 참여기회 확대
H1초	학생자치활동 관련 다양한 기회 제공, 학생만족도 높음	전체 학생 다모임 실현불가능, 학생 다모임 운영 경험이 적음	교육과정 내 학생 자치활동 시간 확보, 학생 자치에 대한 교사 연수 및 훈련

2.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Y1초	학교 행사에 학생 의견 반영 등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전교생 다모임 공간 부족, 고학년 중심 자치 활동에 저학년의 소극적 참여 발생	운동회/학예회를 학생 주축 운영 기회 확대 저학년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Y2초	학생 다모임 운영으로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형성, 학생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 교외 캠페인 진행	동아리 중심 운영으로 활동이 동아리 영역을 넘어서지 못함	실천 지속을 위해 실천 다모임 개선방안, 학생들 협의 공간 마련
S3초	학생자치 주도 활동(행사)이 학교 문화로 정착	학생들의 생활주변 문제의식 낮음, 학생자치활동 운영 미숙	학생자치회 교육/훈련,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주인의식 함양
S4초	학생 주도 다모임과 동아리 운영,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생 요구를 존중과 배려로 수용함	학년별 및 주제별 다모임 참여도, 집중도, 부담감 차이 발생, 1~2학년 자율동아리 비동참	다모임 운영에 대한 고민(필요성, 책임, 집중) 자율동아리 자율성 향상 방안
P1초	학생 중심 동아리활동 운영, 학년 다모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학생 주도 운영의 어려움, 학생주도 자치활동 확장 한계, 저학년 다모임 활동 부족, 규모로 인한 자율동아리 운영에 한계점, 학생자치 공간 없음	전교어린이회 운영방안, 학년 특성에 맞는 다모임 운영방안, 학생중심 행사전환, 학급자치 활성화 방안, 학생주도 자율동아리 운영방안
D1초	학생 주도 학생 다모임 시스템 마련, 학교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지속 지도, 학생 다모임 결과 기록 및 공유, 학생이 프로젝트 계획 및 운영으로 학부모 학생 만족도 높음	자치회의 리더 역량에 따라 회의 진행과 결과 도출의 편차가 큼	논의를 위한 시간 배정, 학생 주도 학생자치활동 방안, 외적동기보다 내적동기 자극, 학생들의 경청 태도 형성

〈표 4-4〉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	·	·
C2초	·	·	·
I1초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역량, 회복적생활교육	문제학생 선입견, 학부모 갈등 및 교육활동 참여저조	학년별 특색활동 구성, 학부모 의견수렴방법
S2초	학교 특성과 교육공동체 의견이 반영된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별 연계된 체험학습 계획, 학생 요구 자료 요목화, 교사수준교육과정 재구성 필요, 현장체험 교육 목적 강화	
I2초	생활터전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활동	기초학력 향상	행복학교 운영 및 기타 사업 운영 통합 및 정리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Y1초	사계절 채움학교 등 특색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들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동아리 운영	학생 동아리와 방과후프로그램을 연계 과정에서 강사 확보 어려움, 비희망 부서 배정된 학생들의 참여도 낮음	학생들 요구와 흥미 자발적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운영 방식 모색 필요
Y2초	학생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설계와 학생 다모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연동하여 계획, 지역 강사와 지역 공간을 활용한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동학년별, 무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가정이 많은 본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배움 요소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교육과정 간소화, 배움중심 수업연구 시간 확보, 다문화 가정이 많은 본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S3초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력향상 수업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운영, 블록타임제로 놀이시간 확보, 문화예술 경험 제공(방과후학교), 무학년제 두레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학교 철학에 대한 교사인식 차이가 학급교육과정 운영의 차이로 나타남, 학생 수가 적어서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 학교 개설이 어려움, 부적응 학생 다수로 방과후 교사들이 힘들어함, 행복학교 철학에 바탕한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철학 공유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체계 마련,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연구시간 필요, 방과후학교 교사들과 연대하여 학생지도 방안 마련, 교사수준교육과정 연수 필요
S4초	지역문화를 활용한 특색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년별 체험활동 다양성 유지,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외체험활동 시수 및 교통편 확보의 어려움, 소외지역으로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섭외 제한, 문화예술 교육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움	다양한 체험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월성 확보 필요(시간과 노력)
P1초	학년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사 학년 중임제로 교육과정운영 효율성 강화	교사의 의욕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신체적 소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D1초	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협력하는 자세	전입교사의 프로젝트 이해를 위한 시간과 노력 소모	지역 교육과정, 학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학교교육공동체의 합의, 교육과정 시수 편성 시 적절한 증배와 감축

〈표 4-5〉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	·	·
C2초	·	·	·
I1초	수업사례 나눔, 프로젝트 수업운영	행사와 교육과정 운영 병행, 기초학력 더딤 학생 수업참여	교육과정 중심 연간계획, 기초학력 더딤 해소
S2초	전교원 프로젝트 수업 연수 이수, 학생 요구 수업 반영, 마을교육과정 개발 실천	방과후 기초학력 지도 시간 확보 어려움	
I2초	학생 의견 반영 생활연계 프로젝트 수업	학년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전 학년 프로젝트 운영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Y1초	주마다 교사 배움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배움 문화 정착	학생들 사이 학력차이로 수업 진행 어려움 발생(기초학력 미흡)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프로젝트수업 활성화, 학습 더딤 학생들 지원 방법 필요
Y2초	교내 자율장학 환경 조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일체화로 수업 혁신 실현, 수시 학교 공개를 위해 준비 방법을 최소화, 수업 디자인 및 수업 나눔 기록지를 간소화, 수업장학/자체연수 등을 창원 관내 및 경남 도내 초등교사와 공유, 다양한 배움중심수업 자료를 책(시집)으로 엮어 활용	다모임 수업을 위한 공동수업안 연구, 동학년별 프로젝트 학습 등의 연구는 활발하나 전체교사가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함(연 2회), 일상적인 수업 공개와 나눔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 다양한 학교밖 활동 운영의 부담으로 본교 배움중심 수업 연구를 위한 교사들의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어려움	배움중심 수업이 실행/수정/보완되어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환류 체제 구축 방안 마련 필요, 수업 나눔 주간 운영시 참관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3초	학생의 배움중심수업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교사교육과정 공유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됨	학교교육과정 계획과 다른 담임교사의 별도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전입교사와 철학 공유의 기회가 필요함,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변동되는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학부모 안내 필요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S4초	수업 나눔 문화 정착, 전교사 참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실천, 학년고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년 중복 현상 감소	2주 또는 3주 단위로 운영되는 수업 나눔 시스템에 따른 피로감이 있음	효율적인 수업 나눔 시스템 방안 찾기
P1초	교사의 다양한 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토론 활성화, 학부모 교육과정 지원 및 동학년 협의체 운영이 활발함	없음	부진아지도 매뉴얼 개발, 기획과 실천, 개선을 기록하는 방법 모색
D1초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공동체와 함께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젝트 구성의 어려움	학급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시간 필요, 학급교육과정 운영의 공유 필요

<표 4-6>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	·	·
C2초	·	·	·
I1초	과정중심평가 이해도 높음	학생성장 평가를 위한 평가 문항 신뢰도 부족	학생성장 지표가 드러나는 문항개발 필요
S2초	성취기준 도달을 위해 수행평가 기회 여러 번 부여, 평가 결과 서술형으로 통지	평가 결과 수시 통지 방법 강구	
I2초	학부모의 배움성장일지 통지에 대한 만족도 높음	배움성장일지 관리의 어려움(배부/수거)	효율적인 평가 통지 방법 필요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Y1초	과정 중심 수시평가 강화, 지필평가 폐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과정을 배움공책에 기록	학생들 배움공책 정리 개인차 발생, 일부 교과에서 피드백이 제 때 되지 않음	학부모에게 자녀 성장과정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통지 방법 모색 필요, 배움공책 정리 방법 공통 기준 마련
Y2초	진단활동주간 입체적인 진단활동 실시로 학생 지도계획 수립, 과정 중심의 수시 평가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연 4회 배움·나눔·성장 통지문을 개선 및 간소화하여 가정에 통지하고 학생 성장 자료로 활용	과정중심 수시평가 및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 기초학력이 낮은 본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 고민 필요	학부모와 교사 학력관 차이로 소통 필요, 학생성장 평가 결과들을 학생 성장에 활용하는 방법 찾기
S3초	서술형 평가통지로 학생성장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도우며 만족도도 높음	학기말 통지에 대한 피로도가 있음,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가 실시여부 확인 불가	평가 통지기간 확장 필요, 학년별 평가계획 공유 필요
S4초	학생성장에 맞춘 과정 중심 평가 실시, 다양한 평가 방법과 피드백으로 배움의 질을 높임	기초학력이 낮음, 맞벌이, 한부모 등 가정에서 관심이 부족한 학생이 다수임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습 더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구안
P1초	교사의 평가 철학, 학생의 긍정적 느낌, 학부모의 믿음, 과정중심수시평가 실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음	없음
D1초	과정중심평가를 통한 배움중심 수업 실현, 4학기제에 따른 아이맞춤형 성장통지, 학생의 자기평가를 다음 학기 반성자료로 활용, 학급별 포트폴리오와 평가지를 가정에 발송(신뢰성 높임)	학교교육외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구제방법이 없음	학력에 대한 의미 재정 필요, 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필요, 학생들의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필요

〈표 4-7〉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전문적학습공동체 목적 인식, 학년교육과정 운영 효율성	연구실 부족, 회의가 많아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간 부족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간 확보
C2초	·	·	·
I1초	전문적학습공동체로 교육과정 계획/실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저경력교사 참여	동료성 향상, 맞춤형 연수
S2초	학교교육과정에 전문적학습공공동체 운영 계획 포함, 원격연수비 지원, 교육과정 연구 및 실천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I2초	전문적학습공동체 주기 운영, 교사주체 수업 공개와 교실 나들이 운영	반복되는 협의주제와 협의 내용이 학급별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	협의주제와 개선 실천 사례 공유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Y1초	·	·	·
Y2초	다양한 형태의 학교밖 교직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외 자율장학을 활성화, 1학기 평가로 본교 실정에 맞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변화 모색, 열성을 가진 교사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	무학년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논의 시간 부족, 학교 밖 활동을 필수 운영해야 하는 사정으로 본교 교사들 사이 소통 시간 부족	수업 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 확보 필요, 효율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방법 논의/적용
S3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구성간 인식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간 확보
S4초	공동 수업 연구, 수업 나눔 협의가 시스템화(사전, 수업 및 수업 후 성찰 협의회)	학년 1학급으로 학년 내 교육과정 재구성 등과 같은 학년 공동 연구가 어려움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확보 및 다양한 분야 교사 연구 활성화, 지역 동학년과 함께 하는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P1초	주마다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연구 역량 강화, 지역 동학년, 교내 정기적 나눔 기회 마련, 정기적인 학년별 수업 연구 실시	학년 간 연계성 부족	학교 차원의 공동 연구주제 발굴
D1초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성,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이해 및 교육과정 운영 요소 도출	업무로 인한 연구 시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세부적인 계획 의논 필요

〈표 4-8〉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교사 전문성 연구문화 조성, 상시 수업컨설팅 가능	수업 나눔 경험부족, 연수와 수업공개 참관을 위한 탄력적 일과운영	수업 나눔 문화 조성과 연수 확대
C2초	·	·	·
I1초	전문적학습공동체 목적 인식	수업공개 부담, 외부일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간 침해	즉흥행사 참여 지양
S2초	프로젝트 수업, 그림책 활용 연수 실시, 타 행복학교 방문, 수업 나눔 협의회 실천	수업성찰 수업 나눔 협의회 필요	
I2초	수업 전, 중, 후를 공유하는 시간 확보, 중간놀이 시간 활용 참관교사 수업결손 방지	수업협의가 수업자 역량평가로 인식	공동수업안으로 수업 자체 평가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Y1초	·	·	·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Y2초	놀이다모임 운영으로 저학년 정기 공동 수업안 작성 시간 확보, 학년별 및 무학년제 수업 운영으로 교사 간 공동 협력 작업 형성,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및 프로젝트 내용 공유자료집 제작	일상적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이 되지 못하고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일상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위한 방안 마련, 새로 전입한 교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새학년맞이 워크숍)을 통해 수업공동체 운영 및 내용에 대한 협의(전입교사 배려 및 존중)
S3초	교육본질 회복 및 구성원 간의 민주적 관계 강화	수업 사전, 사후 협의회를 위한 시간확보 어려움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S4초	연구회 활동 운영 및 참여 활발, 공동 수업안 작성 및 수업 공개 협의회 등 수업 성찰을 위해 노력, 담임교사 업무 부담을 공동연대 함	교사 행정업무 부담 축소 방안 강구	업무적정화 및 업무분장 교직원 회의
P1초	동학년 수업 나눔 기간 연중 실시, 수업 나눔 정례화로 상호 개방적 피드백 강화, 교사들의 자율적 능동적 수업연구 문화 정착	없음	학년 수업 나눔에서 다른 학년 교사가 참관 할 수 있도록 안내, 학습공동체 교사활동과 차별화된 수업연구 활동 필요
D1초	수업 사전협의 실시, 일상수업의 공개, 사후 협의회를 통한 수업 나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구와 교재 확보	수업 나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공개수업 참관을 위한 시간 운영의 융통성 필요, 기초학력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교원간의 합의 및 학력신장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표 4-9〉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	·	·
C2초	신설학교로 시설 안전, 연중 안전교육 실시, 공동체문화 조성	학교출입로 안전사고 위험 노출	학교출입로 분산, 학생안전지도 지속
I1초	·	·	·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S2초	안전지도 강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약속 제정 및 실천, 공동체 밴드 운영	학부모 참여 독려 필요	
I2초	협력 중심 배려,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	학년간 지향하는 가치 충돌시 생활규범 적용이 다름	교육공동체가 만드는 생활규범 필요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Y1초	·	·	·
Y2초	학교구성원의 자발 참여보장 및 소통, 존중을 위한 학교 운영 체제가 마련되어 있음, 불필요한 행사 폐지 및 축소	배려하는 학급 문화 조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필요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와 교사 소통 시간 필요
S3초	학부모의 학교 참여율 확대로 자녀에 대한 관심도 향상,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협력도 향상	행복학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해와 무리한 요구가 생김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수 필요
S4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노력, 학생 주도 규칙 제정과 실천을 통해 소통과 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경청하기)	방과 후 학생들 통학버스 탑승 관리 및 센터 내 안전 활동 관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예방 지도, 학부모회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부담,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소통이 어려움	방과후 청소년센터 및 통학버스 이용 안전관리, 학부모회 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 지원과 협력,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방안, 교사들의 학부모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의식변화 연수
P1초	·	·	·
D1초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활성화	·	안전 불감증 개선 필요

〈표 4-10〉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	·	·
C2초	학부모주도 다모임 운영, 아버지 참여도 높음, 학부모 재능기부로 다양한 동아리 운영	학부모동아리 예산 부족, 학부모회 참여범위가 좁은 것에 대한 불안감, 교육철학 공유 부족	학부모동아리와 학생동아리 연계 확장, 학부모행사 및 연수 기획운영 필요
I1 초	·	·	·
S2초	부모 주도 마을학교 운영, 학부모 주도 여러 단체 운영	학년별 학부모 참여도 차이, 학부모 참여 유도 필요	
I2초	학부모회 자율운영 및 자발적 참여	맞벌이 가정이 많아 학부모 참여가 저조함	학부모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S1초	·	·	·
H2초	·	·	·
H3초	·	·	·
B1초	·	·	·
H1초	·	·	·
Y1초	·	·	·
Y2초	학부모 참여가 학부모회, 독서동아리, 봉사활동, 마을학교 등으로 이어져 학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학부모 모임이 조직되어 있음	학부모회 임원과 마을교사가 중복으로 피로도가 높음, 맞벌이 가정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느끼는 소외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 교육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분들을 이해시킬 방안 마련 필요	학부모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학부모회, 마을학교임을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음, 학부모 간의 다양한 소통 방법 고민 필요
S3초	학부모 주도 학부모 사업 추진,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기회 다양,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	전입교사의 학부모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소수 특정 학부모층이 학교 활동에 참여, 학부모 자치활동 리더 부족, 학부모 행사 야간 운영으로 교직원 피로도 높음	학부모회 주도 예산사용 지원 필요, 학구내 학부모들 참여 방안 마련, 학부모 행사시 탁아방 운영 외주인력 활용 가능방안 마련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S4초	월별 학부모다모임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활동 평가/건의/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학부모회 운영 자발성 및 주도성, 학부모와 학교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 서포 청소년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동반자로 거듭남	전반기에 비해 활동 참여도가 낮음,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으로 부담 및 피로도 증가, 학부모회 인식 차이로 참여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현상도 있음, 행복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학부모가 있음, 다문화가정의 관심과 참여가 낮음	학부모회 활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의회가 필요, 학부모 활동가 지원을 위한 교사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 행복학교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다문화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P1초	·	·	·
D1초	학부모 모임과 연수를 통한 학부모의 성장, 학부모의 프로젝트 참여	맞벌이 가정의 증대로 학부회 조직 및 운영의 어려움	학부모 참여 방안, 주체적인 학부모 모임 운영,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방법 모색

〈표 4-11〉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표 학교별 평가내용 요약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C1초	·	·	·
C2초	체험콘텐츠 풍부, 지역자원 네트워크 형성, 지역 거주 교직원 비율 높음	교내 인프라가 적어 지역연계 부족, 교육공동체(학부모 참여) 협력부족	교육공동체 함께 만드는 비전, 지역연계 프로그램 사전계획 수립, 마을교육공동체에 교직원 참여
I1초	·	·	·
S2초	·	·	
I2초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인재 활용 학생 전문교육 가능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파악과 활용 방법 고민이 필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확대 필요
S1초	·	·	·
H2초	·	·	·
H3초	·	·	·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명	강점	약점	개선점
B1초	·	·	·
H1초	·	·	·
Y1초	·	·	·
Y2초	마을교사 주도로 성산마을학교가 운영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기회를 가짐 학부모님 인적자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	마을학교 운영으로 교사 및 행정실 업무 증가 1회성 행사가 아닌 방과 후 수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마련 필요	교육과정 연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충분한 논의 과정 필요 마을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운영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방과 후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S3초	주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마을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의 지역사회 관심도가 높아짐	학교 주변 교육적 인프라 부족으로 비용과 시간 소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교육과정 계획 연계 방안 마련, 수곡면 교육자원 발굴 및 정리 필요
S4초	개선된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공유, 지역사회 및 각 유관단체와의 협력적 교류, 활동가 학부모들과 동반자 네트워크를 구축, 청소년센터 운영으로 학부모의 방과후 돌봄 고민이 해소, 쉼터와 다양한 특기적성 기회마련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영역과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지역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학교 인력 부족 및 참여 의지가 부족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마을교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 방법 필요 학교와 지역사회 인사와 협력 관계 협의체 필요
P1초	·	·	·
D1초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행·재정적 절차 및 규정으로 지역자원 활용의 어려움	지역축제와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필요,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지역 자원의 체계화 필요

가.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공통점 분석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16개 초등학교의 평가 영역별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1)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영역 공통점

〈표 5-1〉 2.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영역 공통점

평가지표		평가 공통점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강점	민주적인 회의문화,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활용과 의사결정 협의, 행복학교 철학 공유,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
	약점	행복학교 철학 공유(구성원 관심과 참여 부족) 일반학교 보다는 민주적이지만 이상적인 행복학교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개선점	민주적인 회의를 위한 소통방법 정착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강점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업무지원팀을 운영
	약점	업무지원팀 유지와 업무경감의 한계(업무지원팀 부담 가중)
	개선점	업무지원팀 지속 유지 방안(업무 부담으로 지원자 부족) 업무적정화 방안, 교육과정 중심 업무 분장 회의 운영 필요(업무분석 및 교직원 협의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분장)
2.3.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강점	학생 다모임 운영(주체적인 교육과정 활동 참여)
	약점	학생 자치회운영 능력 부족(진행, 참여도, 회의 주제 등)
	개선점	자치활동 참여기회 확대, 교사 연구 및 준비

가) 2.1 민주적인 학교 운영 지표

행복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교육공동체 중 일부,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철학 공유에 대한 고민과 회의 진행 미숙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다.

나)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지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팀을 구성하고 활용하고 있다. 업무지원팀 내 교무행정원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업무지원팀의 업무 과중으로 지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지원팀 구성을 위한 인력 보완, 업무 적정화 방안, 교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업무 분장 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2.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표

다양한 형태의 다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주도 활동을 기획·실천하고 있다. 지도교사 및 참여 학생들의 회의 진행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학생 자치 영역 폭이 좁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 자치 시간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 공통점

<표 5-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 공통점

평가지표		평가 공통점(16개 학교)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강점	학교 특색(교육공동체 의견 반영)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약점	교육과정 적정화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확보의 어려움, 철학 공유의 어려움(학생, 학부모, 전입교사)
	개선점	의견 수렴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적정화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강점	수업 나눔 문화 정착으로 교사역량 강화
	약점	기초학력 더딤 학생의 수업 참여와 지도시간 확보 어려움, 교사 연구시간 부족, 피로감 누적, 학년간 연계성 부족
	개선점	기초학력 해소방안 마련, 학년간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마련, 효과적인 수업 나눔 체계 마련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강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과정중심 수시평가와 통지
	약점	평가문항 개발 전문성 부족, 효율적인 수시통지방법 부재, 피드백(기록, 관리)의 어려움(학생수 많음, 방법 부족),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방법 부족
	개선점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 효과적인 평가 통지 방법 개발로 가정과 연계방안 마련, 교육공동체의 학력관 재정립 및 공유 필요, 학력향상에 가정연계가 필수임을 안내

가)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표

학생 요구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제한된다. 교사별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의 차이로 학교교육과정이 학급마다 다르게 운영 되는 사례가 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특성이 반영된 학교교육과정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나)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지표

배움중심수업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이 수업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하며 시행착오 과정에서 '수업에 소외되는 아이들', '물리적 수업 연구 시간 확보', '다양한 요구를 수업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의 고민이 발생하고 있다. 수업 나눔을 통해 교사 성장을 위한 동력을 꾸준히 가져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지표

다양한 수업을 적용하고 여러 평가 방법을 수행하면서 평가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교사 평가역량 강화 연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학습 더딤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가정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학생 평가가 일회성 결과가 아닌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영역

〈표 5-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영역

평가지표		평가 공통점(16개 학교)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강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정례화(교사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수업 나눔, 교재연구, 교육과정 논의)
	약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부족,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구성원 협의를 통한 내실화 필요
	개선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 공간 확보 및 철학 공유, 학교교육과정 (학년간 연계성 강화) 협의 필요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강점	체계적인 수업 나눔 운영(사전/사후 협의회 실시)
	약점	수업 나눔 경험 및 인식 차이, 회의와 수업 협의 그리고 업무 등으로 수업 나눔 시간 확보가 어려움
	개선점	수업 나눔 철학 공유와 수업 나눔 여건 마련, 전시성 행사 지양, 공동수업안 작성 등을 통한 부담완화 및 일상 수업 나눔 방안마련

가)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정례화 되어 있다. 회의, 업무, 행사 등으로 운영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 사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인식 차이로 갈등이 있다. 학년간 유기적 교육과정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지표

체계적인 수업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문화가 정착 되어 가고 있다. 수업 나눔 경험 및 인식 차이, 잦은 회의와 수업 협의, 업무 등으로 수업 나눔 시간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영역

<표 5-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영역

평가지표		평가 공통점(16개 학교)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강점	교육공동체 소통을 위한 노력,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약점	학부모의 행복학교 이해 및 참여 부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시설물, 기자재 등)
	개선점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소통 기회 마련, 지속적인 학생 안전지도 및 관리 방안 마련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강점	자발적인 학부모 다모임 운영(적극적인 학교교육활동 참여)
	약점	학부모 참여도 향상의 어려움(참여율 저조), 행복학교 철학 공유 부족으로 이어짐, 예산 부족, 학부모 문화에 대한 교사 인식 차이, 학부모 리더 부족 및 학부모회 구성의 어려움
	개선점	학부모 참여 방안 모색(예산확보, 소통방법, 철학 공유, 의견 수렴 등)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점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자원(인적, 물적) 활용, 학생들의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
	약점	인프라 부족,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업무(행·재정 절차의 어려움) 증가 및 인력부족, 마을교육과정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개선점	마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지역 인프라(인적·물적) 체계화 및 발굴

가)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지표

교육공동체 소통을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 학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개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적인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일부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나)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지표

자발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교육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 활동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가정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관 차이로 참여 확대가 어렵다. 학부모 문화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내 관점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 학부모리더 및 예산 부족으로 학부모회 구성과 유지가 어렵다.

다)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표

학교교육과정이 학생의 삶과 연결된 배움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과 학교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사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업무가 많다. 일회성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성이 있다.

나.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운영 연차별 분석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복학교 운영 2년차 11개교와 6년차 5개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영역

<표 6-1> 2.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영역 연차별 분석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강점	민주적인 회의문화, 다모임 운영	다모임 등 민주적인 회의 문화, 공동체 비전공유,
	약점	행복학교 철학 공유, 구성원 참여, 회의 진행 방식	공동체 참여 저조, 관리자 의견 강조, 학생회 의견 반영
	개선점	철학 공유, 다양한 의견 수렴 체계, 협의된 회의 방식	민주적 회의 운영 방법 마련, 관리자 권한 위임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강점	업무지원팀 운영과 교육과정 중심 운영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으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약점	교육과정 중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조직 및 간소화	업무지원팀 업무 과중, 구성원 변화 등으로 지원팀 유지가 어려움
	개선점	업무체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정화 및 간소화	업무 분장 회의를 통한 업무 적정화
2.3.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강점	다모임 등 학생 자치활동 운영	학생 주도 학생 다모임 운영
	약점	자치활동 참여 영역, 대상, 운영 능력, 주제, 예산 활용	자치영역 확장 제한, 자치 주제/운영 미숙, 자치 공간 부족
	개선점	자치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학생/교사)	학생 자치 참여기회 확대, 학생 자치 역량 강화

가)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지표

2년차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행복학교 철학 공유가 부족하다.

6년차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구성원 교체로 인한 철학 공유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민주적인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지표

2년차 학교에서는 업무지원팀 내에서 업무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년차에서는 업무자체의 간소화와 구성원 변동에 따른 업무지원팀 유지를 고민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업무 적정화를 위한 업무 분장 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다) 2.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표

연구 대상 16개 초등학교 공통점 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2)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

〈표 6-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연차별 분석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강점	학교 특성 및 공동체 의견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약점	교육과정운영에 공동체 참여도, 체계적 계획, 기초학력	행복학교 철학 공유 부족, 변화하는 학교 상황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필요
	개선점	효과적인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통합 운영	학교교육과정 연구 지속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강점	학생의견 반영된 프로젝트 수업 운영 및 수업 사례 나눔	수업 나눔과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배움중심 수업 여건 마련
	약점	기초학력 차이 발생 및 지도의 어려움, 학년 간 연계성	수업 나눔에 대한 부담감
	개선점	기초학력 지도 및 시간 확보, 유기적인 전 학년 프로젝트 수업 운영	효율적인 수업 나눔 시스템 필요, 부진아 지도 매뉴얼 개발, 학급 교육과정 운영 시간 필요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강점	과정중심 평가 실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평가 통지 방식	과정중심 평가 실시, 다양한 평가 통지 방법 적용
	약점	평가 문항 신뢰도, 수시통지 방법, 평가 결과 누적 관리(피드백/기록물 보관 등)	평가문항 개발 전문성,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개선점	성장이 나타나는 문항개발, 효율적인 평가통지방법	교육공동체 학력관 정립, 교사 평가 전문성 신장,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가정과 연계성 강화

가)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표

2년차에서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운영, 평가에 대한 학부모 참여가 낮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학년별 교육과정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중복 운영되거나 단순 체험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교육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체험중심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 더딤에 대한 우려가 있다.

6년차에서는 학교 구성원 변화가 학교교육과정 변화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연차가 거듭되며 특정 교육활동이 고착화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구성원 변화에 따른 행복학교 철학 공유의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학교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바람이 있다.

나)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지표

2년차에서는 다양한 배움중심수업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학년간 연계성은 부족하다. 수업 속에서 학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있다. 프로젝트수업을 배움중심수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6년차에서는 수업 나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나 전입 교사들은 수업 나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 연구 또는 수업 준비로 학급별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수업 연구를 거듭하며 학력 격차 발생 원인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찾고자 한다.

다)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지표

2년차에서는 평가 문항 개발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6년차에서는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었다.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고 공유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연차별 분석

<표 6-3> 4.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연차별 분석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강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공개 등 교육과정 연구	교육과정과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연구문화 활성화)
	약점	교사 연구 시간 및 공간 확보, 참여 수준 차이에 따른 적용 차이	시간부족, 참여자 인식 차이, 학년 공동 연구 어려움, 연계성
	개선점	내실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연구 시간 확보, 공간 확보, 지역 동학년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주제 발굴, 학교교육과정 세부 계획 의논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강점	연구문화 조성, 수업 나눔 실천	공동 수업안(다모임과 무학년제 수업운영) 운영 및 공유, 교육 철학 정립 및 민주적 관계 강화, 수업 연구를 위한 공동 연대(수업 성찰 및 업무분담), 수업 연구와 나눔 문화 정착, 수업 나눔문화(일상수업/사전·사후 협의/기초학력신장)
	약점	수업 나눔 경험/인식 부족, 수업 나눔 부담, 시간 확보	일상적 수업 나눔과 시간확보, 행정업무 부담, 수업 나눔 구성원 인식부족
	개선점	수업 나눔 여건 확보를 위한 방식 변화와 연수 및 행사 축소	일상 수업 나눔 방안과 수업공동체 협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편성과 자율권 확대, 업무적정화를 위한 업무분장 회의, 수업참관을 위한 일과 운영 융통성과 기초학력 정의와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가)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2년차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대상의 인식차이에 따른 학급 적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6년차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년 내 연구와 내실은 다져지고 있지만 학년간 연계성 체계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구성원 변화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연구주제 발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지표

2년차에서는 수업 나눔 경험이 부족하고 수업 나눔 인식 차이로 공개하는 교사가 부담을 갖는다. 행사 등으로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6년차에서는 교직원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수업 나눔 문화가 정착되었다. 교사 역량 평가가 아닌 학생 배움 시작점을 찾는 일상적인 수업 나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연차별 분석

<표 6-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연차별 분석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강점	공동체 문화 조성(밴드 운영 등), 안전한 학교 여건 마련	교육공동체 소통을 위한 학교 운영 체제 마련(행사 축소/폐지), 학부모와 학교 유대관계로 자녀교육 관심도 향상, 공동체 문화 조성, 존중과 소통 문화
	약점	공동체 참여 및 공동 생활규범 적용, 안전사고 노출	배려하는 학급 문화, 행복학교 이해부족, 학부모회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 부담과 다양한 가정환경(다문화, 한부모 등)에 따른 소통 어려움
	개선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규범, 학부모 참여, 안전지도 지속	관리자/교사 소통 필요, 학부모 소통 방법 마련과 학부모회 운영 개선 모색, 안전 불감증 개선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강점	학부모회 주도 다양한 운영(마을학교, 동아리 등)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가 문화로 형성되어 참여도 높음, 학부모 자치 활성화, 월별 학부모 다모임 운영(교육 동반자로 성장)
	약점	예산 부족, 학부모 참여도 낮음	학부모회 운영진 피로도, 미참여 학부모의 소외감, 전입교사 학부모 문화 이해부족, 학부모회 활성화 어려움,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과 내부 갈등, 학부모회 조직운영이 어려움
	개선점	교육과정 연계된 학부모 활동 등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학부모회와 마을학교 참여 홍보와 다양한 소통방법 필요, 학부모 예산 지원과 참여방안 마련(학부모 행사 탁아방 운영 외주 인력 활동 등), 학부모 활성화 방안(학부모 활동가 지원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 주체적인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마련(의견 수렴 방법 등)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점	지역 연계 교육과정 및 지역 자원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됨, 학생들의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 네트워크 구축

평가지표		연차별 학교평가 공통점	
		2년차	6년차
구축	약점	지역 자원 파악 및 연계(학부모 참여) 방법 고민	마을학교 운영으로 교직원 업무 증가,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비용과 시간 소요, 행정/재정 절차의 번거로움
	개선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마련	교육과정과 마을학교 연계운영 논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협의체 필요, 지역 자원(지역 축제 등) 발굴 및 연계 방법 필요

가) 5.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지표

2년차에서는 공동체 소통을 위한 창구가 있지만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지는 않았다.

6년차에서는 학부모 활동과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참여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소수 학부모 활동가 중심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되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학부모회 운영진 내부 및 운영진과 비운영진 사이 갈등이 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나) 5.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지표

2년 차에서는 학부모 참여가 낮아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

6년 차에서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와 학부모주도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다.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과 내부갈등 등의 어려움이 있다. 활발한 학부모회 활동 유지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가) 5.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표

2년차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6년차에서는 지역 자원을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한 사례가 누적되어 연계성이 높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확보가 어렵다.

다.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운영 규모별 분석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 규모별로 소규모(10학급 이하) 9개교, 중규모(11학급~20학급) 3개교, 대규모(21학급 이상) 4개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교 규모별 분석

<표 7-1> 2.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교 규모별 분석

평가지표		학교 규모별 평가 분석		
		1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11학급~20학급 중규모 학교	21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강점	민주적인 회의문화(다양한 의견 수렴),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운영	교육공동체의 행복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행복학교 철학 공유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약점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회의방법과 의견수렴방법 필요)	행복학교 철학 공유 확산 부족	행복학교 철학 공유(자발성, 협의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리자 의견 강조
	개선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기회 및 소통(의견수렴)을 위한 방법 필요, 관련 연수 실시, 업무 간소화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체 마련	소수의견 수렴 방법 모색, 교사에게 권한 위임, 회의 촉진자 양성, 교육공동체 협의회 및 행복학교 철학 연수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강점	업무지원팀 운영으로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업무지원팀 구성으로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여러 형태의 다모임 운영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 업무지원팀(전담팀으로 운영하여 일반교사 업무 없음) 운영
	약점	소규모 학교 업무지원팀의 구성 한계(소수 구성원, 행정원 이동으로 협력체계 변화)	업무지원팀 내 소통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되고 편중 됨	교육과정운영팀, 업무지원팀, 행정실 간의 업무 소통이 필요, 업무담당교사 권한 위임이 부족함
	개선점	업무경감 토론과 합의(공감대 형성)를 통해 업무 적정화	구성원 변화에도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한 업무 분장 문화 조성	업무 간소화(위임 전결 등)를 위한 업무분장회의 필요, 업무지원팀 구성 재고
2.3.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강점	학생 주도 학생 다모임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 다모임 의견 반영(학교행사, 동아리,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학생 자치회 운영	학생 주도 자치활동 활성화, 다양한 운영, 만족도 높음
	약점	회의진행 미숙, 학생 주도성 부족, 관심분야 편중, 참여율 저조	학생 자치회 운용 능력 및 주제 범위의 한계, 공간 부족	방과후 자치활동 시간 부족, 과밀인원으로 전체 다모임 운영이 어려움, 학생자치 지도 교사 필요, 다모임 경험 부족, 자치공간 부족, 학생 자치 역량 부족 등

평가지표		학교 규모별 평가 분석		
		1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11학급~20학급 중규모 학교	21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개선점	학생 주도 다모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교사/학생 자치 역량 강화 연수, 자치활동 공간 마련	교육과정 내 학생 자치활동 시간 확보, 학생자치 교사/학생 연수 필요, 학년 특성에 맞는 다모임 운영 방안 마련

가) 2.1 민주적인 학교운영 지표

소규모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학부모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다.

중규모 학교에서는 교직원 안에서 행복학교 철학 공유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구성원이 많아짐에 따라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의견 수렴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나) 2.2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지표

소규모 학교에서는 적은 교직원수로 업무지원팀 구성원이 적어 1인당 업무가 많고 업무 경감에 제한이 있다.

중규모 학교에서는 원활한 업무지원팀 운영을 위해 업무 균형과 업무지원팀 내 소통이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 회의를 통한 학년, 교무실, 행정실 업무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직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적어 업무지원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 2.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표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는 많은 인원수에 따른 시간과 공간, 운영 효율성의 제약으로 전체 학생 다모임 운영이 어렵다.

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표 7-2> 3.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평가지표		학교 규모별 평가 분석		
		1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11학급~20학급 중규모 학교	21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3.1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의 다양 화	강점	학생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약점	소규모 학교로 다양한 수업(강좌, 방과후 수업 등) 개설의 어려움,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연계성 부족, 교사간 철학 차이로 교육과정 운영이 달라짐	다문화 가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없음, 배움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학생에 대한 교사들 선입견, 학부모간 갈등으로 교육활동 참여 저조	.
	개선점	행복학교 철학 및 교사수준 교육과정 연수를 통해 학년별 교육과정 체계 마련, 방과후 학교 강사와 연대 필요, 교육과정 적정화 연구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마련, 내실 있는 학년별 특색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가정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간소화	.
3.2 배움 중심 의 수업 개선	강점	공동 수업연구와 나눔 문화 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수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수업 나눔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실현	.
	약점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려움, 학년 간 수업 연계성 낮음, 수업 나눔 피로도 누적, 기초학력 지도 시간 부족	행사와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 기초학력 더딤 학생 수업참여도 낮음. 외부 나눔 활동으로 교내 수업 나눔을 위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	.
	개선점	학년 연계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수업 나눔 시스템 필요, 학습 더딤 학생들 지원 방법 필요	교육과정 중심 학교운영, 기초학력 더딤 해소, 학년 교육과정 운영 반성을 통해 이듬해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순환체제 구축, 수업 나눔 협의 방법 개선	.

평가지표		학교 규모별 평가 분석		
		1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11학급~20학급 중규모 학교	21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강점	과정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 통지, 학부모 만족도 높음	다양한 과정중심 수시 평가 실시 및 통지	·
	약점	평가 누적 관리 및 결과 활용의 어려움, 가정의 관심과 기초학력이 낮음	교사들의 학생 평가 전문성 부족, 기초학력 더딤 학생 지원 방법 부족	·
	개선점	학생 성장을 담은 평가 방법과 기록이 필요, 효율적 평가 통지방법 마련, 교육공동체의 학력관 정립 필요, 가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관리, 학생 평가 관련 교사 전문성 신장	학생 성장을 담는 평가 문항 개발 및 결과 활용, 교육공동체와 학력관 공유	·

가) 3.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좌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수 가 충족되지 않아 강사 확보가 어렵다.

중규모 학교의 경우 다문화 등 다양한 학생특성과 가정환경(학부모의견)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나) 3.2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지표

소규모 학교에서는 배움중심수업이 학년 간 연계되어 운영된다. 학년 또는 학급 고유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 부족하다. 학급 내 학력차이 해소를 위한 시간확보가 어렵다. 학년 담임 구성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전입교사 발생 시 교사역량에 따라 교육과정 실천이 학교교육과정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원 수가 적어 1인당 수업 나눔 횟수가 많아 피로도가 높다.

중규모 학교에서는 동학년 체제 구축이 가능함에 따라 학년교육과정 반성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업 시간 내에 학습 더딤 학생을 위한 지원이 어렵다.

다) 3.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지표

소규모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관리를 위한 가정과 연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중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원인의 학습 더딤 학생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표 7-3> 4.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학교 규모별 분석

평가지표		학교 규모별 평가 분석		
		1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11학급~20학급 중규모 학교	21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4.1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강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정례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약점	연구시간 확보 어려움, 공동 연구 어려움(학년 당 1학급),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와 협의가 어려움, 논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간 및 장소 확보 어려움	·
	개선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예산, 시간, 공간 확보, 운영주제 다양화 등 내실화 필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공간 확보, 효율적인 운영 방법 논의 및 적용, 동료성 향상	·
4.2 함께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강점	공동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사전/사후 협의 등 연구 실천으로 전문성 신장	교사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 내용 공유	·
	약점	수업 나눔에 대한 교사 인식 개선 필요, 수업 나눔을 위한 시간 확보 (업무 부담 등)	수업 나눔 경험 부족으로 부담과 시간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개선점	역량 평가가 아닌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 나눔 문화 조성, 시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수업 나눔 시간 확보를 위한 탄력적인 일과운영 필요, 연수 확대, 일상 수업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전입교사 대상 수업공동체 운영에 대한 논의 마련	·

가) 4.1 집단 지성의 학습 공동체 운영 지표

소규모 학교에서는 업무경감 한계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간 확보가 어렵다. 학년교육과정 공동연구를 위한 인원이 부족하다.

나) 4.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업 연구와 나눔 시간이 부족하여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4) 5.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학교 규모별 분석

중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표집 자료가 한 학교만 있어서 대표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행복학교 평가표

16개 행복학교의 학교주도적 학교평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행복학교 평가표를 다르게 해석하여 제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3영역과 4영역에서 학습 더딤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라든지 2영역과 5영역에서 제시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평가 내용이 중복되어 기술한 예가 그것이다. 이는 행복학교 평가 영역과 지표 경계가 모호하고 위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경계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나. 행복학교 자체평가 16개 학교 분석 결론

첫째,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학교들은 교직원 다모임, 교사 다모임, 학생 다모임, 학부모 다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철학 공유가 되지 않고 회의 운영 방법이 미숙하여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공교육을 위해 학생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구와 도전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적정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발달과정이 반영된 학년 연계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하다. 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학교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자원 발굴과 행·재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셋째, 수업 연구와 나눔을 통해 교사 성장을 돕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성장을 중심에 둔 학생 평가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습 더딤 학생들이 발견되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업무지원팀 운영은 교사 연구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업무지원팀 운영 취지를 공유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지원팀 운영여부, 업무 분장 영역(교육과정 업무와 행·재정 업무 구분) 갈등, 업무량 균형 분배, 업무 간소화, 업무지원팀 내 소통 부재, 업무지원팀 유지 문제 제기 등이 그것이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 계획, 운영, 평가에 학부모의 참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학부모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학부모회, 학부모 동아리, 각종 연수, 교육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 활동가 중심 운영, 학부모회 운영진 내 갈등, 학부모회 운영진과 비참여 학부모 사이 갈등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행복학교 철학 공유 부재로 학교와 학부모의 학력관 차이가 발생하고 가정과 연계된 학생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 행복학교 운영 연차별 분석 결론

첫째, 2년차 운영 학교에서 운영 특징은 행복학교 4대 추진과제(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4대 평가 영역이다.)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간 철학 이해 정도가 다르고 학교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행복학교 철학 공유가 행복학교 운영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움중심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여러 형태의 모임에서 논의 된 교육활동이 학급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학생 성장을 긴 안목에서 보는 학년간 연계된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에서 미흡한 모습이 발견된다. 학부모의 행복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이 교육활동 학부모 참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6년차 운영 학교에서는 행복학교 철학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과 기존 구성원 사이의 행복학교 철학과 이해 깊이의 차이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변화가 학교 교육과정 변화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년차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업 연구와 나눔 문화, 학생 성장과 배움을 돕기 위한 평가 체제가 정착되었다

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학력관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립하는 과정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 행복학교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결론

행복학교 운영 학교 규모별 분석 결론의 큰 특징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업무지원팀 운영 영역에서 나타난다. 먼저 민주적인 회의문화영역에서 소규모 학교는 적은 수로 인해 구성원 전체 의견 소통과 구성원간의 연대가 강하다. 반면,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는 다수의 인원으로 인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른 참여기회의 노출 빈도가 구성원이 적을수록 높다. 이는 구성원의 민주시민 의식 변화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규모와 중규모 학교에서는 업무과중과 업무지원팀 유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업무지원팀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교무실, 행정실, 담임교사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2. 행복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제언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청(교육지원청),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가. 학교의 역할

첫째, 지속적인 행복학교 철학 공유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학교근무 기간은 정해져 있고 바뀌는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철학 공유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둘째, 업무지원팀, 일반교사, 행정실 등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업무적정화가 필요하다. 업무적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일부 구성원만 참여하는 업무적정화 회의는 불만이 누적되고, 행복학교 운영의 다른 영역에서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 부족, 학습 더딤 학생지원 시간 부족, 교사 연구 시간 부족,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셋째,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안에서 논의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 실천, 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학교 안팎으로 공유 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생평가, 교육과정편성운영, 수업 개선, 학급운영 등의 주제로 연수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소통과 공감, 배려의 공동체 연대 형성을 위한 놀이연수 등 다양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성원간의 관계형성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밑바탕이 된다. 더불어 효율적인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회의 촉진자 육성, 다양한 의견수렴방법(홈페이지, 밴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에 대한 교사들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처음 접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자치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담임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결정한다. 학교차원에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유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년군 또는 학년 학부모 간담회(분기별 또는 학기별 운영), 실질적인 자녀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와 소통을 해야 한다. 학급밴드나 모바일메신저, 성장평가 통지문 등으로 교육활동과 학생성장과정을 학부모와 공유하여야 한다. 특히, 해마다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학력관과 부모역할 교육 등 학부모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녀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교육청(교육지원청) 역할

첫째, 행복학교 전입교사 대상 연수, '다양한 회의 방법', '회의 촉진자 육성', '행복학교 철학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 단위의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역할훈련, 회복적생활교육, 비폭력대화 등을 제안한다. 공감대 형성 및 철학 공유를 위해 행복학교네트워크와 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학부모회 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대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안에서 업무 적정화는 한계가 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업무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학교에서 보고했던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여 매년 보고하는 공문이나 타부서 또는 기존 보고했던 학교에서 이전 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체계적인 정리,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단위에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공동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복학교 평가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별로 평가 영역과 지표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학교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영역과 지표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행복학교 평가표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다. 지자체의 역할

학생이 성장하여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 학생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지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를 학습하는 콘텐츠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등 교육약자 지원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와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행복학교 내부의 시선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행복학교의 확산을 위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연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복학교와 시작하려는 학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경남교육청(2020). 2020년 행복학교 운영계획.
- 경남교육청(2020). 2020.학교평가 편람. 경남교육연구정보원.
- 경남교육청(2015). 학교평가 방법연구회 최종보고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 임도빈(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Amos Hatch,J.(2008). 교육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진영은 역). 서울:학지사.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연구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중심으로-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희정 양덕여자중학교
공동연구자 김희진 석봉초등학교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
4. 연구 추진 계획 ····· 4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공간혁신의 의미 및 방향 ····· 5
2.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요소와 과정 ····· 6
3.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에 대한 이해 ····· 7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10
2. 학교공간혁신 현장방문, 관찰 및 면담 ····· 18

Ⅳ. 연구 결과

1.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과정 ····· 22
2.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 23

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및 제언 ····· 30

[참고문헌] ····· **31**

[부록] ····· 33

- 표 목차 -

〈표 1〉 연구자 구성 및 역할 ····· 4
〈표 2〉 연구 절차 ····· 4
〈표 3〉 학교공간혁신 사례 ····· 10
〈표 4〉 배움의 공간 프로세스 ····· 12
〈표 5〉 아지트 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세스 ····· 13
〈표 6〉 공간수업 계획의 자체 점검 리스트 ····· 15
〈표 7〉 어린이 디자인 동행의 단계 ····· 17
〈표 8〉 모델 간 비교 분석 ····· 18
〈표 9〉 진주OO초등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 19
〈표10〉 남해OO중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 20
〈표11〉 김해OO중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 20
〈표12〉 김해OO초등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 21
〈표13〉 공간혁신 수업 과정 ····· 22

-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 절차 ····· 3
[그림 2] 꿈을 담는 교실 디자인 원칙 ····· 16

<연구요약>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방안 연구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학교라는 공간은 그 구성원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으로 '공간이 삶을 바꾼다'는 말처럼 학교의 모든 공간이 그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공간이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 온 학교의 모습은 공간의 기능적 이용과 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학교 표준 공급모델(교도소의 평면도와 유사한)'로 인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한하는 딱딱하고, 삭막한 곳이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학습만 하는 곳이 아니라 깨어나 활동하는 시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살아가는' 곳이다. 이제 학교는 학생 친화적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공간도 교육이다'는 말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획일적 패턴의 학교 공간은 최근의 교육과정과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어려운 구조이며, 상상력의 향상과 창의성의 증대를 중시하는 미래교육에도 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학교 공간을 미래지향적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교공간의 혁신적 디자인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Berner(1993)는 '좋은 시설과 환경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모토인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어떤 혁신적인 미래형 교육공간을 제안할 수 있을까?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과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 공유와 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 개방형 휴게공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 방식'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또한 혁신 공간이 계속해서 유지-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간혁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1) 국내 공간 수업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공간 수업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수업의 공통적이거나 필수적인 절차를 추출하여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모델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3)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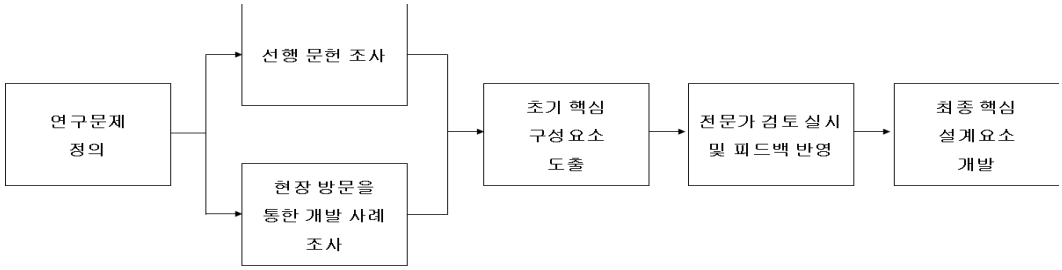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공간 수업 사례 조사 및 분석
   - 공간혁신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진 다양한 수업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 공간 수업의 공통적•필수적 절차 추출
   - 앞서 연구한 수업 사례에서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추출하였다.
3)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마련
   -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한 수업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 교과 융합을 통한 사용자 참여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설계하였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양식의 하나인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다섯 가지 대표적 공간 수업 프로세스와 시도 교육청 공간혁신 백서·사례

집, 학교공간혁신 관련 단행본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필수적 절차를 추출하였다. 또한 경남의 학교공간혁신 현장을 방문, 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경남형 공간 수업은 PBL로 설계함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그림 1] 연구 절차

3. 연구 결과

▩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과정

과정	1. 이해하기	2. 관찰하기	3. 상상하기	4. 구성하기	5. 돌아보기
과정 설명	▪공간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 ▪이상적인 학교 공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촉진자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학교 공간을 두루 탐색하고, 재구성하고 싶은 공간을 발견, 선정하는 과정 ▪관찰노트를 통해 관찰하고, 학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	▪선정된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공간 탐방을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탐방하는 과정 ▪다양하고 혁신적인 공간을 실제 만나기	▪선정된 공간을 구성하고 만들어 보는 과정 ▪공간의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설계도 및 모형을 제작 ▪모둠별 평가 및 피드백을 받고 공간 전시회를 통해 최종안 선택	▪공간혁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칙 정하기 ▪학교 공동체의 사용현황 및 만족도 평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
활동 내용	1-1. 생각 나누기	2-1. 공간 탐색하기	3-1. 탐방 계획하기	4-1. 아이디어 모으기	5-1. 공간 사용규칙 정하기
	1-2. 공간 교육 : 건축가와의 만남	2-2. 공간 선정하기	3-2. 공간 탐방하기	4-2. 공간 설계하기	5-2. 만족도 평가 및 보완
				4-3. 모형 제작하기	
				4-4. 팀별 공간 펼치기	
				4-5. 공간 전시회 열기	

4. 논의 및 제언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은 교과 융합형, 단일 교과형, 자유학년제, 동아리형, 방과후학교, 방학 프로그램, TF팀 구성(학생-교사-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 동아리, 목공 동아리, 디자인(미술) 동아리 등 관련 동아리들의 협업, 학부모, 지역 예술가나 전문가 참여, 인근 공방 활용 등 지역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공간혁신의 과정이 문화예술 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 이어지며 이는 미래학교 공간의 한 축이 된다.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은 학생 중심 수업, 교육으로 나아가는 추진체가 된다. 시대적 유행을 반영하여 고정된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사용자들에 의해 또 다른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구조여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측면에서 언제나 혁신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방식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추후 사용자들이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가지는 공간인지, 다양한 목적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건축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공간 구성, 참여에서 나아가 주도하는 학교 사용자, 고정된 공간이 아닌 상시 혁신이 가능한 방식의 공간혁신 철학이 중요한 때이다.

1. 공간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공간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한 도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 수업 절차의 공통적, 필수적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학교공간혁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공간 수업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업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간혁신의 평가 환류 면에서 혁신 공간의 교육적 활용 측면, 공간혁신 후 학교문화의 변화 등에 관한 질적 측면의 현장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연구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중심으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학교라는 공간은 그 구성원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으로 '공간이 삶을 바꾼다'는 말처럼 학교의 모든 공간이 그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공간이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 온 학교의 모습은 공간의 기능적 이용과 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학교 표준 공급모델(교도소의 평면도와 유사한)'로 인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한하는 딱딱하고, 삭막한 곳이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학습만 하는 곳이 아니라 깨어나 활동하는 시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살아가는' 곳이다. 이제 학교는 학생 친화적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공간도 교육이다'는 말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획일적 패턴의 학교 공간은 최근의 교육과정과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어려운 구조이며, 상상력의 향상과 창의성의 증대를 중시하는 미래교육에도 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학교 공간을 미래지향적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교공간의 혁신적 디자인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Berner(1993)는 '좋은 시설과 환경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모토인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어떤 혁신적인 미래형 교육공간을 제안할 수 있을까?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과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 공유와 협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는 공간,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 개방형 휴게공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 방식'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또한 혁신 공간이 계속해서 유지-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간혁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1) 국내 공간 수업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공간 수업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수업의 공통적이거나 필수적인 절차를 추출하여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모델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3)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사용자 참여/주도 설계로 이루어진 국내 학교공간혁신 실현 학교에서 공간 수업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졌는가?
나. 다양한 공간 수업 사례에서 어떠한 공통점이나 필수적 절차가 발견되는가?
다. 발견된 공간 수업의 공통점이나 필수적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공간 수업 사례 조사 및 분석

- 공간혁신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진 다양한 수업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 공간 수업의 공통적•필수적 절차 추출

- 앞서 연구한 수업 사례에서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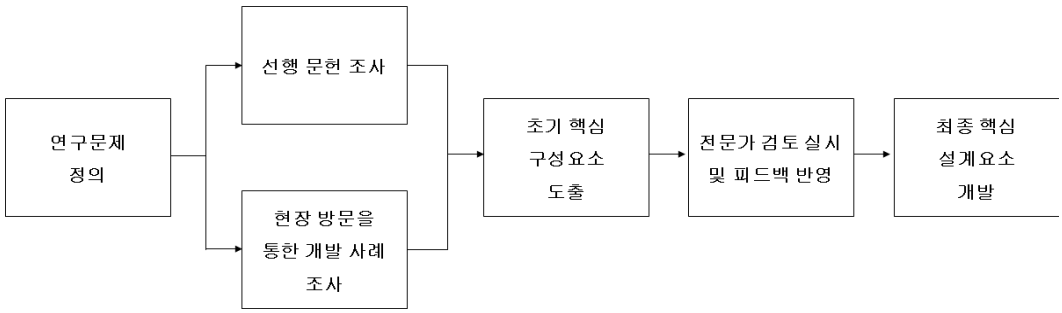
3)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마련

-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한 수업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 교과 융합을 통한 사용자 참여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설계하였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양식의 하나인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다섯 가지 대표적 공간 수업 프로세스와 시도 교육청 공간혁신 백서·사례집, 학교공간혁신 관련 단행본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필수적 절차를 추출하였다. 또한 경남의 학교공간혁신 현장을 방문, 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경남형 공간 수업은 PBL로 설계함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그림 1]의 연구 절차에 따라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절차

4. 연구 추진 계획

가. 공동연구 연구자 구성 및 역할

<표 1> 연구자 구성 및 역할

연구자	근무학교(기간)	공동 연구 역할
이희정	창원 ○○중(2013.~2019. 5년)	연구 팀장, 공동연구계획서 발표, 공동연구보고서 작성, 공동연구 최종발표
김희진	김해 ○○초(2018.~2019. 2년)	공동연구보고서 중간 발표, 공동연구보고서 작성, 공동연구 최종발표

나. 연구 추진 절차

<표 2> 연구 절차

세부추진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선행 연구 고찰 및 연구계획 수립	■	■										
문헌 분석		■	■									
공간혁신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공간혁신 수업 모델 개발 절차 기술		■	■	■	■	■						
보고서 작성			■	■	■	■						
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자료 공유								■	■	■	■	■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공간혁신의 의미 및 방향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역량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나 교육 방법의 실현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임철일 외 2019).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학교 건축, 시설, 공간의 통칭)이 혁신되어야 한다.

그에 발맞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사용자의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해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9)라고 정의하였다.

또 행복한 교육(교육부 2019)에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공간혁신)는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본래의 수준으로 돌려놓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간을 외형적으로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히 학생이라는 집단의 요구를 총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다. ⅰ) 학생을 넘어서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 ii) 개인의 다양한 활동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iii) 개인의 다양한 활동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단순히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개인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학교 공간만의 혁신이 아닌 '교육 혁신'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교육 혁신은 단순히 교육과정의 변화를 넘어서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은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 요소와 과정

공간 수업이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통해 학교의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간 주권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 할 수 있다. 공간 주권이란 주인의식, 공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변화시킬 권리를 뜻한다.

가. 프로젝트 설계의 필수 요소

1)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

문제·질문에 초점을 두면 학생들은 단지 기억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얻게 된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딱 맞는 수준을 추구한다.

2) 지속적인 탐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다. 전문가 인터뷰, 현장학습, 실험 등을 포함한다.

3) 실제성

학습의 경험을 가능한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4)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

어려운 문제·질문을 마주한 학생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 스스로 판단, 결정하는 연습을 한다.

5) 성찰

학생과 교사는 프로젝트 내내 성찰을 통해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 혼란을 줄인다.

6) 비평과 개선

비평, 개선을 통해 학생의 결과물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교사, 전문가, 멘토 등 어른들과 동료 학생들로부터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시회, 지역사회 모임, 온라인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

7) 공개할 결과물

학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교실 밖 청중들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 프로젝트 과정

1단계 : 프로젝트 시작하기, 도입활동 및 탐구질문

2단계 : 탐구질문에 답하기 위한 지식, 이해, 역량의 개발

3단계 : 결과물을 만들고 비평하기, 탐구질문에 답하기

4단계 : 결과물을 발표하고 탐구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기

3.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에 대한 이해

21세기,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 교육을 대비하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독창성, 정교성, 사회의 확장 등 개인이 가진 역량을 향상시키려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학습의 주체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희한하지만 건축은 참으로 미완의 물건이다. 아무리 건물이 완성되어도 그것은 늘 새로운 생명을 입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점유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새로운 역동성의 한 부분이 바로 그 건물인 것이다.” 라는 말로 건축(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에서도 학교 공간 사용의 주체인 학생, 교사의 의견 반영에 대한 방법적 연구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헨리 새노프는 “계획 및 설계, 의사결정, 실행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고 기술하였다.

최주원, 정수진(2017, 29-41)의 어린이 참여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2007년 ‘도롱뇽놀이터’, 2015년부터 진행된 ‘학생들이 가고 싶은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놀이터를 지켜라’, 2016년의 ‘기적의 놀이터’ 사업은 공간 조성에서 어린이 참여디자인을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사업들에서 단순한 선호도 조사나 설문조사와 같은 일회적 방법보다는 연속성 있고 장기적인 디자인 참여가 효과적이며, 어린이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송은아(2009, 78)의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참여디자인이란 사용자를 수용적 소비자로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축 환경의 창출과 유지 및 운영관리에 참여시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리라고 제안하였다. 즉,

학교 공간의 기획, 계획, 설계, 운영(유지관리 및 사용 후 평가)의 각 단계별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디자인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건축의 의미와 관련성이 높기에 보다 (학교) 교육과정이자 학습자 중심의 단어인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광수, 류수훈(2019, 41)의 학교시설의 사용자 참여 설계는 사용자가 자신의 건축환경을 창조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전문가 영역의 경계와 문화를 초월한 건축 디자인의 형태라고 제시하였다.

이용환 외(2019, 33-43)은 사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을 통해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마인드맵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공간 상상을 통한 디자인 방향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김은희(2017)는 학교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디자인 지표 개발 및 사용자 참여 설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가의 디자인 지표 개발, 사용자의 설문을 통해 계획안에 대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영범(2005, 31-32)은 참여 주체인 학생, 학교,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설문과 대담, 그리고 이 세 주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맞물려 생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기존 상황의 이해를 중심으로 열린 놀이터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여디자인이 주는 교훈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 공간선호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발한 발상과 몇 가지 신선한 제안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황동호(2019, 127)는 사용자 참여 설계 및 참여적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직접 공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디자인의 교육적 습득뿐 아니라 공간을 만들고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창작 욕구와 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애착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실용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권현정(2019, 51-52)은 장기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며, 남은 인생 동안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재(2019)는 도서관을 혁신한 B중학교의 도서관 이용자수가 20%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변화의 중심은 학생의 참여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바꾸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를 자기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 바꾸기 위해 문제를 찾는 것이 일종의 과정 교육이 된다고 여겼다. 또 생각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을

조율하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의사소통 과정도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효과라고 하였다.

윤미정(2020, 11-19)은 사용자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환경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용자 참여 과정, 참여 방식의 교육적 효과 측면 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 참여 설계 여부에 따라 공간혁신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이 있었고,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또, 전체적으로 정서적 능력이 가장 많이 함양되었고,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적 능력이 가장 많이 함양되었다. 이러한 사용자 참여 과정을 통해 구축된 학교 공간은 교육활동, 학교생활과 개인 삶의 질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파악하였다.

모든 건축물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획, 설계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 등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간 디자인부터 구성, 활용 및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 학교 구성원을 모두 참여시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조성한 공간이라면 만족도를 높이고, 주인 의식과 애착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이후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수준보다는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적 학교공간혁신이 필요하다.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학교 공간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간혁신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Ⅲ. 연구 내용

1.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기반으로 한 공간 수업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www.ndsl.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을 활용하여 공간혁신 및 사용자 참여 설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키워드로 '학교공간혁신', '참여적 공간 디자인', '미래 학교 공간', '교육 시설 및 환경' 등을 활용하였다. 검색된 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해 본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선정하였다.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기반으로 한 공간 수업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아지트 프로젝트', '민주시민 공간을 만나다', '학교공간재구조화 프로젝트 운영보고서' 등의 현장 자료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가. 학교공간혁신 사례

<표 3> 학교공간혁신 사례

지역	학교	주요 특징
서울	D초등학교	•꿈담교실 사업 •교실 배식의 효율성, 안전성 향상(교실과 복도의 벽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 독서 및 놀이공간 마련) •노후된 바닥 마감재 개선
서울	C중학교	•각 층별 홈베이스-친구, 책, 신체활동 통합 공간 •PC설치, 토론가능 원형 테이블 마련
경기도	C중학교	•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혁신 필요성 대두 •뮤지컬(문화예술교육 및 융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소극장 등 공간 조성 •최첨단 스마트기능 구동에 특화된 수업교실

지역	학교	주요 특징
경남	Y중학교	•복합문화공간 조성(도서관,메이커스페이스)+융합복합공간(미술실) •채움뜰 공간 외벽 폴딩도어로 구성(공연장 및 동아리실 활용)
광주	M초등학교	•'엉뚱공작소'-3D프린터, 목공도구 활용 메이킹 교육 •쉼터-놀이 및 휴식 공간
USA	S초등학교	•초1-2교실 활용 가능한 가변적이고 활동 위주의 공간 •옆 교실과의 가변형 벽(공간 분리-확장에 용의) •다양한 형태의 책상 구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 구현 가능
Denmark	O고등학교	•전체 40학급 규모에서 절반은 오픈형, 절반은 실(Room)로 조성된 공간에서 수업 진행 •개방된 공간에서도 장소성의 개념 도입과 가구 등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
Japan	K초등학교 (과학실)	•책상 상판의 여부에 따라 개수대 사용 가능하여 건식 및 습식 실험, 실습이 모두 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습대 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

나. 공간 수업 프로세스

1)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배움의 공간은 C Program이 Learning Fund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배움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상상한다면, 새로운 배움을 담는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C-Program 2018, 5). 2016년 11월부터 8개월간 구미봉곡초등학교(경북 구미), 어룡초등학교(광주광역시), 진부고등학교(강원 평창), 이우학교(경기 성남 분당)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진행되었다. 첫째, 배움의 공간은 학생이 주인이다. 학교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관찰하고, 영감을 받고, 상상하고, 사용하는 전체 과정에 학생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둘째, 배움의 공간은 '배움'을 위한 공간이다. 배움의 공간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은 무엇이 다른지 혹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어떤 수업이나 활동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새로운 배움을 담을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셋째, 배움의 공간은 현실과 일상의 공간이다.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원을 토대로,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오랫동

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C-Program 2018, 7-9).

배움의 공간 진행 과정은 〈표4〉과 같이 6개의 단계와 1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 배움의 공간 프로세스

1단계 시작하기	step 1	팀을 구성합니다.	2단계 이해하기	step 3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step 2	일정과 예산을 확인합니다.		step 4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관찰합니다.
3단계 탐험하기	step 6	인사이트 투어를 진행합니다.		step 5	인사이트 투어를 계획합니다.
	step 7	인사이트 토크를 진행합니다.	4단계 상상하기	step 9	학교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step 8	학교 공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step 10	공간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5단계 만들기	step 11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간을 설계합니다.	6단계 돌아보기	step 13	공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합니다.
	step 12	실제 공간을 완성합니다.		step 14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C-Program의 배움의 공간 프로세스에서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관찰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배움의 공간이 생기고 난 후 1년간의 모니터링 시간을 통해 변화와 임팩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하였다. 관찰을 통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여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사물이 아닌 사람을 관찰한다. 둘째, 개인적 사견이나 유추는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관찰한다. 셋째, 의미 있는 사실을 얻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관찰한다(C-Program 2018, 38).

관찰을 위한 slides(지도용)에 관찰의 필요성, 관찰기법, 관찰을 위한 태도, 관찰을 통해 의미있는 발견점 찾기, 관찰 노트, 인사이트 투어 list를 담고 있어 관찰하기 활동 및 인사이트 투어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지트 프로젝트

아지트 프로젝트는 학생 중심의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공간 재구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본다는 점에서 디자인씽킹과 비슷한 면이 많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 학생, 건축가들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내게 된다. '스탠퍼드 디스쿨의 5단계 프로세스(공감-문제 정의-아이디어-프로토타입-테스트)'와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툴킷'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5〉와 같이 구안하였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9, 5).

〈표5〉 아지트 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세스

프로세스	1. 공간 느끼기	2. 공간 탐색하기	3. 공간 창조하기
프로세스 설명	공간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학교 공간을 둘러보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과정. 1차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만남.	재구성하고 싶은 공간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단계. 학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진행.	선정된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단계. 공간의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함. 입체모형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디자인발표회에 참여.
배움 활동	1-A. 공간의 중요성 이해하기	2-A.[선택1] 공간 마인드맵 그리기	3-A. 2차 인사이트 투어
	1-B. 공간 공감 지도 만들기	2-A.[선택2] 공간 브레인스토밍	3-B. 공간에 대한 철학 세우기
	1-C. 공간 별명 만들기	2-B. 공간 분류하고 후보 정하기	3-C. 공간 디자인 Y-chart 만들기
	1-D. 1차 인사이트 투어	2-C. 설문하기	3-D. 공간 디자인 만들기
		2-D. 심층 인터뷰하기	3-E. 디자인 발표회 실시하기
		2-E. 최종 공간 선정하기	

아지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마인드셋으로 '도전', '실험', '협업', '창조적 자신감' 네 가지를 제안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인 교사, 학생, 건축가들

의 프로젝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지트 프로젝트 Tool Kit에는 아지트 프로세스의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초등)를 담고, 아지트 프로젝트 Tool Kit Workbook에는 단계별 활동지를 제공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3) 미래 학교를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매뉴얼(ver2.)

미래 학교를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매뉴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8년부터 3개년 간 추진하고 있는 미래 학교를 위한 학교시설 재구조화 모형 개발 연구의 2년 차 성과물로, 학교의 주요한 사용자인 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미래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총 5차시 프로그램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며, 1차시 우리 학교의 미래 교육 지향점 찾기, 2차시 하루 일상 속 공간 탐구, 3차시 공간의 문제 찾고 제안하기, 4차시 우리 학교 공간 만들기, 5차시 발표 및 공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록에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과 사례(교실형 4종, 허브형 8종) 사진들을 수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5).

1차시 우리 학교의 미래 교육 지향점 찾기 단계에서는 학교사용자 TF 구성 및 검토사항 체크, 2차시 하루 일상 속 공간 탐구와 3차시 공간의 문제 찾고 제안하기 단계에서는 초 · 중 · 고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지를 제시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시 우리 학교 공간 만들기 단계에서는 디자인 카드 세트와 다양한 모형 맵핑 소스(공간 재료 이미지)를 제공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 발표 및 공유 단계에서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아이디어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하고, 이를 발표하고 생각을 공유, 수렴해가는 과정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단계로 보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는 민주시민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주권자 교육'에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학교 공간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지게 해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9, 7). 공간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간주권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초등은 학급형/학년형/동아리형, 중등은 학년형, 고등은 교과연계형으로 실시하였으며, 공간 만나기-공간 펼치기-공간

공감하기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효과적인 공간 수업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표6〉과 같은 공간수업 계획의 자체점검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표6〉 공간수업 계획의 자체점검 리스트

√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가?
√	새로운 배움의 방식과 가치를 담은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	공간 변화 계획은 교육과정(수업)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예상할 수 있는가?
√	공간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	어떤 수업이나 활동이 필요할까?
√	공간을 함께 참여할 학교구성원들이 있는가?
√	기존 공간과의 연결을 고려했는가?
√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표6〉에서 드러나듯이 학교공간혁신의 방향을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을 연계하는 것으로 보고, 공간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교육이 되고 민주적 경험을 위한 장이 되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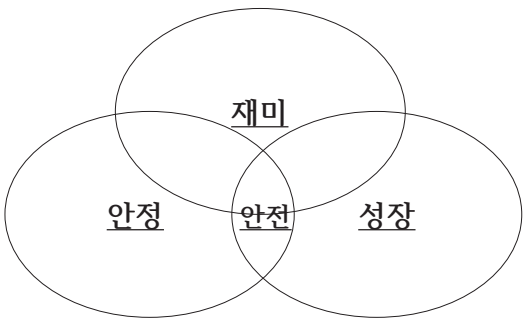
그리고 사용자 참여형의 공간 수업 유형으로 1) 교사 자체 수업 기획 후, 전문가 결합 2) 교사 직접 수업, 전문가 특별수업 3) 사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 4) 전문가가 수업 진행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연계한 수업을 모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사의 공간수업에 대한 역할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공간, 다시보다' 챕터에서는 학교 안(교문, 운동장, 조회대), 학교 밖(중앙현관, 교장실, 교무실, 복도, 급식실, 화장실), 교실 공간으로 나누어 '학교다움'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실현이 학교 공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는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교실을 창의적 · 감성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미래형 교실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기획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6).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기획하기, 설계하기, 시공하기, 유지 · 관리하기'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젝트 기간은 6-8개월이 소요되므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학교 측과 협의하여 품질확보에 충분한 공사 기간을 계획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12).

꿈을 담은 교실 디자인의 원칙은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이라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의 목표를 함께하고 있으며, 다음 [그림 2]의 4가지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30).



[그림2] 꿈을 담은 교실 디자인 원칙

안정(Stability)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균형과 안정을 보장하는 디자인, 성장(Growth)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디자인, 재미(Fun)은 어린이의 심리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위한 디자인, 안심(Safety)는 어린이의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위험 요소를 배제한 디자인을 말한다.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에서 중시하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계인 '어린이 디자인 동행'은 어린이가 살고 있는 〈학교 삶 이야기〉에 집중한다. 어린이를 필요에 의한 '참여'의 대상이 아닌, 학교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행'의 대상으로 접근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18). 어린이 디자인 동행의 단계는 〈표7〉와 같다.

〈표7〉 어린이 디자인 동행의 단계

1	안녕하세요	어린이와 건축가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교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2	놀다+이야기하다	어린이는 학교에서 좋았던(시간, 공간, 친구, 무엇)을 주제로 소개합니다. 건축가는 기록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분류화한 의견을 주제로 소개합니다.
3	이야기+디자인하다	주제에 따라 모둠별로 '교실지도'를 스케치하며, 디자인합니다.
4	상상하다	어린이들의 교실 이야기를 공간 그림책을 통해 주제 속 놀이, 친구, 사람 등의 관계를 담습니다.
5	디자인하다+만들다	주제에 따라 교실 디자인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디자인합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의 일상을 스스로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스케치로 표현하면 건축가들이 스케치에 담겨진 교실의 행태, 쓰임새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학교.산책' 과정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공간 건축교육으로,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학교를 관찰하고 학교 속 우리 일상을 이야기한다. '교실.상상' 과정은 어린이 디자인 동행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축교육으로, 우리 교실을 나의 일상에 비추어 공간을 관찰한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관찰한 교실공간은, 교실에 대한 바람,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입체 모형으로 표현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19).

2017년 처음 시작한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은 2020년에는 특수학교공간혁신, 중고교 꿈을 담은 교실 등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다. 꿈담교실 프로젝트로 시작된 작은 교육공간(초등 1, 2학년 교실)의 변화는 놀이터, 학교 정원, 학교 도서관, 교무행정실, 화장실 등 학교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 모델 간 비교 분석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공간 수업 프로세스의 단계(차시), 사례, 사용자 참여 정도, 전문가 결합 여부, 강조점, 특별한 점을 비교 분석하면 〈표8〉과 같다.

〈표8〉 모델 간 비교 분석

	A	B	C	D	E
단계(차시)	6단계 14개 스텝	3단계 15개 배움 활동	5차시	3단계	4단계
학교공간 혁신사례	구미봉곡초, 어룡초, 진부고, 이우학교 (2018)	광주광역시교 육청 초중고 10개 학교(2018)	•	경남교육청 초중고 6개 학교(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 6개 초등학교 (2017)
사용자 참여 정도	참여형	주도형	주도형	주도형	동행
전문가 결합 여부	○	○	×	×	○
강조점	배움의 공간, 관찰 과정 중시, 모니터링	디자인씽킹	미래 학교에 초점, 실질적 사용 중심	민주시민교육 과 교육과정 연계	학교 삶 이야기
특별한 점	인사이트 투어 list 수록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제시(초등), 활동지 제공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과 사례 수록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팁 제공	창의적·감성 적 공간 (초등 1,2학년 교실)

A :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C-Program)
B : 아지트 프로젝트(광주광역시교육청)
C : 미래 학교를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매뉴얼(ver2.)(한국교육개발원)
D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경상남도교육청)
E :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서울특별시교육청)

2. 학교공간혁신 현장 방문, 관찰 및 면담

국내에서 학교공간혁신이 진행된 현장을 방문하여 공간 수업을 중심으로 담당 교사 및 촉진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제적인 측면에서 공간혁신 수업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장 방문 대상은 시·도 교육청에서 미래형 학교 혹은 혁신 학교로 선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 신축, 개·보수를 실시한 학교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사용자 참여 수업 설계의 특성을 지닌 학교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활동 특성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닌 학교, 학교공동체가 공간혁신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반영하여 추진한 학교 등이 포함된다. 현장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 현장에 방문하여 학교의 업무 담당자 및 교직원의 설명과 함께 주요 공간 및 시설을 살펴봄으로써 공간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였다.
- ▸ 교장 및 담당 교사 등의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해당 공간의 운영에 대한 의견, 아쉬운 점, 어려웠던 점 등의 생각을 논의하였다.

<표 9> 진주OO초등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2020.03.17.(화) 10:00~13:00	
공간혁신 상황	**관찰 면담 결과**
• 2019.경남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 • 10실 내외의 소규모학교 • 중앙현관 ->도서관, 쉼터 • 1층 교실 앞 데크설치 : 운동장에서 입출입 가능, 트램플린 등 놀이터. 1학년 교실 바닥 난방 • 2층 교실에서의 비상탈출구 및 흥미 제공을 위한 미끄럼틀 설치 • 강당과 운동장의 접점에 슬라이딩도어 설치	• 적극적인 촉진자의 참여와 학습자 주도 참여 설계 구현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돋보임. •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20차시 이상의 활동을 실시하였고, 인사이트 투어, 학부모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간혁신이 되고자 노력함. • 수요자의 모든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함. : 공간혁신에 대한 학생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관리자 및 교직원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표 10〉 남해OO중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2020.03.17.(화) 15:00~17:00	
공간혁신 상황	**관찰 면담 결과**
• 2019.경남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 • 10실 이내의 소규모학교 • 1층 1실의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제거 : 공간 확대와 활용도 높임 • 다각형의 이동 가능한 책상 : 개별, 모둠별 수업이 자유자재로 가능 • 창가에 쇼파 겸 쉼터 구성 : 토의와 쉼이 있는 공간 • 옥상에 벤치 및 정원 조성 • 가정실습실 및 학생휴식실 조성	• 사립학교로서 교육청 예산과 더불어 학교 자체 예산이 투입 • 1층 공간 구성은 획기적이었음. : 촉진자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타지역(서울 및 경기도)에서 해본 경험이 있음. - 촉진자의 경험 및 실력에 의해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 학생 주도 설계라기 보다는 촉진자 주도의 공간혁신이었음.

〈표 11〉 김해OO중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2020.03.18.(수) 9:00~11:00	
공간혁신 상황	**관찰 면담 결과**
• 2019.경남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 • 30실 이상의 중규모 학교 • 중앙현관의 쉼터 조성 • 각 층에 학년별 쉼터 조성 • 미술실, 미술전시실, 목공실, 가정실습실, 음악실 등 다양한 공간의 변화	• 학습자의 교육적 활용가치와 현실성이 돋보이는 공간 설치 •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 학습, 공연이 가능하게 구성 • 공간혁신보다는 시설 설비 재투자에 가까움 : 학생에게 모두 필요한 공간이고 투자이나 공간혁신사업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름.

〈표 12〉 김해OO초등학교 방문, 관찰, 면담 결과

2020.03.18.(수) 11:00~13:00	
공간혁신 상황	**관찰 면담 결과**
• 2019.경남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 • 30실 이상의 중규모 학교 • 야외 위주의 공간혁신 추진 • 학생 놀이터 2개 조성 : 직접 디자인 한 놀이기구가 마련된 놀이터. 점핑, 그물망, 미끄럼틀이 연계된 놀이방 같은 놀이터 구현 • 건물 2개동 사이의 큰 나무를 살린 정원 쉼터 조성 • 사업의 절차가 늦어져 완성되지 못함.	• 실내가 아닌 야외 공간혁신이라 새로움 • 야외 공간에 대한 전문 촉진자와의 매칭이 되지 않아 진행 내내 어려움. - 학생들이 추구한 것이 실제 반영되지 못함. • 4개 학년에 걸친 학생 주도 참여 설계 수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함. • 학생의 직접 디자인,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고루 이루어짐. • 넓은 정원 공간의 혁신 부재가 아쉬움

Ⅳ. 연구 결과

▨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과정

〈표 13〉 공간혁신 수업 과정

과정	1. 이해하기	2. 관찰하기	3. 상상하기	4. 구성하기	5. 돌아보기
과정 설명	■ 공간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 ■ 이상적인 학교 공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촉진자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 학교 공간을 두루 탐색하고, 재구성하고 싶은 공간을 발견, 선정하는 과정 ■ 관찰노트를 통해 관찰하고, 학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	■ 선정된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공간 탐방을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탐방하는 과정 ■ 다양하고 혁신적인 공간을 실제 만나기	■ 선정된 공간을 구성하고 만들어 보는 과정 ■ 공간의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설계도 및 모형을 제작 ■ 모둠별 평가 및 피드백을 받고 공간 전시회를 통해 최종안 선택	■ 공간혁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칙 정하기 ■ 학교 공동체의 사용현황 및 만족도 평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
활동 내용	1-1. 생각 나누기	2-1. 공간 탐색하기	3-1. 탐방 계획하기	4-1. 아이디어 모으기	5-1. 공간 사용규칙 정하기
	1-2. 공간 교육 : 건축가와의 만남	2-2. 공간 선정하기	3-2. 공간 탐방하기	4-2. 공간 설계하기	5-2. 만족도 평가 및 보완
				4-3. 모형 제작하기	
				4-4. 팀별 공간 펼치기	
				4-5. 공간 전시회 열기	

▨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1. 이해하기

1-1. 생각 나누기	
▶ 이상적인 학교 공간 ▹ 우리 학교의 이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 학교 공간과 관련된 경험을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 열기(3-keywords, 소셜네트워킹)	**핵심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성취기준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Tip1. 공간수업 프로젝트 예산은 사용에 제한이 있어 학교의 다른 예산과 통합하여 활용하면 운영이 수월합니다.
Tip2. 공간수업은 아름다움보다 편리함, 지속성, 안정성에 목적을 두고 진행해야 실패율이 적습니다.
Tip3.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봅니다.
- 워드 클라우드란? 글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

1-2. 공간 교육	
▶ 촉진자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 확장하기(그룹 탐구법) ▹ 우리가 꿈꾸는 수업(랜덤 워드, 이미지 카드 활용 기법)	**핵심 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성취기준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9진03-03]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Tip1.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으로 공간의 중요성, 공간혁신의 방향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인식 확대, 참여 설계에 대한 이해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Tip2. 건축학교나 건축캠프를 통해 공간 교육, 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관찰하기

2-1. 공간 탐색하기	
▶ 학교 공간 탐색 ▹ 공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 관찰하기 ▹ 우리 학교 공간 살피기(SWOT 분석, 가감창제)	**핵심 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성취기준	[4국01-02]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9미01-01] 자신의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Tip1. 우리 학교에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간과 공간 사용자를 관찰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Tip2. 학교 교실 배치도(학교 구역 도면)와 카메라를 활용하여 학교 전체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Tip3.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찰하려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몇 개의 공간을 집중해서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2. 공간 선정하기	
▶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조사 대상 선정 및 방법 토의 ▹ 문항 제작 및 역할 나누기 ▹ 설문조사, 인터뷰 실시 및 결과 정리 ▶ 최종 공간 선정 ▹ 공간 분류하고 후보 정하기, 공동의 장소 합의	**핵심 역량** 공동체 역량
성취기준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Tip1.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용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 중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Tip2. 공간의 중요도, 사용자의 흥미, 사용 빈도,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 공간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Tip3. 비판적 토의 및 민주적 합의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 시민 교육이 바탕이 되도록 합니다.

3. 상상하기

3-1. 탐방 계획하기	
▶ 공간 탐방 계획 ▹ 탐방 장소 조사 및 선정하기	**핵심 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성취기준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Tip1. 단체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 연락 및 예약이 필요합니다.
Tip2. 동선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구글맵을 활용합니다.
Tip3. C Program 리스트 참고. 책방&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복합문화공간 등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 다른 지역 탐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ip4. 컨셉트가 뚜렷하고 고객 맞춤형의 공간(사람들의 행태나 공간별 디자인 의도), 공간에 적합한 물품(디자인이나 재질, 감촉, 사용성, 가격) 등을 고려합니다.

3-2. 공간 탐방하기	
▶ 공간 탐방 실시 ▹ 최대한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핵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성취기준	[4미01-01]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Tip1. 카메라, 탐방 일지 활용. 샘플이 될 만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메모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둡니다.
Tip2. 공간 탐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공간혁신 사례를 담은 다양한 사진,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4. 구성하기

4-1. 아이디어 모으기	
▶ 탐방 후 결과 공유 : 학교 공간에 어떻게 반영할까? ▹ 우리 학교 공간의 핵심 가치(가치명료화 활동) ▹ 공간 구체화하기(6-3-5 브레인라이팅) ▶ 아이디어 도출 ▹ 아이디어 스케치	**핵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성취기준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Tip1. 다양한 장소를 방문한 뒤 각자 얻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우리 학교 공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공유합니다.
예) 책장으로 개방성과 폐쇄성의 중간을 갖는 구역, 책을 읽는 자세는 다양할 수 있음. 북적이는 시공간에서도 혼자만의 고요함이 필요. 전시하고, 보는 다양한 방식 등
Tip2. 아이디어 스케치는 모두가 이해할 수준의 글과 그림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합니다.

4-2. 공간 설계하기	
▶ 해당 공간의 실제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현 ▹ 필요한 공간, 시설 그리기	**핵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성취기준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Tip1. 모눈종이, 시각화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인테리어 프로그램(Planner5D 등)을 활용합니다.
Tip2. 아이디어의 수정·보완을 위해 다음 프로젝트를 하는 날까지 교실에 게시합니다.
Tip3. 이 단계부터 설계나 시공을 담당할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3. 모형 제작하기	
▶ 설계를 바탕으로 입체 모형 제작 ▹ 실제 건축에 가까운 재료, 방법 활용하여 만들기	**핵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성취기준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Tip1. 전문적인 건축재료 사용과 건축 전공 대학생과 협업을 통해 모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 활용 가능 재료 : 블럭, 폼보드, 아이클레이, 플레이콘, 골판지, 수수깡, 철사, 끈, 색종이, 채색 도구 등

Tip2. 폼보드, 우드락 등을 활용해 모형을 제작할 때 사전 안전 지도를 충분히 실시합니다.

Tip3. 3D프린터로 직접 출력 및 외부 위탁을 통해 모형 제작이 가능합니다(3D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도구 : 스케치업, 캐드 등).

4-4. 팀별 공간 펼치기	
▶ 모둠별 공간 구성 발표 ▹ 상호 평가 및 피드백 ▹ 수정 및 보완하기	**핵심 역량** 의사소통역량
성취기준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9진01-04] 경청, 질문, 설득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Tip. [4-6] 최종안 선택하기 평가지를 모둠별 상호 평가 및 피드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5. 공간 전시회 열기	
▶ 프로젝트 과정 소개 및 건축모형 전시 ▹ 최종 선택을 위한 공간 구상 공유하기 ▹ 선호도 조사하기 ▶ 최종 설계안 선택 ▹ 건축가 설계한 디자인 공유하고 의견 나누기 ▶ 명칭 공모	**핵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성취기준	[4미03-03]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9미-03-04] 미술 작품, 관람자, 전시 장소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Tip1. 각 모둠별로 공간 전시 부스를 나누어 프로젝트 과정 소개 및 건축모형을 전시합니다.
Tip2. 학생들이 공간 큐레이터가 되어 여러 교육 공동체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거나, 공간 설명서를 작성하여 건축모형과 함께 전시합니다.
Tip3. 전문가 협의,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도를 파악하여 희망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Tip4. 전문가와 행정실은 학교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나 소방법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Tip5. 비판적 토의 및 민주적 합의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 시민 교육이 바탕이 되도록 합니다.

5. 돌아보기

5-1. 공간 사용규칙 정하기	
▶ 효과적인 공간 활용 위한 사용규칙 세우기 ▹ 공간 완성 후 활용 및 관리 방안 정하기	**핵심 역량** 공동체 역량
성취기준	[4도03-01]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공익의 중요성을 알고,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9도03-04]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준법 의식을 길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Tip. 공간 사용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규칙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용 과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2. 만족도 평가 및 보완	
▶ 공간 만족도 평가 ▹ 사용 현황 파악하기 ▶ 공간 개선 및 보완 ▹ 규칙 제·개정하기	**핵심 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성취기준	[4수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Tip1. 단순히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간에서 직접 시간을 보내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음과 다른 기능이 생기지는 않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불편함이나 편안함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Tip2.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 빈도와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Tip3. 공간이 생긴 후 정기적으로 만남을 소집하여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공간에도 적용할만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지속해서 논의합니다.

Ⅴ. 논의 및 제언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은 교과 융합형, 단일 교과형, 자유학년제, 동아리형, 방과 후학교, 방학 프로그램, TF팀 구성(학생-교사-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 동아리, 목공 동아리, 디자인(미술) 동아리 등 관련 동아리들의 협업, 학부모, 지역 예술가나 전문가 참여, 인근 공방 활용 등 지역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공간혁신의 과정이 문화예술 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 이어지며 이는 미래학교 공간의 한 축이 된다.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은 학생 중심 수업, 교육으로 나아가는 추진체가 된다. 시대적 유행을 반영하여 고정된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사용자들에 의해 또 다른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구조여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측면에서 언제나 혁신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방식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추후 사용자들이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가지는 공간인지, 다양한 목적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건축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공간 구성, 참여에서 나아가 주도하는 학교 사용자, 고정된 공간이 아닌 상시 혁신이 가능한 방식의 공간혁신 철학이 중요한 때이다.

1. 공간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공간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한 도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 수업 절차의 공통적, 필수적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학교공간혁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공간 수업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업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간혁신의 평가 환류 면에서 혁신 공간의 교육적 활용 측면, 공간혁신 후 학교 문화의 변화 등에 관한 질적 측면의 현장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현정(2109).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공간교육의 도구로써의 건축. 51-52.
- 김달효(2019). 학교공간에 대한 의미탐색.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경상남도교육청(2019). 민주시민, 공간을 만나다. 경남: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2019). 학교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수업 운영보고서. 경남:경상남도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2018). 아智트 Project. 광주:광주광역시교육청.
- 교육부(2019). 행복한 교육. 교육부.
- 김경인(2014).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중앙북스
- 김은희, 류수훈(2017). 학교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디자인지표 개발 및 사용자 참여설계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4(3), 3-13.
- 로라 S. 더스키스(2013). 건축가, 건축을 말하다. 토트(주)북새통. 14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세종꿈마루 공간탐방 자료집. 세종: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배성호(2020). 우리가 학교를 바꿨어요!. 초록개구리.
- 송은아(2009).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일본의 지역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25호, 78.
- 신진수, 조향미(2019).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학교 공간 분석: 스웨덴 비트라 텔레폰플랜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 윤미정, 이용환(2020). 사용자 참여형 학교공간혁신의 교육적효과 분석-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7(1), 11-19.
- 이영범(2005).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통한 열린 놀이터만들기-서울삼양초등학교 옥외공간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2(3), 31-32.
- 이광수, 류수훈(2019). 학교시설의 사용자참여설계 프로세스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연구 및 사업백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6(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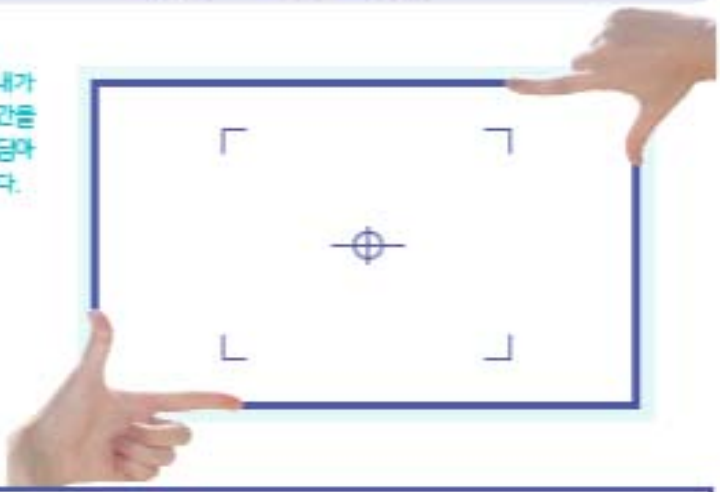
- 이기쁨(2015).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영에 가져온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용환 외 3명(2019). 교육자치혁신과 학교공간혁신 연계 방안-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2019.교육녹색환경연구, 18(4), 33-43.
- 이재(2019). 학교공간혁신, 성공의 열쇳말은 학생참여다. 조선에듀오피니언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3/2019061301216.html. (검색일: 2020. 07. 10.)
- 임철일 외(2019). 미래학교 공간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핵심 설계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공학회, 35(2), 589-619.
- 정영린(2019). 학교공간혁신. 한국교육시설학회.
- 존 라머 외(2017).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식프레임.
- 최주원, 정수진(2017). 어린이 참여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5), 29-41.
- 황동호(2019). 참여적 공간 디자인을 통한 학교 공간개선 후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4(2), 127.
- 한국교육개발원(2012).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한 워크샵 운영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6).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 사용자가 주도하는 미래학교 만들기. 한국교육개발원.
- 해외 학교공간혁신 사례집(2019). 학교공간 조성 해외사례2. 한국교육개발원.
- 핸리 세노프(Sanoff. H)(2007). 참여디자인의 원리와 목적. 대한건축학회지, 29.
- 한효수(2009). 학교문화공간 개선 사업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 홍경숙 외(2019). 학교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창비교육
- C Program(2018). 배움의 공간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매뉴얼. C Program.

<부록> 공간 수업 활동지

1-1 내가 좋아하는 공간

학교 학년 이름

•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손가락 사진기'에 담아 그림을 그려 봅시다.



Q 나는 이 공간에서 주로 무엇을 하나요?

A

Q 내가 이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Q 이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 봅시다.

A

내가 좋아하는 공간은 [ ] 입니다.

1-1 우리 학교의 이미지

학교 학년 이름

» 주제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적는다. 형용사, 명사 모두 가능하다.
» 모둠원과 공유하고, 전체가 공유하여 학교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나눈다.

✔ 우리 학교는 [ ]다.

✔ 우리 학교에 해당 하는 단어 선택			
1 분비는/한가한	2 유쾌한/불쾌한	3 애매모호한/명백한	4 단순한/복잡한
5 단일기능의/다기능의	6 무거운/가벼운	7 다채로운/단조로운	8 재미없는/재미있는
9 조화로운/조화롭지 않은	10 이성적인/감성적인	11 편안한/불편한	12 적합한/부적합한
13 정범한/특별한	14 정돈된/혼란한	15 친밀한/거리감 있는	16 답답한/답답하지 않은
17 딱딱한/부드러운	18 평등한/위계 있는	19 제한적인/자유로운	20 밋밋한/화려한

1-1 학교 공간과 관련된 경험

학교 학년 이름

✔ 어디에서?	✔ 학생 건축가 :
✔ 제목 :	✔ ( )월 ( )일 날씨 :

2-1 공간 탐색하기

학교 학년 이름

✔ 공간 &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 관찰하기

✔ 기간 : _____

✔ 관찰렌즈

❶ 사람 ❷ 객관적 사실 ❸ 최대한 구체적

(예)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모여 비밀 이야기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 관찰을 통한 의미있는 발견점(비슷한 행동끼리 분류 ⇨ 패턴 찾기 ⇨ 이유 생각해보기)

-
-
-
-

2-2 설문조사

학교 학년 이름

✔ 학교 공간 중 가장 중요한 곳?	
① 일반 학급 교실	② 특별교실(예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③ 컴퓨터실(멀티미디어실)	④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
⑤ 실내체육관(강당)	⑥ 급식실
⑦ 운동장	⑧ 화장실
⑨ 옥외 놀이 및 학습 공간(모래놀이터, 텃밭 등)	⑩ 기타 ( )

✔ 학교에 꼭 필요한 곳?	✓
① 허그 공간(집을 연상케 하는 아늑한 소파와 카펫이 깔린 공간)	
② 공동 실내 놀이 공간(다양한 놀잇감, 실내 스포츠용품 등으로 친구들과 쉬는 공간)	
③ 노래, 악기 연주 등 스트레스 해소 공간	
④ 나 홀로 또는 2-3명의 친구끼리 휴식, 독서 등 이야기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	
⑤ 교실 내 휴식 및 놀이 공간	
⑥ 만남의 공간(학부모님, 친구가 기다릴 수 있는 공간)	
⑦ 소극장-드라마실(연극, 댄스 등 학생의 재능과 끼정을 표현하는 곳)	
⑧ 오픈 스페이스(홀, 복도 등에 다목적 활동, 수업이 가능한 넓은 공간)	
⑨ 갤러리(학생 작품 등 전시할 수 있는 공간)	
⑩ 다양한 실습(목공 등 교과 실습의 여러 가지 실습) 공간	
⑪ 커뮤니티 공간(학생과 학생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휴식이 가능한 공간)	
⑫ 기타( )	

✔ 덧붙여, 요즘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과 그 공간은?

2-2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학교를 위한 인터뷰'

학교 학년 이름

✔ 인터뷰 목적 : _____

✔ 인터뷰 대상 : _____

Q [ ] 공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Q 현재 제시된 공간 외에도 우리 학교에 바꾸고 싶은 공간이 있나요?

A

Q 현재 제시된 공간 외에도 우리 학교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나요?

A

Q [ ] 공간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요?

A

Q [ ] 공간에서 무엇 하고 싶나요?

A

2-2 공간 분류하고 후보 정하기

2-2. 공간 선정하기<13P 참조>

학교 학년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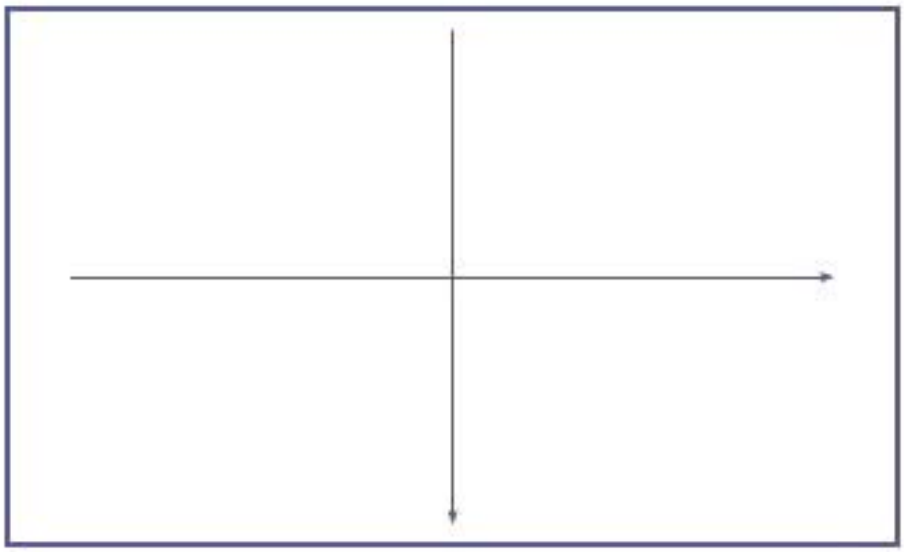
✔ 공간 분류 기준 2가지를 선택한다.

< 공간 분류 기준의 예시 >	- 공공성 :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 필요성 : 바뀐 곳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가? - 적합성 : 바뀐 곳이 학교에 어울리는 공간인가?

✔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하나의 기준씩 배치한다.

✔ 각 기준에 충족되는 장소를 배치한다.

✔ 우리의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 장소가 우선 선정 장소가 된다.



✔ 선정 결과 :

3-1 탐방 계획하기

3-1 탐방 계획하기 [illegible] 참조

학교　　　학년　　　이름

Q [장소] 장소의 이름과 주소가 무엇인가요?

A

Q [거리] 학교에서 차로 이동했을 때 얼마나 걸리나요?

A

Q [관련성] 우리가 재구성할 장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A

Q [다양한 경험]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요?

A

[장소] 친구들이 소개한 장소를 기록해 주세요				
평가 기준	[거리] 학교에서의 거리가 가깝나요?	☆☆☆☆☆	☆☆☆☆☆	☆☆☆☆☆
	[관련성] 우리가 재구성할 장소와 관련 있나요?	☆☆☆☆☆	☆☆☆☆☆	☆☆☆☆☆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나요?	☆☆☆☆☆	☆☆☆☆☆	☆☆☆☆☆
총점		☆☆☆☆☆	☆☆☆☆☆	☆☆☆☆☆

"점수만큼 색칠해보세요"

3-2 탐방 일지(공간 탐방 Q&A)

학교 학년 이름

✔탐방 장소 : _____

Q 이 공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Q 공간에서 받은 느낌과 이유는?

A

Q 공간의 특별한 점이나 좋은 점을 기록해 봅시다.
⇨ 넓이, 바닥, 천장, 색감, 조명, 가구, 소품 등

A

Q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A

Q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공간은?

A

4-5 최종안 선택하기

학교 학년 이름

	평가 기준	평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제안서	듣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명확한 근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였는가?					
	설계하고자 하는 공간의 변화 목적과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설계 및 모형	실제로 실현 가능한 설계를 구현하였는가?					
	다양한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인가? (전교생의 바람을 반영하였는가?)					
	바라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하였는가?					
	배움활동에 알맞은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는가?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디자인인가?					
	본교의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인가?					
	흥미와 관심을 끌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간을 설계하였는가?					
	학생들의 생활에 유의미한 경험을 부여할 수 있는 설계인가?					

5-1 공간 사용규칙 정하기

학교 학년 이름

✔ [1단계] 우리가 원하는 [ ]의 모습에 대해 의견 나누기

[ ]의 현재	[ ]의 장점	
	[ ]의 단점	
내가 바라는 [ ]의 모습		

✔ [2단계] 모둠별로 규칙 만들기

영역	규칙 의견
공간의 관리 및 책임은 누가?	
운영 시간은?	
쾌적한 사용을 위한 방안은?	
훼손 방지를 위한 방안은?	
다툼이나 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은?	
규칙 미 준수자에 대한 방안은?	

공간 혁신 프로젝트 참여 학생에 대한 설문

학교 학년 이름

Q 전체 과정에서 학생들이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이 민주적 이었다고 생각합니까?

A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 ]

Q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논의 하에 학생 중심적 으로 진행되었습니까?

A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 ]

Q 전체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① 학교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현할 수 있었다. [ ]
②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 ]
③ 자신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 ]
④ 학생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학생 자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

2020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습연구년 현장지원연구형 연구보고서 (15권)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이 영 주

기 획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 장 차 재 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박 영 식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이 상 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 육 연 구 사 강 태 경

연구자문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구 경 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위 미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정 연 홍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 임 연 구 원 한 미 영

연구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행정주사 박 은 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무운영주사 유 창 호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s://gerii.gne.go.kr
전화: (055)269-0777
전송: (055)269-0789

인 쇄 | 단디(055-261-2920)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